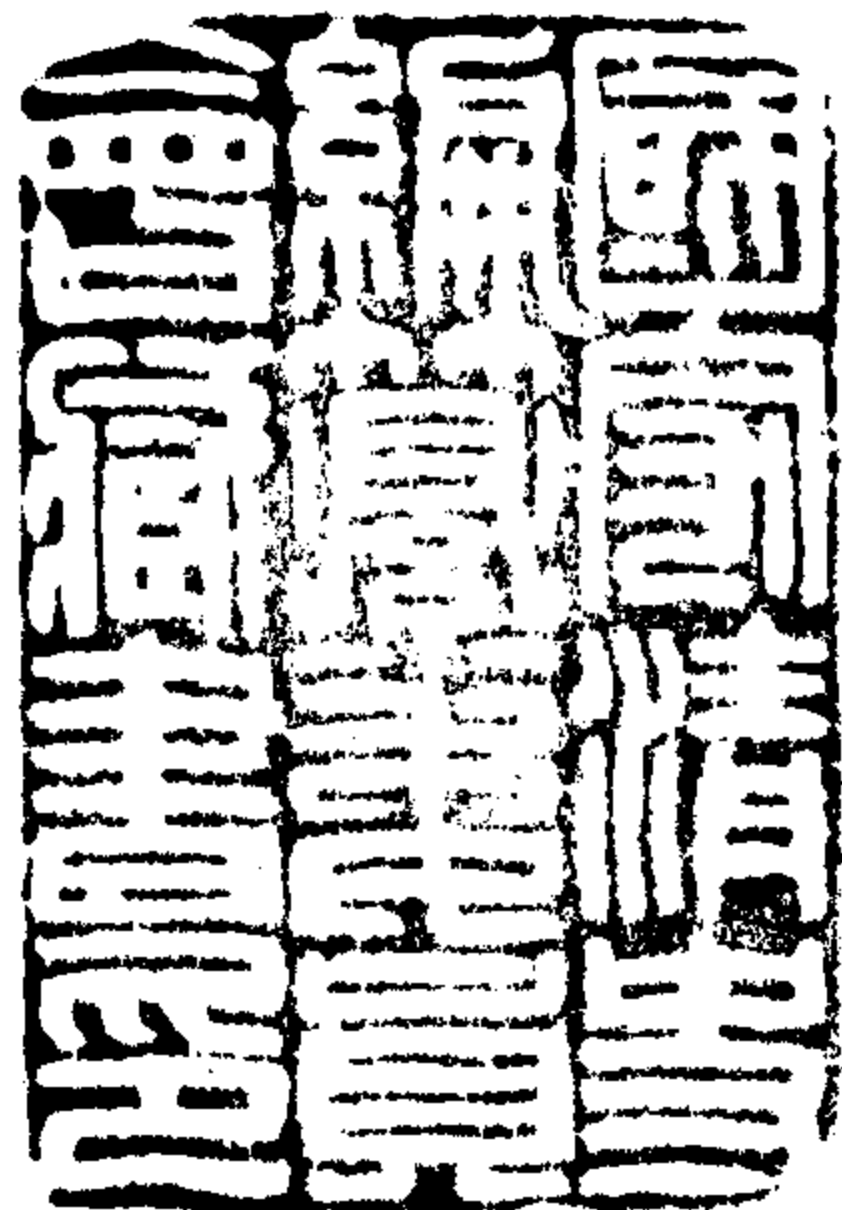


008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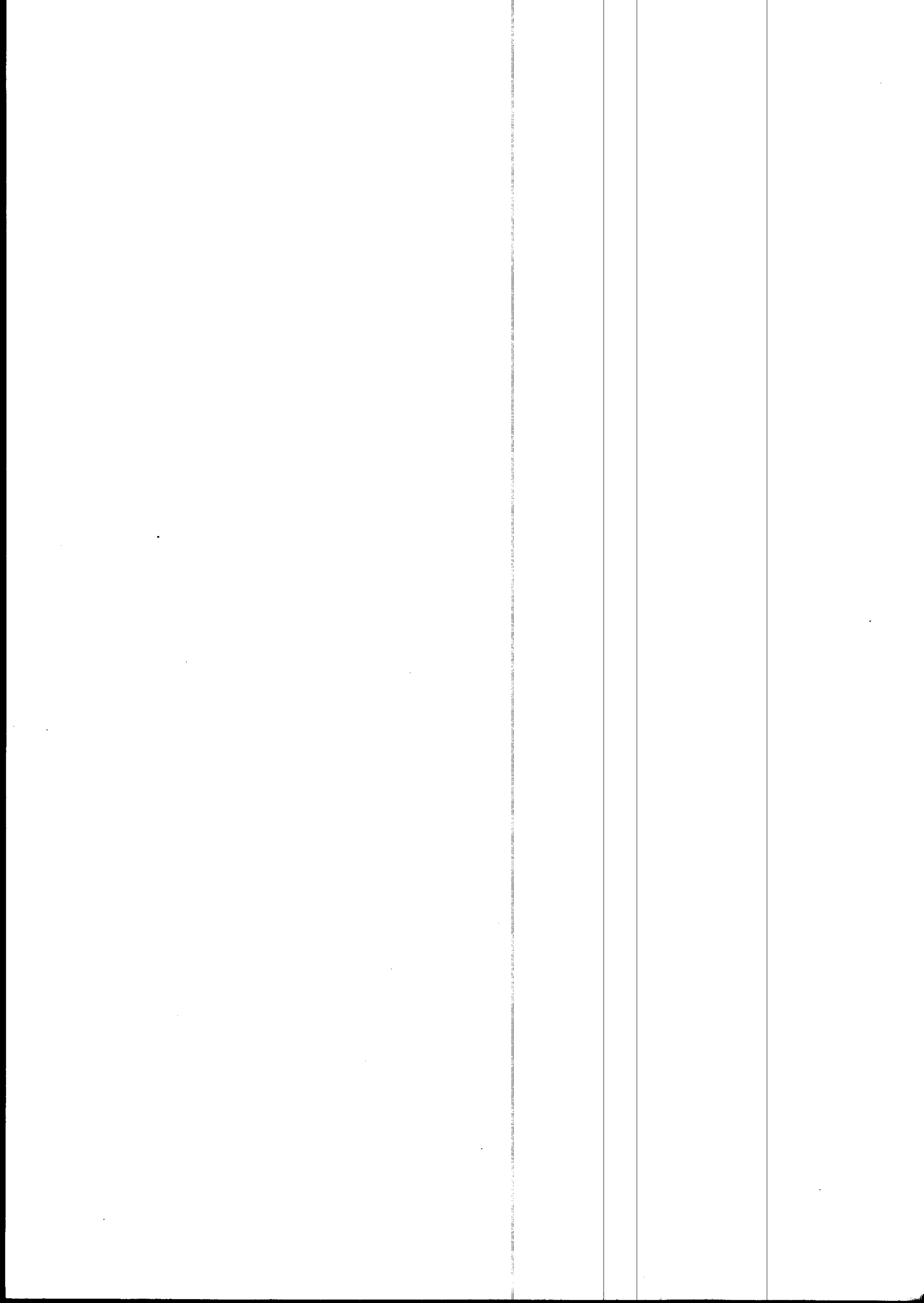
林基中編

燕行錄全集

93



東國大學校出版部



燕行錄은 韓國의 외교사절들이 明나라와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았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記錄遺産이다.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것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래서 흔히들 朝天錄과 燕行錄이란 用語를 그렇게 辨別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도 있다. 그러나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記錄에도 燕行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어서 이 책의 이름을 『燕行錄全集』이라 붙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이 책은 韓國人이 元과 明과 淸朝에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은 中國使行錄全集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가령 이전 王朝의 記錄도 이 全集의 수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中國使行錄은 中國人의 使行錄으로 誤認될 素地도 있어서 燕行錄이란 이름이 無難할 것으로 여겨진다.

燕行錄은 高麗末부터 朝鮮末까지 五百餘年 동안 韓國人들이 外交的인 通路로 中國에 나가서 보고들은 見聞과 先進文物에 대한 體驗들을 自由롭고 創意性 있게 記錄한 것이다. 여기에는 韓國과 東亞細亞, 東亞細亞와 世界外 交의 力學關係, 公式 非公式의 國際貿易과 經濟的 狀況, 多樣한 文化交流와 尖端 學術交流 등 아주 多樣하고 많은 情報의 양이 생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박혀 있다. 따라서 東亞細亞 어느 分野의 研究에서도 參考하지 않을 수 없는 尙大한 記錄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 全集의 編者인 林基中 教授는 우리 대학 國語國文學科에서 梁柱東 教授님의 指導로 鄉歌를 研究한 분이다. 이 분은 母校의 教授로 있으면서 이미 몇 가지 學界가 注目할만한 일을 해낸 바 있다. 우리 대학의 支援으로 中國 北京大學에 專家教授로 가서 實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廣開土王碑 原石拓本 4種을 찾아내어, 그 碑文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一百餘年 동안의 昏迷를 거듭해온 東亞細亞 學界에 새로운 研究地平을 열었으며, 얼마

전에는 韓國의 歌辭文學原典을 모두 모아 『歷代歌辭文學全集』 全 50卷을 펴낸 바 있다. 이 作業은 우리 대학과 韓國政府의 支援을 받아 韓國歌辭文學 註釋研究로 계속 進行되고 있어 머지않아 學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燕行錄全集』은 國內外에 散漫하게 흩어져 있어 그 全貌나 實體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資料들을 林教授께서 30年 가까이 執拗하게 蒐集하여, 이를 整理해낸 東亞細亞關係史料의 한 集大成이다. 이 全集은 그 編輯期間만해도 一年六個月이나 所要된 巨帙이다. 이것을 우리 대학이 開校 百周年을 앞에 두고, 全 100卷의 全集으로 出版하여 東亞細亞 學界에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榮光된 일이며, 東國學統의 底力을 새삼스럽게 確認할 수 있는 快舉가 아닐 수 없다. 이 全集에 漏落된 것은 林教授께서 私費出版으로도라도 續編을 펴내 마무리할 意志를 가지고 準備를 繼續하고 있으므로 不遠 그 뜻이 成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現在 世界는 人文學의 危機라는 또 다른 도전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論理 속에서 韓國人文學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그 든실한 土臺 마련을 하면서 새롭게 出發할 必要가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그러한 側面에서도 世界 學界에 여러 모로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經濟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韓國과 東亞細亞 學界를 위해서 이 全集을 세상에 내놓기로 勇斷을 내린 것이다. 아무쪼록 이 全集이 韓國은 물론이고 東亞細亞와 世界 學界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01年 8月 10日

東國大學校總長 宋錫球

人文學은 探究의 對象이 自由롭고 廣範하다. 人文學은 知識을 삶의 直接的 手段으로 應用하려는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과는 달리 知識이 그런 實用性에서 無限히 自由로 위질 수 있게 하려는 學問이다. 人文學은 豊富한 對象을 통해서 생각하기, 말하기, 글 쓰기, 行動하기를 重視하는 學問이다. 생각하기의 靈感性和 多樣性, 말하기와 글 쓰기의 體系性,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行動하기는 삶의 質을 높이고 人間 社會를 圓滑히 돌아가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따라서 人文學은 人間의 삶을 支撐하는 土臺라는 側面에서 볼 때 恒常 基礎學問이라는 本質的 屬性을 가지고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韓國 人文學의 土臺가 되기에 充分한 資料의 하나이다.

燕行錄은 朝鮮王朝 5百年 동안 韓國과 中國 사이의 交涉關係를 自由롭게 記錄한 우리 民族의 記錄遺産이며 당시 韓國과 東亞細亞, 韓國과 世界 여러 나라와의 交流에 關한 가장 彪大한 記錄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文學과 哲學, 文化와 歷史, 外交와 交易, 學問과 批評 등에 關한 실로 廣範하고 多樣한 記錄의 寶庫이다.

나는 한글보다 漢文을 먼저 배운 世代이다. 내가 처음 文字를 接한 것은 한글이 아니라 漢字였다. 내가 할아버님께 推句를 배울 무렵에 나는 할아버님께 유충렬전을 읽어 드렸다. 推句는 謹嚴한 音聲으로 統制되었으나 유충렬전은 재미있는 想像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점점 繼續되는 中國文化의 餘震 속에 彷徨하면서 正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混亂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내가 韓國文學을 專攻하게 된 것은 中國學이 아닌 韓國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韓國人의 생각을 韓國式의 글자와 韓國式의 글 쓰기 方式으로 쓴 文學은 西紀 42年頃の 龜旨歌라는 노래가 처음이다. 그 뒤에 漢字를 빌어서 鄉札이라는 韓國式 글자로 쓴 鄉歌文學이 나타나며, 이어서 우리 글자로 쓴 한글문학이 나타나 오늘날에 이르렀다. 다

른 한편으로는 紀元前 17年 韓國人의 생각을 中國式의 漢字와 中國式의 글 쓰기 方法으로 쓴 黃鳥歌라는 作品이 있다. 이러한 傳統을 잇는 文學이 三國과 高麗를 거쳐서 朝鮮王朝 末까지 韓國人의 생각하기와 글 쓰기 方式의 主流를 形成하여 왔다. 이와 같은 韓國文學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갈래 모두 中國文化와 軼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韓國文學의 中國影響 問題를 綿密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獨創性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韓·中文學의 影響의 授受關係를 살펴보고 하였다. 文獻記錄을 根據로 論據를 提示할 수 있는 影響의 通路를 찾다보니 燕行錄이라는 큰 鑛脈이 發見된 것이다. 그래서 燕行錄을 調査하기 始作한 것이 1970年代 中반이다. 틈틈이 燕行錄을 調査하여 目錄을 만들고 資料를 모으는 일을 1978年 말까지 繼續하였다. 그 結果 豫想 밖으로 그 量이 尙大하고 몇 년 안에 다 찾아내서 整理할 수 있는 作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낸 資料마다 대체로 前人未踏의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읽는 時間 또한 몇 년 안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恩師님 몇 분께서 學位論文을 提出하지 않고 燕行錄의 世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強力하게 方向轉換을 要請하였다. 燕行錄으로 韓·中文學의 影響 授受關係를 밝혀 學位論文으로 提出하려던 꿈을 不可避 점을 수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처음 構想하였던 順序를 바꾸어 鄉歌研究로 學位論文을 쓰고, 燕行錄研究는 다음 차례의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였다.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그 후 繼續 資料를 蒐集하여 오던 터에 1980年代 母校의 부름을 받고 研究室을 東國大學校로 옮기게 되었다. 木覓山이 바라보이는 研究室에 들어가던 첫날 나는 三希堂이라는 堂號를 만들어 걸었다. 大學時節부터 構想하였던 세 가지 學問의 바람을 이루어 보려고 發願을 담아서 걸어본 것이다. 세 가지의 發願이란 첫째 새로운 方法의 鄉歌研究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鄉歌의 正確한 現代語譯, 둘째 歌辭文學의 原典全集 編纂과 그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 셋째 燕行錄 原典全集 編纂과 重要한 燕行錄의 翻譯全集 出刊과 그 研究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成就된 것이 별로 없다. 첫째 것은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와 『우리 옛 노래』로 출간되었고, 둘째 것은 『歷代歌辭文學全集』으로 出刊된 바 있으며 進行中인 歌辭註釋作業이 그것

이다. 그중 燕行錄의 研究는 評대신 답으로 끝날 公산이 가장 커서 이 全集이라도 서둘러 國內 學界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는 생각에서 出版을 決心하였다. 그 동안 枝葉的으로 接近하여 보았던 『燕行歌辭原典 研究』와 『燕行錄研究』는 校訂 중에 있으므로 早晚間 出刊 될 것이다.

燕行錄은 大略 5百餘種이 存在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내가 確認한 것은 400餘種이다. 앞으로 繼續하여 追跡調査를 해볼 計劃이다. 그중 380餘種을 모으는데 걸린 時間과 努力, 經濟的인 負擔과 발품의 苦痛은 後日譚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몇년 전에 民族文化推進黨에 韓國文集의 影印本 出版을 提案한 일이 있다. 그때 國庫로 影印本을 出版한다고 하여 學界에 否定的인 見解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作業이 韓國 人文學界에 얼마나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가 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燕行錄全集』도 이번 出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障壁들이 隨時로 이 일의 推進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성균관대학에서 출간한 『燕行錄選集』 두 권과 民族文化推進黨에서 翻譯 出刊한 『國譯 燕行錄選集』 몇 권이 많은 慰勞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中國과 日本에서 이 全集의 出版이 궁금하여 일부러 찾아와 激勵하여 준 學者들과 國內의 뜻 있는 學者 몇 분의 激勵가 큰 慰勞가 되었다. 특히 韓國의 高柄翊 교수, 李佑成 教授의 指導助言과 黃元九 교수, 朴泰根 教授의 激勵가 많은 힘이 되었다. 中國 北京大學의 樂黛雲 教授, 浙江大學의 金健人 教授, 日本 京都大學의 夫馬進 教授의 激勵도 큰 힘이 되었다. 나와 이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出版하는 『燕行錄全集』이 15世紀부터 20世紀까지 東亞細亞의 一級史料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었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政治·經濟·外交·學術·文化에 관한 가장 自由로운 記錄이며 가장 彪大한 記錄遺産이다. 그리고 燕行錄의 擔當階層은 東亞細亞를 이끌어간 最上層部에 속하는 特殊集團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뿐 아니라 世界에 하나밖에 없는 特殊한 類型的인 記錄遺産이다.

이 책이 東國大學校 出版部에서 나오게 된 데는 特別한 因緣이 있다. 1999年 가을 中國 北京大學에서 文學·史學·哲學 分野 韓·中 學術 세미나가 있었다.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께서 첫날 主題發表를 하고 이어서

이틀간 두 나라學者들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宋總長께서는 異例的으로 다른 日程을 뒤로 돌리고 開會式에서부터 閉會式 때까지 이 세미나에 參與하였다. 그 때 내 發表는 19世紀 燕行錄에 關한 것이었다. 發表가 끝나자 中國側의 여러 學者들이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中國 여러 地域의 몇 大學에서 燕行錄에 關心을 가진 研究者들이 資料 때문에 여러 번 韓國訪問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東國大學校의 어느 教授가 『燕行錄全集』을 編纂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出刊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지는 質問이 쏟아져 나왔다. 質疑應答을 통해서 確한 出版事情을 들은 宋總長께서 韓國과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해서 東國大學校가 『燕行錄全集』 出版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하여 보겠다는 趣旨의 말씀을 하였다. 그 다음날 宋總長께서 歸國할 때 金浦空港에 迎接 나온 東國大學校 關係者들에게 곧바로 『燕行錄全集』 出版檢討를 指示함으로써 여러 차례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 이번 出刊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全五十卷의 全集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옛날 複寫하여 編輯해 두었던 資料들이 狀態가 좋지 않고 編輯 또한 問題가 있어서 再作業을 하는 한편 資料를 補完하다 보니 全五十卷으로 消化할 分量을 훨씬 超過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 編輯이 한 쪽 한 면으로 된 것이어서 한 쪽을 네 면으로 編輯하여 全五十卷으로 줄일 形便도 못 되었다. 一次 複寫한 原稿를 確認節次를 거친 다음에 다시 크기를 一定하게 複寫하고, 그것을 여러 臺紙에 붙여서 쪽 차레를 確認하고, 燕行時期를 찾아 그것을 燕行의 時期別로 整理·配列하고, 燕行錄 作者의 出生年代를 찾아 그것을 다시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配列하여 全一百卷으로 分冊한 뒤 卷別로 쪽을 매겨서 印刷所에 넘기는, 아주 지루한 作業을 하였다. 이름 잡아 총 7萬餘張을 複寫하였으므로 重複된 資料를 골라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編輯期間이 1年 3個月이나 걸렸으며 編輯 마무리 段階의 몇 달간은 編輯空間이 좁아서 講義室 크기의 房을 別途로 마련하여 編輯作業을 進行하였다. 이 全集의 차례를 처음에는 燕行年代順으로 配列하려고 모든 燕行錄의 作者와 燕行年代를 確認하였다. 그렇게 配列을 하여 살펴본 結果한 作者가 여러 차례 燕行을 한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作品들이 여러 곳으로 散漫하게 흩어지는 問題가 發生하였다. 이 問題를 克服하려고 한 것이 이 全集에서 택한 燕行錄 作者가 태어난 時代順 配列方法이다.

이 『燕行錄全集』은 單純하지 않은 編纂作業을 한 사람이 單獨으로 遂行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특히 많았으며 이로 인한 得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資料가 하나밖에 없는 行草書로 된 筆寫本 古書이거나 이런저런 資料들 속에 깊숙이 끼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모은 것들이어서 冊體制의 均齊性이나 印刷의 鮮明性에 多少 滿足치 못한 部分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흠어져 가려지고, 해져 消滅되어 가는 東亞細亞의 貴重한 文獻資料 燕行錄을 이렇게 한곳에 모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떠한 作業도 圓滿하게 遂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全集 刊行의 가장 큰 意味이다. 이제 이 全集으로 現代活字화가 可能하고 翻譯과 註釋 作業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번에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作品들은 續集으로 補完하여 마무리 할 豫定이다. 續集의 마무리 段階에서 解題集을 別冊으로 出版할 豫定이다.

이 全集을 펴내는 과정에 많은 方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님의 東亞細亞 學界를 위한 出版決斷에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貴重한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명지학원 兪榮九 理事長님, 연세대 黃元九 名譽教授님, 창영성씨 이헌공과 成長慶 宗會長님, 동국대학교 鄭用吉 企劃人事處長님, 尹鐘燮 辯護士님과 일일이 舉名하지 못하는 많은 方들과 여러 關係機關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일년 넘게 編輯室에서 默言으로 苦痛을 같이한 方지인 쇄주식회사 金章燮 전무님의 勞苦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感謝에 앞서 그 분께 먼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東國大學校 出版部 家族들도 어려운 일을 맡아서 進行하느라고 勞苦가 많았다. 이 모든 方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린다.

2001년 7월 20일

東峰涼月之室에서

林基中 謹

○ 이全集의 이름에 쓰인 燕行錄이라는 表現은 朝天錄類、燕行錄類、瀋陽日記類、漂海錄類를 모두 總括하는 用語로 쓴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錄은 寫本과 刊本、單行本과 文集本、國內本과 國外本을 蒐集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몇 種類의 燕行錄은 研究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重要 異本을 같이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는 이 分野 研究에 꼭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몇 種類의 燕行路程記、燕行別章帖、燕行地圖를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詩、赴燕詩 등은 一定한 體系를 갖추고 있어서 이 分野 研究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만 選別하여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은 原典의 狀態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原典을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得已 現代活字로 바꾸어서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은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하였으며、出生年代가 未詳일 때는 燕行年代順으로 하고、둘 다 未詳일 때는 맨 뒤로 配列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를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한 까닭은 燕行錄을 作者別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全集의 別冊 目錄集에는 作者出生年度順 目錄、燕行年代順 目錄、燕行錄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作者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을 別途로 作成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配慮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國內本과 國外本은 곧 이어서 燕行錄全集 續集으로 續刊할 豫定이다.

○ 이全集의 編輯이 마무리 될 때까지 編者가 入手하지 못한 燕行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하여 續

集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아래 자료의 所藏者들께서는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懇曲하게 付託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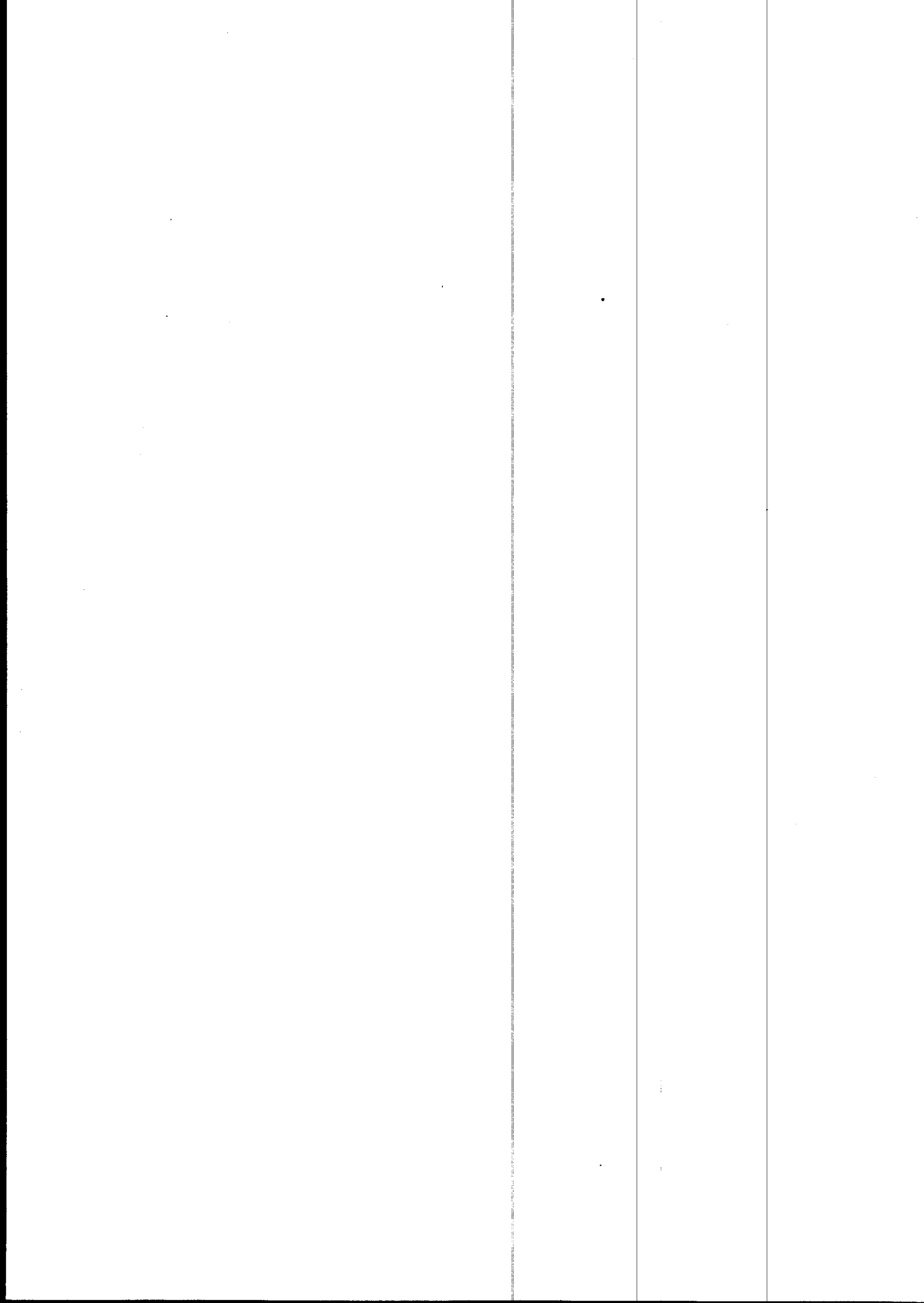
(연락처 : 02-543-5415° 02-2260-3146° FAX 02-543-5485° 02-2263-7093° e-mail: limkz@dongguk.edu)

- 갑인연행록(甲寅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10雍正12甲寅 1734
- 경오연행록(庚午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26乾隆15庚午 1750
- 경오유연일록(鏡沿遊燕日錄), 임백연(任百淵) 1802~1866), 경오유연일록(鏡沿遊燕日錄) 2册, 憲宗2道光16丙申 1836
-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미상(조선말),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1책?
- 북연기행(北燕紀行), 이노춘(李魯春) 1752~?), 북연기행(北燕紀行) 한글본, 正祖]乾隆48癸卯 1783
- 북원록(北轅錄), 이상봉(李商鳳)~?), 북원록(北轅錄) 5册?
- 북유만록(北遊漫錄), 이호민(李好敏) 1762~?), 간산북유록(簡山北遊錄), 純祖21道光26辛巳 1821
- 북행일기(北行日記), 나덕헌(羅德憲) 1573~1640), 장암집(莊巖集), 卷2, 仁祖14崇德1丙子 1636
-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최호부(崔浩溥)~?),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6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상봉록(桑蓬錄), 최호부(崔浩溥)~?), 상봉록(桑蓬錄) 2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록(隨槎錄), 한필교(韓弼敎) 1807~1878), 수사록(隨槎錄) 3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한필(隨槎閑筆), 권복인(權復仁, 純祖 때), 수사한필(隨槎閑筆) 1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슈로도천록, 미상(??), 슈로도천록 사본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남이웅(南以雄) 1575~1648),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1册, 仁祖4天啓6丙寅 1626
- 심행록(溍行錄), 윤홍금(尹弘禽) 1641~?), 심행록(溍行錄)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연사록(燕槎錄), 정원옹(鄭元容) 1783~1873), 연사록(燕槎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사수록(燕槎隨錄), 이삼연(李三隱)~?), 연사수록(燕槎隨錄) 1册(卷3~4)?

- 연사일기(燕槎日記), 정희영(鄭羲永, 哲宗 때), 연사일기(燕槎日記) 1册, 哲宗 14 同治 2 癸亥 1863
- 연사필기(燕槎筆記), 정○○(鄭○○, 朝鮮, 東亞大), 연사필기(燕槎筆記) 2册
- 연행록(燕行錄), 김노경(金魯敬, 1766-1840), 연행록(燕行錄), 16册, 純祖 22 道光 2 壬午 1822
- 연행록(燕行錄), 이정운(李鼎運, 1743-?), 연행록(燕行錄) 1册, 正祖 8 乾隆 49 甲辰 1784
- 조천록(朝天錄),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지천유고(樗軒遺稿), 世祖 5 天順 3 己卯 1459
- 연행시(燕行詩), 조석명(趙錫命, 1674-1753), 묵소집(墨沼集) 卷 1, 景宗 2 康熙 61 壬寅 1722
- 연행일기(燕行日記), 박재인(朴齊寅, 哲宗 때), 연행일기(燕行日記) 3册, 哲宗 11 咸豐 1 庚申 1860
- 연행일기(燕行日記), 미상(??), 연행일기(燕行日記) 1册, 純祖 31 道光 11 辛卯 1831
- 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孝宗 8 順治 14 丁酉 1657
- 연행잡기(燕行雜記),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연행잡기(燕行雜記) 2册, 英祖 42 乾隆 31 丙戌 1766
- 연행록, 미상(??), 연행록(燕行錄) 1册?
- 일암연기(一庵燕記), 이기지(李器之, 1690-1722), 일암연기(一庵燕記) 5册, 肅宗 46 康熙 59 庚子 1720
- 정유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卷 3, 孝宗 8 順治 14 丁酉 1657
- 조천일기(朝天日記), 최기(崔沂, 1553-1616), 조천일기(朝天日記) 1册, 宣祖 40 萬曆 35 丁未 1607
- 조천행록(朝天行錄), 황진(黃進, 1542-1606), 서담집(西潭集), 宣祖 20 萬曆 15 丁亥 1587
- 조천록(朝天錄),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죽천유고(竹泉遺稿) 1册, 仁祖 2 天啓 4 甲子 1624
- 천행록,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천행록, 坤, 1册, 仁祖 2 天啓 4 甲子 1624
- 지정연기(芝汀燕記), 원재명(元在明, 1763-1817), 지정연기(芝汀燕記) 1册, 純祖 4 嘉慶 9 甲子 1804
-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이건명(李健命, 1663-1722),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1册, 肅宗 24 康熙 37 戊寅 1698
-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추탄유집(楸灘遺集), 光海 14 天啓 2 壬戌 1622 (p. 37)

— 차례 —

• 연행일기(燕行日記)	이항억(李恒億) ? 一八六二 ?)	93 一
• 천진담초(天津談草)	김윤식(金允植) 一八三五 一九二二)	93 一 九五



蘇州府志
行鈔錄

海國星使重節良
三連優何幸
富漢家冠法古
金石之交友信為真

海國星使重節良
三連優何幸
富漢家冠法古
金石之交友信為真

今古君臣履義同
文景博覽皆稱此
惟期民服共信忠
良友相逢鐵作鋼

宋寇古制法前賢
兩心何處明月共
移象惟精出道臨
乘槎仙客祀張瀛

奇書良友最難逢
通靈和氣難會
至契清極味正濃
冰壺一片憶萍蹤

燕行日記

壬戌十月二十一日己亥終日大雨夕晴
自冀華館直抵高陽碧蹄館日已薄暮上
使宿于百中軒余之一行宿于三門外公
廨是日行四十里本倅金直善上京未還舜
瑞翼汝景善陪行偕到冠嶽李友豐九二
更令來到

二十二日庚子晴自高陽到坡州坡平館
上校高子圓覺軒余與翼汝諸族宿于軒
之西園舜瑞自高陽還歸故使孫亮場上

酬下應頻有殷懃底意是日行四十里

二十三日辛丑晴自坡州中火于長湍

湍館四十里府使李勸周方具酬接之間

可見知舊之誼也自長湍宿于松都太平

館四十里松留金炳地方在京徑歷金宇

東是日行八十里

二十四日壬寅自太平館早發與三使登

滿月臺賞覽中火于金川邑金陵館七十

里李倅李培海州宗人李重植來現自此

始有接待站上使海州副使怕書狀本宿于

平山府東陽館三十里上使府副使峪書
杖筵伴金鑑淳冊客鄭生負仲延自是
親熟以然相握穩叙阻懷完亭族人李基
來上府宗人李璣會來見款洽是日行一
百里

二十三日癸卯清夕陰雲飛自平山中火
于慈秀寶山館三十里上使呼副使惟書
杖筵于瑞興龍泉館五十里上使奉府
副使惟書狀溪自此始有守廳妓是日行
八十里奉金教惟

二十六日甲辰晴自瑞興中火于劔水鳳

陽館四十里上使化文副使連長書狀粟殿宿于

鳳山洞仙館三十里本倅金沃根海州宗

人俊會松木宗人秉憲來見文井坊趙啓

植亦來見上使郡本副使淵長書狀木松有妓稍

慰客懷是日行七十里

二十七日乙巳晴日晡時自鳳山宿于黃

州齊安館四十里兵使李元熙即忠武公

之後款接示誼本倅李象慎上使州本副使

書安書狀惟是日行四十里

二十八日兩晴三使查對仍留與冠樵請
友踏雪登月波樓太古亭竹樓燕嘉樓妓
雲仙卽今夏別使俞台致崇所晤也語到

俞台頗有多情可愛可笑

妓蔡姬頗有嬌容與之
交戲言狀李在聞入未

始與交語是夕書狀傳唱
請送蔡妓故卽為命送

二十九日丁未晴自黃州宿于中和生陽館

支站祥原三登甌山是日行五十里

十一月初一日戊申晴晚飯後發行宿于平

壤練光亭五十里支站龍崗監司尹致定
庶尹金炳愚素與上使親知之間卽來相

接款厚殷山碎基正氏委來相握慰洽可
見同宗之誼邑人祭東龍祭應默來見上
使宿于練光亭余與翼汝景先別定舍處
于練光亭畔竹香家竹香夜與四五妓偕
往于大同門板橋蔡生應默家終宵痛飲
初二日配晴是日冬至也留平壤挹灑樓
浮碧樓永明寺牧丹峯乙密塔許多名勝
雖在在雲中亦一壯觀也文章名筆無不
題願練光亭力弱難支矣去辛亥年秋九
月余自長連渡靈串津路由三和龍崗江

西到平壤留三日遊賞矣今又重采左覺
絕勝

初三日庚晴留三使齊會于鍊光亭設大

三絃招集衆妓來叅者為六十餘妓年不

過二八四五珠翠綺羅駭人心目且十數

歲童妓俱能歌舞時仕之妓數可至四百

餘之多而若值大點考則一營之內多有

不相識者云亦大壯哉樓觀也妓樂也酒

麪也甲在東海東迷魂銷金無足恠焉終日

夜深乃罷箕伯以其忌辰不為來叅自京

至平壤余曾遊覽故不為詳記

初四日晴晚發宿于順安安定館倚斗軒

上使本副成川書狀慈山風日幸宜塵埃

漲天不得遊目玩賞本倅李承敬是日行

五十里

初五日子晴飯後發行宿于肅川肅寧館

二清軒上使本副使威書狀東江望見慈母

山城城在邑北蓋是趕截處也本倅韓尚

烈是日行六十里

初六日丑發宿于安州安興館望美軒上使

本州副使和書狀西江城郭樓臺極其壯麗外

南門日安西內南門日清南俱是二層樓

也兵使權璠即都元帥璠之後也素是親

功相見歡洽是日行六十里本倅徐兢淳

初七日寅晴留又行查對副使因病未參

百祥樓在城西隅制樣穹隆眼界奕豁晴

川江一帶抱環靈擁霄壤可見寒泉城外

有七寶寺俗傳壬辰倭到晴川江無船可

渡忽有七僧褰衣移涉倭回長駭沒數滄

死僧忽不見以此建寺而感謝云立神鼓

宴請三使及余故即往遵籌軒聽妓樂獅子舞鶴舞舉火而罷

初八日

乙卯

晴午發宿于嘉山嘉平館平近

堂上使

本郡

副使永書狀嶺乘般渡晴川江

行三十里暫歇于博川津頭店舟揖商賈

閭里店舍亦大都會也自邑三十五里許

有納清亭丙子清主路由此地云詳聞鄭

蓋卒未年立殫事不勝曠感是日行五十

里

初九日

丙辰

晴宿于定州新安館本倅徐容

淳容上使州本副使順書狀德是日行六十里

初十日晴中火于郭山雲興館三十里

上使郡本副使山雲宿于宣川林畔館洗劍亭

四十里三站寧遠是日行七十里本倅李

種佑

十一日晴留主倅申泰善即風流郎大

張妓樂真中嚴可觀者項莊舞也妓輩之

綽娟不下於箕城而禪塔之宏麗乞掠之

神批與安州為伯仲之間也

十二日己未晴中火于鐵山車輦館四十五

里邑站价川宿于龍川良策館三十里站

恭川博川是日行七十五里

十三日庚申晴中火于義州所乘義州館

十里義州妓十數妓花艷蘭姪瓊娥紅蓮

挑紅等支站出待宿于義州龍濟館來宿

關三十里邑站龜城朔州府尹沈履澤是

日行七十里自京至義州一千五百里

十四日辛酉晴至十八日壬戌晴仍留

十九日癸亥晴三使會于來宣閣觀倡夫棚戲

十二月初一日丁丑留柵中之寺觀屋里極其精麗軒敞制度宏濶有可觀者多矣鳳凰山在柵之東北縹緲秀麗有畫中景焉呂惟明者廣東省登州人留柵行貨亦已多年稍解文字與之筆談便為情熟

初二日丙寅晴大風劇寒翼汝景善與儵人

遷基彥乘車往鳳凰城日暮還柵

初三日丁卯晴早朝翼汝景善告歸異域作

別不覺張流付家書夏衣服與一行各乘

太平車自柵外難發五里安市城外有舊城

池即唐太宗時薛仁貴所據處也二里榛

坪평四里鳳池지三里舊柵門창十二里

鳳凰山산四里鳳凰城성城堞雖小

廬里之華麗寺觀之奇巧駭人所見六里

三义河하四里二臺子대中火十里乾

子浦부餘温子介三台子一里四臺子대

北里白顔洞동元時伯顔駐軍處十里麻

姑巖마十里雪裡站역薛劉站鎮東堡五

里斗巖子리小長巖五里三峽河하瓮北

河源出汾水巖五里長巖子리大長巖八

二十日卯晴

二十一日辰晴與冠樵諸益登聚勝堂士

辰倭難宣廟駐蹕處也名賢懸楣光輝

左右而換叔主菴亦為題額

二十二日巳晴登統軍亭望金石山亭是

菴庵公重修也而地是最高森列萬峰浮

在眼前山是彼界崎嶇危石撐出半天

二十三日庚晴至二十六日癸晴留八灣

以後日與蘭姬花艷諸妓或歌或舞以為

消遣之法是日即渡江之日也副使與首

譯以行中之未及治裝屢度往于上使首
譯亦為面稟不得已還收軍令以二十八
日更為出令

二十七日甲晴

二十八日乙晴渡鴨綠水設軍幕于江

邊主倅設酌餞送三使鴨江一名馬訾水

六里許有小西江坐又行四里即中江

將松方陂浦斗五里渡三江州愛河與

鴨江異源也九里許有九連城鎮江

府即高句麗國內城舊露宿處二里恒頭

河子하천四里九連城站灣府支應出待
于此八里望隅우측柵帶隅四里蝦蟆塘갈매탕
者音卜二里碑石隅시비有碑沒字三里松
隅우측一里馬轉板마돌沙窩子五里石隅돌
七里金石山금석산康世爵舊隄處山勢參天
險峻三里中衙門중안문質光峴瘦石嶺五里
溫井坪온정평湯子池有溫井今露宿處也構
木成屋三使各處設幕一行留宿下隸하급
掘坑鑿火而處之大抵溫井坪在險山之
中小開野結竒局若在吾東似為好基址

也間有吾東人結草幕賣飯者有三處而
使行時有之云是日行六十里

二十九日丙子雪早飯直發冒雪行五里乾

浦平山七里細浦平山二里柳田平山九里陽山

城平山明時所築三里葱秀站平山舊露宿處

也山勢地形與平山葱秀恰相似焉一里

魚龍堆平山知他平山四里車踰獐項平山沙坪

十里王八石平山孔巖三里上龍山平山十里

柵門平山架子門遷門是日行六十里自

義州至柵門一百二十里

里劉家河리자二里黃家庄황지自長嶺子日

暮二更黃家庄每車懸燈照輝十數里亦

一大觀也 有吟是日行九十五里

初四日辰晴夕雪平明治發五里金家河

리자八渡河曲十里金鷄河리자林家臺五里

范家庄范지五里二道方身范지十里通遠堡

五古鎮夾堡中火十三里和尚庄和尚十里

草河口橋草口二里草河口站草口杏洞草口十里

里分水嶺分水六里高家嶺高家外四里劉

家嶺劉家五里燕山開劉家鴉鶻開山梨紅

有捷徑達山海關雪花果大如盤是日行

六十五里

初五日巳晴平明發行二十里會寧嶺十里

大高嶺摩雲嶺十七里甜水河三里甜

水站千水站由虎狼谷至狼子山透路二

十里中六十里青石嶺十里自會寧嶺至

青石嶺即天儉之地路傍有開帝廟籤抽

極靈嘉慶壬戌僧徒募椽開兩嶺徑車路

由虎狼谷五里小石嶺十里十五里娘子山

十里有鷄鳴寺庚寅鄭相築圃琢被膚園

住處石鷄在娘子山世稱唐太宗征高麗
時兵敗到此失道忽聞鷄聲尋到一小屋
有一女子出迎具飯進之倦睡覺視之乃
空山無人處但見一塊石狀如鷄子帝異
之命建祠護之名其山曰娘子自濟府例
送乘轎軍十二名嶺路險峻處間輿行
三使至于此站不敢更進前路例為還歸
付家書是日行七十里大抵中國里數非如我東之里
數彼之五里云者即我東十里之遠者間有之云矣

初六日庚午晴早發八里馬蹄嶺即摩天嶺

駐蹕嶺西有唐太宗駐蹕山唐宗在此地

迎晷一佳人云八里通官站통관소頭官站通

家庄四里三流河하산리湯河十里王祥嶺왕상리

四里石門嶺시문리嶺在娘子山西三十里許

遠左之山盡於此始八大野鴨綠西北諸

山皆自長白山夾水而西薄遼海乃止嶺

以西即遼東路始豁平六里王寶臺왕보대有

冷井每使行過時涸，湧出去便立涸云

中火十里高麗叢고려산리有省五里阿彌庄

수舊遼陽路自此站北向去五里木廠목장

白塔木匠九里太子河하리行水燕太子
丹山走歲千石山西七十里一里迎水寺
司永壽寺南北有新舊遼東又有寡婦
城自柵至此補東八站大抵來經義州至
此迎水衆山亂竝列橫亘卽天險之地
也午後直往新遼東都邑之富城郭之繁
廛里之奇巧物貨之積峙非我京松箕之
所能彷彿城南有開帝廟樓觀與塑像非
獨壯觀雖在皇城亦無此上云城西北有
塔縹緗高為七十仞白色八面十三層俗

傳尉遲敬德一夜所筭云是日行七十里

初七日辛未晴平明發行十二里接官廳舍

有烟墩六里防虛所舍杵秋五里三道

巴外舊無橋嘉慶始筭石橋五里爛泥

堡王掌櫃子長發鑑願余筆帖故各書

數十幅以給中火六里萬寶橋外烟臺河

四里烟臺河堡五里山腰堡外五里五

里臺外七里十里河堡有開廟、前有

明開夜合樹云是日行五十里

初八日甲晴平明發行五里板橋堡外

五里長城站전참심路傍有乾隆拆碑四里
 古家庄고자부古家子고자六里沙河堡고지計六
 里暴咬哇子고포鮑家洼子고포四里魏匠舖
부二里火燒橋고포八里白塔舖고포
 逢工部郎中富滿筆話以明春二月相逢
 于皇城宣武門外為約而別中火五里一
 所臺고포五里紅河舖고포混河堡一里
 潭河고포小遼水耶里江源出長白山潭河
 一名河利江一名小遼水源出長白山合
 沙河繞出盛京東南與太子河會又西流

合遼河為三义河八海自此向西北行九
里瀋陽州盛京奉天府漢樂浪郡挹樓圍
朝鮮館文昌閣土城外一里許有廣慈寺
四牌樓葡萄酒竹葉香梨花白茶屬皮物

乾餅西門外五里許有順治乾隆兩陵登
文昌閣始與副使朴永輔語有詩贈城堞
之壯寺觀之宏屋里之盛人物之繁庶見

上國規模十倍遼陽自柵至瀋四百五十

四里是日行六十里

三使入瀋時去渡輪乘車而入此是
例也

初九日酉晴以車夫之未及采晚發至五

里願堂寺신원당寺是太宗願堂也三使與
 一行玩賞尚留仍即八寺寺中路略看過
 寺傍有行宮寶勝寺嘛哈噶喇寺北十里
 許有廣陵七里塔院원터五里方士村촌
 五里壯元橋초八里安永橋초等路
 始此大石橋欄干石橋五里復家子초
 十里大方身신胡人作詩請扇子與冠
 樵招胡人筆談其姓劉自補漢太祖後又
 得沉菁一甌以助饑其味別無新奇而但
 鹹味差勝中火五里磨刀橋초十里白

邊城或稱老邊城 칭노변 十二里農店或新

隆店或新隆店 전신릉 十三里孤家子 고자

是日行八十五里

初十日 갑 晴平明發十里周流河 허유 有

城城亦堅徼周迴可為十里但民居不甚

稠密且無官守五里巨流河堡 허유 二里

西店子或沙店子 사전 三里五道河 오도

七里四方臺 사방 四里郭宅屯 구택 四里

新民屯 신민 廬里之華麗富盛大勝於鳳

凰城路上有無數車輛而車上以蘆箬環

成轎子樣轎中或有五六人或七八人
問其由則方抄吉林兵幾千往戍山西云
大抵中國之法募兵若我東之雇軍皆給
價募出遣車馱來云中火四里小黃旗堡
산화치八里大黃旗堡치화烟霧中望見醫
巫閭山蓋此山在廣寧卽周禮幽州之鎮
也橫亘數千里云八里柳河溝或蘆河溝
구리溝橋有御題碑閣記治道亭蹟十五
里石獅子구리十里營房或古城子구리五
里白旗堡구리是日行八十五里

十一日^{乙亥}晴平明發十二里小白旗堡^{坐所 北五}

十三里一板門或半板門^{門外 斗}八里靠山

北^{北 斗}三家庄王八蓋子十二里二道井

子^{北 斗}中火八里神隱寺或寂隱寺^{坐所 北}

二十二里古家子^{斗 斗}或胡家窩棚等路

止二里土井子^{斗 斗}八里十里扛子^{斗 斗}

五里烟臺^{斗 斗}烟臺始此而臺樣以磚石等

之或圓或方高可為四五丈環可為三四

十步臺傍設五位神壇臺上起小樓，有

門臺樓上舉火以應皇都之烽五里小黑

山^{산소}間里富盛有若鎮防焉夜^夜詩學堂

與劉玲筆談問皇城洋人之事則答尚此

猖獗云矣長耳所產處也是日行一百里

十二日^{子丙}晴平明發十二里羊腸河^하

十八里中安堡^성由舊廣寧往北鎮廟

則路由此云中火五里于家堡或穆家^{마을}

三里朝陽鋪^부三里八望臺^대三里田店里

北十里許寧縣城內有李成樑碑樓六

里二臺子^소三里穰子店^다或古家

子五里太古家子^다五里焦家店^찬

或新店五里廣寧店단광이北三十里許有
舊廣寧城北鎮廟、西北十里許有桃花
洞是日行六十八里

十三日丁晴平明發五里興隆店단흥릉五

里獲河堡모상허五里北鎮堡모상진有城子

五里常興店단창흥八里二臺子十二里間

陽驛이리양無樑屋始此古閩干有四蹄數

自驛北路而來詳細看之則蹄是兩路而

尾如牛頭無獲角而面似羊毛不卷曲而

背有二峰如馬鞍形仰首如鵝開目如盲

是謂橐駝中火十里二臺子二十里五臺
子間有三四臺子五里望山堡五臺山或王
山堡路北一里許有始望海十里石山站
坐坐此站距義州為十餘里皇城為十餘
里是為半程十三山此山在錦州府東峰
為十三蔡珪詩閭山盡處十三山溪曲人
家盡幅間花草石自此去錦州為半日程
而物貨都會處寶褥無大小皆出於此云
是日行八十里
十四日黃晴早明發四里三臺子八里壳

老婆店或二臺子十三里大陵河水 堅直渡五里大陵河堡或洶河古戰場平原曠野天慘地愁往々尚有殺氣云十二里四同碑明 明將王平父子教文之碑 娘々廟六臂神將碑閣荒涼令人感歎路傍有穹隆碑四笏而制度相同故名曰四同其一萬曆十五年八月二十九日勅以王盛宗為遼東前屯游擊將軍上印廣運之寶文碑中膚首二字皆琢去其二萬曆十五年十一月四日勅以王盛宗為遼東都

指揮體統行事修全州地方其三萬曆二十
 十年九月三日勅以王平為遼東游擊將
 軍上印勅命之寶其四萬曆二十二年十
 月十日勅以王平為游擊將錦州統轄上
 印廣運之寶王平似是盛宗之子侄也八
 里獲陽店현中火五里小陵河堡현
 距叅古境五十里三里小陵河橋一里西
 店子현或手水營十四里松山堡현
 叅古出沒處十三里官馬山현有官之
 馬塚五里杏山堡현大小陵河松杏兩

倭相距不過五六十里之間自古為戰場
龍爭虎鬪之地而明兵十萬三魚肉之場
腥氣陰靄尚此晦冥撫想往事不覺喪氣
我東星川人李士龍在祖大壽幕中亦死

於松山之戰有詩記憶是日行九十里

十五日己卯晴早發八里十里河州州十里

高橋堡堡二里朱家店店五里紅旗

營營五里塔山所所天晴日朗可見鳴呼

島五里朱沙河河二里罩羅上店店

有三義廟西北一里許有罩羅山十一里

燕山驛이대시間有二臺中火五里烟臺河
하연리或五里河五里長春橋창성有老和
 尚塔四里乾柴嶺간산或乾草嶺間有獲
 樹堡포왕獲石嶺八里東八里堡리二
 里東頭臺望鷄鳴山、頂有嘔血臺路傍
 有十數丈高峰名嘔血臺世傳太宗登此
 峰瞰寧遠城中為明巡撫袁宗煥所敗嘔
 血疽故仍以名之一里永寧寺성有溫
 井始見盤松五里寧遠衛현城堞宏麗
 人家稠密城中有祖春壽牌樓大壽即承

訓之子也明神宗皇帝嘉祖氏三代之切
而作此樓而旌褒之壯哉此樓之作也大
街上對立祖家牌樓兩樓之間俱為數百
步而樓皆三門每柱前坐數丈石獅子其
祖大樂牌前其一祖大壽牌樓高可六七
丈而大壽樓高小異皆以白石雕之瑩澤
如玉層層架起榱桷椽瓦簷牕楹不用
材木大樂樓以五色文石架起締起之力
鏤刻之工實非人力所可為也大樂樓列
書三代誥誓會祖祖鎮祖祖仁父祖承教

前面書元勳加錫後面書登壇峻烈最上
層書玉音刻柱聯曰松楸如初慶善培于
四世琳瓊有赫貢永譽于千秋後由柱聯
曰桓桓興歎國倚干城之重絲綸錫罷朝
隆銘鼎之慶大壽樓又列書四代詰贈曾
祖及祖與大樂同父承訓上層書廓清之
烈下層書四世元戎其前後柱聯及所鏤
禽獸兵馬闔敷之狀皆陽刻其在縣以日
昏不得記承訓即我東萬曆壬辰被倭寇
時我先祖漢陰卓騎赴訢承訓以遠東國

搃兵領三千騎最先赴援者也大壽蒙恩
寵如之彼隆而見袁崇煥被清之反間而
竟連磔死且大陵河被圍而糧盡仍舉城
降今其牌樓崢嶸而隴西之家聲墜矣為
後人之嗤罵誠可惜哉此牌前蓋為天下
之第一壯觀而清帝欲移置燕京而不得
焉云矣有吟記述焉是日行七十九里
十六日辰庚晴平明發六里墩臺有觀
日出處副使書狀先往觀之而大霧橫塞
不得觀焉六里曹家庄在六里七里坡

外외 七里五里橋칠우리 五里中後所중후소

或沙河所하有城所產鹽甄中火乾溝臺간구

五里烟臺河하 五里半拉店반나 二里

望河店망하 五里曲尺河구척하 七里三里

橋교 有閭里見若干松五里二臺子有

廢烟臺觀日出十里六渡河橋하 間有

三臺子三里中後所중후소 壯麗繁華不下

在新民屯有城池有官守焉開廟壯麗極

靈云所產毡帽馳毡是日行七十八里

十七日晴平明發十八里沙河站사하

間有一二三四臺子四里獲墩臺한四

里板橋한四里葉家墳한二里口魚河

比한武娥爾城三里口魚河橋한七

里亮水河한四里滿井舖한中火四

里前屯衛한有官守城子五里王家臺

四里濟溝한五里頭封河한五

里高嶺驛한八里大松嶺溝한間有

小松嶺溝七里中前所한有官守城子

是日行八十七里

十八日한晴早發七里大石橋한三里

兩水湖호수五里老軍屯군부或老鷄屯
二里王家庄왕가十里八里堡마리中火
是日即余之生辰也冠樵與行中一負偕
往于飲食舖請余同飲雞豚鴨蒸各種果
及酒餅連進醉飽亦一奇會也其價為我
東錢二兩七錢我東以錢十文為一錢以
十錢為一兩以百六十分為一兩，即鈔
也而十六文為一，百東一里許有貞女廟
世傳秦築長城役徒有范郎者死於役其
妻許氏益姜久別不知其死親自來尋則

夫已死葬在海島許哭夫於坵上遂死不
還山海關主事張棟立祠於坵張時顯撰
碑余與冠樵步往觀焉上副書狀因間先
往觀之回路相逢蓋見貞女塑像面帶千
紅愁萬碧恨廟後有望夫石趺痕尚存焉
有詩吟五里四方城上有有將臺城在山
海關東北三里許不見萬里長城不識中國
之大不見山海關不識中國之制度不見
四方坵不識將帥之威尊矣未及關三里
許有一座方城高十數丈周數百步一面

皆七牒：下為圭竇可藏數十人圭竇共
二十四城之下體又穿圭竇以藏兵器下
為隧道以通長城之內等石作層梯攀梯
而步上上層上有元戎堦立而望四方可
見數百里之地亦可覘賊勢之虛實無聲
之遠近此正為開之屏翰世傳袁崇煥一
夜所籌云長城北走滄溟南靈巫間東臨
大野西瞰關裏周覽之雄無如此堦萬戶
街市樓台如觀掌紋有詩吟一里二里店
過堦二里山海關此古燕之榆關自遼

陽至此為十七站自瀋陽至此開為七門
八十七里大抵瀋陽城周數十里甃等八
門樓皆三簷護以甕城，，左右有東西
對門通衢等垣為三簷高樓，，下出十字
街較擊肩磨熱鬧如海市廛夾道彩閣雕
廳金扁碧樓貨寶財賄充物其中稱盛京
奉天府尹治民奉天將軍副都統管轄八
旗又有承德知縣設齊部佐貳衙門對門
有照牆門前皆以黑漆木叉立為欄府前
立一座大碑樓以琉璃瓦覆之前殿為曰

崇政又有扁正大光明殿左曰飛龍閣殿
後有簷高樓曰鳳凰樓有左右翔門。內
有甲軍數十人欄路遂於門外遙望層樓
覆殿疊榭迴廊皆覆以五色琉璃瓦兩簷
酒肆則朱欄翠戶粉壁西棟層架上列盃
一椀鑰鑰文樽紅紙寫著酒名不可勝記
矣今此山海關則其規模設施非瀋陽之
比也明洪武七年大將徐達移榆關於此
築五重城名之曰山海關太行山北走爲
醫巫閭山至關而大斷爲平地前臨遼野

右挾滄海城從巫閭逶迤而下至角山寺
峰巒皆有墩台八平地而置開綠城開行
十五里南八鎔鐵為社而城焉上置三簷
大樓四望海亭皆徐所筭也初開為甕城
而無樓甕城穿南北東為門鐵開扉虹楣
刻威鎮華夷第二開為四層敞樓虹楣刻
山海關第三開為三簷樓立扁曰天下第
一關三使皆去蓋文武成班如八藩陽時
稅官及守備坐開內翼廊點閱人馬照準
鳳城清單大元中國商旅亦皆符錄姓名

居住物貨名數諸奸防偽極為嚴肅十字街為城四隅為虹門上有三層樓扁曰祥鸞搏素帥府門外坐石獅二高各數丈闔舍市井勝於盛京車馬最盛士女尤美繁華富麗沿路莫比蓋此為天下雄關，以西漸近皇都故也自鳳城十里之間曰佳日也曰所曰驛不可勝記而今較諸長城其設施建置皆效法於此關不過是兒孫也第三關門樓上由城傍列埋大大炮七座矣八三層門向南行十餘里有澄海樓

望海亭之邊城之屹處有碑即乾隆時
 所豎而御筆書刻天開海嶽四字大詩吟
 登亭望海中有一坏土兀起不類問之則
 此蓋姜女塚云三使坐望海亭畔設小酌
 余先即乘車直北行十五里紅花店홍화전
 間有深河洲五里臺夕曛三使齊到墩臺
 始此是日行四十里

十九日癸晴早發二里藥泉嶺약수령六里
 二十里계천到十里范家庄관문리范文正
 公舊居有義庄舊墟范公之後孫尚居云

而此是臨榆縣界其真范公之舊居耶未
 詳三里陽河堰舖안양리七里浪河안양리或大
 理營二里王家嶺안양리三里鳳凰店안양리
 有城堞宏麗中火八里高臺嶺안양리二
 里網子店안양리或王家店十里榆關안양리有
 木廠如我東之長木廬間有馬棚山안양리
 石子河안양리十二里吳家嶺안양리間有宋
 家庄안양리白石堡안양리八里撫寧縣안양리
 有城堞文筆峰在西南韓昌黎舊居遺孫
 尚在又韓文公先墓在其下云山川秀麗

田野洞闢士大夫可居之地西行二千五百餘里以余眼孔初見此明朗可占之地也是日行九十里三

二十日甲晴早發十里十里臺堡間有亭

河^{하강}五里堡或小李家店^{리우}盧家店^{리우}五

里蘆峰口^{리우}六里茶棚庵^{리우}三里飲馬

河^{하강}十一里雙望堡間有背陰堡^{리우}

中火十里部落嶺^{리우}間有吳櫛子店^{리우}

腰站^{리우}五里十八里堡古蘆龍塞去壬辰

倭亂我先祖漢陰相公單騎西訴上國之

時與白沙李相國臨別語白沙曰兵若不
出索我於盧龍余今過此地不勝感悵作
詩寫懷予五里驢子槽註三或發驢槽間
有白沙河三里漏澤園註四二里永平府
音引舊盧龍縣界有城地宏壯門樓大書
古右北平城南十里許有李廣射虎石且
有姜太公武廟云而並不得往觀雖錄忙
永果心常如矢焉疑石在永平府陽山有
有拆碑橫卧即宋范志完草書飛將軍三
字是日行九十里

二十一日晴晴早發十六范家店范家間有

青龍河河或大河南邱店邱店灤河灤河

四里望夫臺望夫臺八里安河店灤河之上

有小阜曰首陽山山之北有小郭曰孤竹

城門之題曰賢人舊里門之右碑曰孝

子忠臣左碑曰至今補聖廟門有碑曰天

地綱常門之南有碑曰古今師表門上有

扁曰古逸民門內有三碑庭中有二碑塔

上左右有明碑皆明清御題也庭有古松

數十株繚塔白石欄中有大殿曰古賢人

殿、中袞冕正主而立者伯夷叔齊也殿
門題曰古世之師殿內大書萬世標準者
康熙筆也又曰倫常師範者雍正筆也殿
中寶號多萬曆時物也柱聯曰求仁得仁
萬古清風孤竹園以暴易暴千秋高節首
陽山中庭有兩門東曰庶頑西曰立懦有
兩小門左曰與薦右曰齊明出其門有堂
曰揖遜有碑乃成化中所達也碑後有台
曰清風有西門一曰高蹈風塵一曰大觀
寰宇台上閣曰在水之湄柱聯曰山如

仁者靜風似聖之清又曰佳水佳山孤國
難兄難弟古賢人有兩門一曰百代山斗
一曰萬古雲霄皇明憲宗純皇帝贈伯夷
昭義清惠公叔齊曰崇讓仁惠公灤河之
南崖削壁斗起其上有清風樓、下河水
益清河中有小流、中疊石如屏、前有
孤竹君之祠水明沙白野闊林遠臨河數
十戶皆影射湖中廟狎清聖祠兄弟塑像
儼然併立令人起敬祠之南門樓有兩楹
左清節祠右名賢里廟之東有行宮、之

北有梅花櫻竹葉亭皆以沉香雕刻梅竹
樣以為欄以為戶極其奇巧但年久廢已
却多有破落朽傷猶不得重修推可見中
國之經用難辨矣廟後樓之畔亭之右有
江之之崖皆是石壁杉松檜柳掩映左右
漁艇往來山水明朗景物清雅以余所見
自柵至皇都是為第一名區也有吟自乾
糧廳薇蕒和麵各進一咒十二里野鷄屯
所產鹿麇素筐間有赤紅舖劉音中火八
里沙河屯遷安縣界八里張家庄劉音或

夷庄環三十里皆是梨木四里沙河驛所
產黃膏藥是日行六十里

二十二日丙戌晴平明發十五里七家嶺有

養漢的村間有紅廟且喜或三官廟馬鋪營

十里乾章河社社間有新店子此處即薊

門烟樹也在車上望之烟是樹也樹是烟

也聚散變化萬千其狀正知夏禹塗山臺

萬國槍竿在崖邊亦可謂模詠其真境也

霞光澹蕩橫抹野樹忽化作千萬奇峰扶

輦磅礪龍盤鳳舞迤邐千里且遠村樹木

間透光如積水空明非烟非霧不高不低
常護樹根洞澈如立水中而其氣漸黃橫
挾遠際洲白似玄如大琉璃五色之外別
有一種光氣江光湖色崆峒遠映村舍草
馬倒影寫照縷風點氛微作奇怪此可謂
沒捉之一大奇觀也有吟十四里扛牛橋
或江東橋間有王家新平張泉三店一里
道花池浬斗斗九里青龍橋浬斗斗一里榛子
店有桂文蘭詩題壁今已八刻云有吟中
火十里烟墩始浬灤州界五里許山之翠

微有無數乱石奇之恠之形状没提世傳

秦等長城駕滄海之時駁石到此城役已

訖駁來之石曰為散置云七里白草窪보리울

八里牛欄山산부리間有鐵坎城안대울二十

里五里坊間有小鈴河或松嶺河板橋銀

城堡안인울五里豐潤縣현부은有城池城堞

樓榭極其華麗亦一大都會處也而產扇

于是日行一百里

二十三日경丁晴早發八里還香河현보或漁

河橋在豐潤玉田之間水皆東流而獨此河

西流宋徽宗過此河駐馬回顧悽然曰過
此漸近大漠矣吾安得似此水還鄉乎或
曰石火主所命之名而人至今呼之石小
主者似是石晉火主直貴亦為契丹所虜
嘗過也間有趙家庄七里高麗店此有高
麗水田間有魯家庄二十五里沙流河此
間有沙子河軟雞舖此三家舖新坊茶
棚庵李家庄中火三十五里龍池菴間有
兩水橋兩家店里五玉田此城濠宏
壯亦多可觀所產青萊葱子即古孝子陽

伯禮玉之地也古稱幽州無終國君伯所
封也燕昭王墓在無終山縣有李姓人世
為朝鮮上价宿所主人富為巨萬今亦為
主人是日行八十里

二十四日天晴早發十五里黃家店或五

里比庄間有西八里堡五里彩亭橋劉劉

十里大枯樹店斗斗路北山腰有不生不

死樹一里小枯樹店坐斗四里蜂山店斗斗

南有寡婦城三里螺山店玉田縣界有宋

家庄斗斗明末籌塢自保清兵屢攻不下

明山乃降清太祖怒罰貢歲銀萬兩康熙
嘉其節蠲貢旋里云七里梯子山州三五
里鯨山店州間路出邦均云自彩亭橋
歷大小枯樹至鯨山里十餘里之間多有
景致而別無顯記者恍惚沒投不得滋等
吳中火十里現渠州三里三家庄或小橋
坊四里雲田寺州三十五里邦均店州
屢里富盛人物繁華薊卅界不由薊卅舊
路從間路抵此店是日行一百里
二十五日州晴曉發十二里白澗店州

有厄姑菴五里公樂店古出三里段家嶺

養漢的多居焉十里石碑鋪到川五里濬

沱河注或錯河橋世傳漢馮異進麥飯

于光武皇帝又傳王霸說報水堅可渡處

云五里三河縣注有城池官守古臨駒

縣六里棘林庄注自邦均曉發抵此庄

四十六里朝日始昇蓋是日將止宿于通

州故早發促行也中大六里白浮園注早

六里新店注六里皇新店注六里夏店

注六里柳河屯注六里馬鋪起注八

里燕郊堡_五年_五 四十里之間駁車如矢
流眄不暇秣馬三里方家庄_五 或師言
庄五里滕家庄_五 四里胡家庄_五 二
里習家庄_五 二里白河洲大江即通州
江一里通州城自燕郊先行是日夕陽到
通州城堞樓臺寺塔與盛京相上下焉悅
惚壯麗窳不可形言撮其大槩而言之江
南船之貌樣長可為六七十武廣可為數
十步纒上之層楹疊榭繡戶紋窓與平地
起必無差焉而鷄鳴犬吠宛在水中與劉

安之雲中鷄犬略相彷彿數十丈層板橫
掛于船頭以為梯攀梯而上船蒿師即南
邊之人也列立船上揖拜歡迎一鐘茶一
盃酒次第勸進仍又筆談本以江南之人
三十餘年前來泊于此仍居殖利妻子兒
弟俱在船中生涯只此一般生子生女娶
之嫁之不必還歸江南此蓋江南之俗積
年未歸不以為恆其餘天津橋船與江南
船小同大異迷津船艦橫亘十數里其江
岸繁華之狀不可詳記城門扁曰神京在

輔前有水名曰會通河自元漕運于此以
備百官須祿城西有白塔高十四層塔頂
置銅鼓三每層簷椽縣鐸大如汲桶風動
鐸鳴聲滿一城複道重閣金碧璀璨夜市
即此州之遺俗也琉璃燈之大者如一間
草屋小者如數層梅閣羊脂燭之大如椽
小如砧者或八柄六柄四柄押于各燈縣
之列肆照輝與白晝同吳商楚賈輻縻于
此互相賣買竟夜不寐亦一大奇觀也石
路始此以達于皇城所產磁甃自此抵皇

都五十里而人家相連據地極比矣是日

行一百十七里六里

二十六日庚晴日晡發行八里八里堡다리

永通橋自此直通朝陽門二里管家庄관자

二里楊家園양가三里三間房삼간방三里定

府庄부정二里大王庄대왕정煎餅包二里

太平店태평점三里十里堡二里八里堡三

里紅門홍문三里蒲勃院부불원五里東嶽동악

祀泰山神三使改服與諸行人東西

班行之里朝陽門조양문齊和門十里玉河

關관위 關在乾魚衛衛古都統滿正之宅也自山海關至玉河館六百七十里是日行五十里

余則以卓夫之有所負債于東嶽廟前暨里人處抵死不往自永通橋西直抵花大門入于玉河關之正門非上使不得出入門楣上書四譯會同館從東夾門入于中門到上使炕以小木構成房屋以蘆葦鋪作牆壁以綾花紙壁炕上鋪蘆葦；；上設花紋三重地衣以繡屏統坐依然如

我迎賓使處也上使炕東邊炕余與冠蕉
處焉放料軍官金允權乾糧馬頭金書者
梁萬攝次第來謁館之後又有館副使處
焉副館之後又有館書狀處焉每館之前
有左右翼廊各三間炕乾糧官幕佐居之
中門外有數十間炕象澤輩居之館之東
有空室數百間各設私炕官下人輩居之
而各設三使廚房中門之外正門之內西
邊炕我國首譯處焉中門之外正門之東
夾門之東邊炕上國通使焉處日未午焉

而駢馳之餘氣力蕭然招梁萬撰買胡酒
一壺引飲三盃居無何乾糧庫直李景煥
八家偕與之往副坑三坑周遭玩賞歸卧
炕上三使自朝陽門齊到冠樵亦隨即到
仍又點檢行裝歇息几案自厨房進饒飢
之床在焉之間日已夕矣上使命掌務官
李容甫呈表咨文于禮部彼人之汲水負
柴者墳門塞街環館門觀聽者亦無數焉
二十七日甲午晴余與冠樵及譯官一人出
中門外次第觀之則館之東有下玉河橋

橋之北一里許有上玉河橋，之長四十餘步上下橋同焉。館之左右有裕誠局聚盛局德盛局寶寧局中和局元和局萬昌局和順局廣元局同豐局聚盛齋萬和局大興局瑞興局無數局獠不可盡記。而計為千萬間也。以金字大書局獠或揭壁或縣楮物貨之昌盛房炕之精潔玲瓏璀璨眩人眼孔。館之前即城堞也。城之高殆為數十餘丈。館之南有正陽門三層門樓縹緗半空。門闌之廣十餘步，長三十餘步。門

之北又有大清門與正陽門相對屹立大
清正陽之間五劇三佗之來去之車
轂互相擊磨今日如是明日如是一年三
百六十日復今如是如是又是豈不
壯哉豈不盛哉正陽門之內大清門之外
廣濶環以石欄可容十餘萬兵馬正陽門
外門傍有開廟皇明萬曆時特封三界伏
魔太帝極其靈驗無數男女各焚安息香
萬壽香祈福焉門外遮以曲城東有門有
門從西門而出有各色寶貝壘各為五六

十廛所見極爲眩顧是假的也非真的也
日已向夕還爲八來夜與冠步往沐浴炕
自館而西之逶迤殆爲五里許裕誠局劉
姓人執燭前導偕往沐浴炕穹隆亦爲數
百間也八其炕熏氣滿室不覺流汗彼人
五六十皆裸體沐浴良久炕之主人請余
及冠樵坐于精潔之炕二大木罌盛水以
進使之沐浴此蓋優待他國之人云余亦
裸體浴之其水不寒不熱滿身之鹿垢皆
爲洗滌還覺體輕身爽俗何爲七百即使

劉姓人蓄貨給之即還是日掌務官來納
京報一卷京報者如我東朝紙也記當日
朝廷之事而各省所報亦記焉留館四十
日每日來呈一卷矣

二十八日辰壬晴飯後又與冠樵亭房下人
一隸出正陽從曲城而東轉向琉璃廠
在西陽門外南城下橫亘至宣武門外即
宋延壽寺舊址也皆以沉香雕之以龍之
像以金碧繪之以梅菊之色此廠亦然彼
廠亦然前後左右之楨連羅列幾為十餘

里寶貝積如山人物湊似海偏穿眼孔不
覺盈視駭矚而列廠之間數為二十七萬
云廠之西南又有冊肆寶文堂大文堂橫
列左右亦為五六里許天下之遺文古事
畢集于此或數百間炕或三四百間炕委
積三層之板上計其委積合以都聚足與
我東之木覓山齊焉余於八燕時湖西金
友求地理中地骨經仙女內經等編故求
之于寶大文堂蓋寶大兩堂即冊肆之最
大處也而終未求得無乃錯記而然耶可

歎、列廠之金銀寶貝冊肆之奇文具書
目親而已何可彈記文房之書畫紙筆墨
硯雜塵之眼鏡酒盞自鳴鐘如意珠花草
許多等物散在于琉璃廠冊肆之間者此
亦億萬計焉藥肆也酒市也飲食坊錦繡
坊鐵物塵衣服塵各種日用之物塵東西
南北羅列成肆意者天下萬種物無不備
在于此矣冊肆之間有相齋李君居焉八
其齋李君為奇偉長者氣宇軒敞言談奕然
所居梅竹恠石而已盡得自家像揭于壁

上而我東朴承旨珪壽贊之朴令即年前
入使時所贊也生涯只是刻圈署而一字
餽銀為五分也坐久筆談一面許心茶罷
以更訪為約踏暮歸來

是日即天子幸宗廟而二十七日三更令
自禮部指揮外國使叅班禮鷄呼之時余
與冠樵具冠服隨上使並車而行列路燈
燭照輝自東長安門入歷端門至午門直
房通使德祿亦在座挾輦軍雜畜往來日
脯時天子動駕出午門一行跪伏于午門

前御路之東行叩頭禮一齊起立龍駕入
宗廟行禮三使與一行坐于直房而恭俟
還駕午門三層樓上午鼓擊之少頃還駕
又為進茶即為出來大抵同治皇帝年今
九歲端坐玉輦還之路暫顧朝鮮使臣班
相距不過數步瞻望咫尺容只端儼眼采
射人輦軍數十肩輿而行陪從三十餘人
無尺寸之兵而緩步隨駕祇迎諸臣羅拜
于御路之南邊絕無喧聒之聲黃屋在前
四望列于午路御之西旗幟槍等列

兩行豎立不動還宮後一齊撤去午門之
前南端門之內北廣潤可容千萬人以磚
石鋪之御路差高門樓專以黃尾覆之皇
帝未及還駕之時午門洞開故立于門側
望見門內龍含寶蓋鳳吐流蘇輝煌燦爛
不暇記得其一分之行彷彿焉碧房金殿天
宇起穹外直即不過例語也午門之外端
門之內以玉石豎獲柱雕以龍鳳之像屹
立于龜背高為數十丈相向對立出來之
時從東華門委迤轉南繳堅高峻與外城

無異焉渡上玉河橋直南抵玉河館

午門外左右立數丈石獅子端門內左右
墜石巖巖達六棱石柱于其上柱高六七
丈柱身遍刻龍螭柱頭所坐之物莫辨何
樣像而皆作攫拏之狀此蓋擎天柱也午
門三虹門幽深如行洞窟中衆薰雄響嘈
呶鏗鎔橋皆白玉石欄干晚後出東喫飯
即往琉璃廠

二十九日晴日晚與冠燕往于德盛寶
寧聚泰之局與之筆談而過夕陽順治門

外南橫街中間珠巢街揚州新館留徐通
字子潛來訪子潛即南邊人年前赴試不
中方留于黃翰林翔雲家今年春別行副
使俞杞山致崇與黃翰林相從子潛亦與
之親習俞杞山付書于黃徐因此來訪與
之結交蓋子潛亦慷慨之士也日暮不得
長語以正初相訪為約而去
三十日押暗是日即除夕也前後塵里紙
炮之聲通宵不撤或擊鐵錚聲震天地夜
從上使沉於宵話懷不無思鄉之感者吟

癸亥正月初一日乙未晴三使與譯員輩早
曉往參正朝賀班於午門前而直還前後
廬里之人或來行歲拜禮或呈名啣紙各
著新衣隊隊成行來去

初二日丙申晴掌務官來納節杖金函一匣
而開匣視之冊名縉紳全書合為六卷爵
秩之大小尊卑賦稅之多少輕重各省之
壇界遠近各負之姓名居位祿俸之隨秩
多少一詳記焉

初三日丁酉晴觀幻術雜戲或吞針一封而

眼尾鼻孔針筒鱗續而流出或手執六箇
圓環之大如我東宗禮門之環計其環曰
一曰二忽為連珠環為三梭環忽為無隅
環仍為各箇環或手執一大椽覆于交子
床上口呼甚麼聲良久床上有一缸甘紅
露各色菓果視之則皆是真也非假也火
焉次第幻去依舊一椽在于床上或裸體
並立視其身外無物驚眼之間自兩腳中
出盃一魚缸、中五色金魚跳波游泳末
乃幻空無見或一簣棉置于坐前一掬二

菊次第吞既手以朝鮮扇子吹之耳畔鼻
孔烟焰散出良久自口中引出一紅紙
如囉呼形忽即投紙于地上自紙中一小
鳥跳出數飛仍忽不見或吞一長劍末乃
引出自口中流血淋漓兩見甚怖或捧鼓
蹴鞠或角戲奇、恠、神出鬼沒實不可
測有一小猿着胡服猛立恰似五六歲兒
牽繩攀木蹈之舞之作各操戲鞭羊急走
兩猿即騎羊左馳右射如我東騎雛遊犬
負耜而猿又執系馬時曰猿南東其可態

是山數也彼人作甚麼語則熊或跪伏之
或踏舞之惟令是從作奇恠狀餘外雜戲
不可盡記日暮乃罷

初四日

戊戌

晴飯後往花神庙之在琉璃廠

西南寶文堂西距玉河館為十數里廟只
不甚宏傑只是奇麗而已廟庭之前廟門
之內古奇之物文房之具羅列成肆金銀
寶貝書畫筆硯堆積如山間有飲食菜果
廛廟之東西廡各有夾門之內各設廛市
公子王孫騷人墨客多隍玩賞廟之西有

空隙地豁如我東青坡坪盡人形之紙翫
摹數像之本物或蹲或掛獰池之鏡侶氏
之戲東閃西跳倏忽左右千態萬像顧人
眼看繡卓簇擁畫袴素立繡卓皆美人也
而凝粧盛飾花并滿頭鴉黃粉白含嬌含
態真是傾國色余在我東周覽八域閱妓
多矣未見彷彿於此者而家僮騎驟而在
車傍侍婢奉巾而坐車前望之若仙娥降
臨此非三、五、即是千百其數也畫袴
皆文夫也而窮奢極侈頭着繡帽腰佩長

劍手把環珠並皆奇男豪俠也奉者寺去
者半言笑自若此皆擅遊之徒也直往繡
車之前與侍婢交語注目車中則或有隱
身者或有微笑者或有佯看者婢從或請
清心丸或請朝鮮錢別無屠涉之樣之東
之西於左於右周行於花柳之間不覺日
已夕矣惘然遂故問于譯員則中國之俗
每年正月初三日至二十日皇城士女無
論貴賤日遊賣于花神庙云
初五日起晴往觀天柱堂、在宣武門之

內縹緲一樓出于半空上設橫木十字形
塗金流丹畫牆紋壁恍惚壯麗禁不得入
在外跂望而已因即從宣武門出門外有
設布帳二處一則布帳外立一扇門大書
西洋孔雀四字人立如海守門者每人處
受一大錢貫使之入玩余亦給貫一分排
入見之則孔雀一隻緩步同行于布帳之
內雄則尾長々於數尺頭上紅嘴冠出差
大柱鸞而竦立顧眄五色遍身而玲瓏雌
則大於鷄而如雌雞觀者環立一則布帳

內有四五人裹頭搖扇屹立相詭有如我
東私黨之遊倚木板上立而見之則四五
人皆縛其股於木，是文長餘屈起立之
自去自來相親相近或接口或付頰見始
者然見打者然倏忽東西此則彼所謂木
橋遊亦一奇恠也從宣武門入數百步許
有一大家座門外大石龜一隻左右蹲伏
門內有粉牆，之內左右各有三間炕有
守衛者居禁雜不得出入余則外國人也
故守門者許入不禁牆之內環左右數三

百步空堡也墻垣高於我東之三城而堅
固內有疊榭層楹相對而起丹青輝煌鈴
聲亂耳香臭觸鼻開戶入之炕之東有二
人對坐一則書童而受學者也一則長者
而教人者也十二曲欄塗以沉香精剔棊
几文奇古史石假山如意珠文房諸友羅列
左右烏金香爐篆烟似霧白玉寶鏡人影
如仙炕上設花紋寶褥炕下鋪一張編毯
其揖禮畢進茶相勸仍又筆談即三前勸
倭仁家也倭仁因公事方在寶鏡石而畫

子倭仁之子也炕之西亦如炕之東兩人
無數在焉日色已暮不得長語忙，然還
斂有餘悵焉

初六日

子唐

晴通使德祿進茶啖一床子上

使酒餅蔗豚棗果砂果雪梨葡萄栗子胡
胡桃橘餅落花生乾柿生柿琥珀仁各一
器列于床相與之分味焉是日往靈塔寺
三使乘車余與冠樵騎馬從花大門行十
數里抵靈塔寺則別無壯觀塔前則高可
為數十丈層則七重也從石梯回，而上

上之層則圓全一城皆在眼下而萬歲山如平地眼力窮而不得統覽石壁上皆是象國列德之題名年前別使副价趙泰判亨復次亦題名之尚苑在見此如逢故人三使並題名余亦題焉塔之下男女雜畜可以數千計而女居其半其中綽約多花月之美矣午抵會魚池觀五色魚之游泳水中池在天壇之北天壇在外城永定門內墻周幾十里墻脚三級其上可以走馬天子郊祭之所闡有邦禁故不得往見乎

後到天壇之西五里許有開帝廟亦極壯麗
廟中有侶氏戲之高閣，前有岳武穆
廟，之外門有結縛秦檜之像亦奇觀也
初七日晡徐通來訪略設酒果與之終日
談話且請予之筆帖故大書行復不去懷
慨陰求八字以給之
初八日壬寅晴又往花神廟遊一如前日所
見轉往棚齋半日筆談僧王出陝西鎮之
曾王出山西鎮之云歸路歷八大堂，之
主人見有飢色進酒麵菜果醉飽而來

初几日霽晴乾糧官朴命鴻來呈感應編
一卷篇之大音即勸善懲惡足可為風化
之大助者自三使各譯各炕各人處各呈
一卷使之常目在之觀感應行作書者之
誠意其大矣哉

初十日_辰晴徐子潛來訪鶴咏終日

十一日_巳晴往聚盛局見花榴平床大如

一間屋子雕之以花草形極其奇巧且玩

皇明時小玉帶之形絕妙雕樣極奇

十二日_午丙晴又往花神廟之庭之前學首

雜沓環觀有西洋人五六徒肩輿洋女而
來轎樣一如四人轎而裹以繡緞轎總之
四面皆以琉璃飾之玩見之人皆怕怖而
不得逼余從環立之中覘視洋女則以繡
紗裹頭而垂之如我東宮人之蓋頭也
面部波沙鼻樑峭峻顏白語澆絕無婆色
著灰色衣其樣不可形言而如我東商女
著男襦而著短布裳無足觀但他國女故
久立視之少焉步出乘画車四箇洋人肩
而去之蓋西洋之俗女則有夫五六人不

以為惟男則有一妻不得奸他女則行絞
罪云歸路八寶堂文與主人良久
筆話主人進茶果及酒餅其禮待優焉

十三日未可晴風呈歲幣方物及粘米于太
和殿前朝鮮庫太和殿即皇極殿永樂皇
帝之所建也余與冠樵並車從上玉橋河
直北往還宮牆而東從東華門入轉向西
北從瑞門東夾門入太液池下流橫亘宮
牆之內太和殿外中門外而外中門內有
寶錄廳環從寶錄廳緣宮牆而入內中

門即太和殿三簷九堦覆以琉璃黃瓦月
堦三層各高一丈半每層為白石護欄
皆雕以龍鳳闌頭皆為螭首外南臺上立
烏金鶴東西對立翩然欲舞烏金香爐黃
金鼎石各一雙左右分置第一臺闌中列
置八鼎第二臺闌角兩鼎對峙第三臺闌
中夾闌各置一鼎，皆烏金高皆丈餘庭
中亦列三十餘鼎其出色神巧難以模像
也自大清門為白玉石闌連迤曲折至太
和殿又周匝至中和殿又至保和殿如亞

宇殿前東曰體仁即考納我幣之紫紬黃
等之所也西曰弘義臺高與太和殿堦齊
而但屋一闌耳太和殿四面各一十間為
楹一百廿一從門隙而視之則殿中穹隆
不可詳見而外以列棟計之則四面各十
一間合為一百十間其內不過一間而已
則一間之廣濶當如何哉自殿東翼廊至
西翼廊一百四十步自殿堦南至正宇門
八十四步殿庭皆以白玉石鋪之無隙如
一張石焉甲和殿後其內又有萬安門、

內有萬安殿，內又有乾清宮，即皇帝寢殿也。太和殿門壁畫列侯朝會圖，冠冕服色各從其國之製，樣焉。殿之前後右左各置列國之方物庫，余與上列事馬頭、鄭永信、周行、觀覽至朝鮮方物庫，從門隙視之，則龍首花紋席，積峙如山。殿南設五門，一曰太和，二曰午，三曰瑞，四曰天安，五曰大清。皆開，非皇帝不得出入。東曰東，長安門西曰西，長安門。許百官通行。如我之金鹿門、宣仁門、南曰正陽門、東南曰崇文門。

東曰朝陽門南北東直門北曰安定門西
北曰宣武門安定門之間有德勝門西平
門西北又有平澤門紫光閣在紫禁內城
外太液池西三層畫閣如在天上太液池
引玉泉山水入城鑿池環宮為渠架石為
橋下可行舟皆是皇明舊制云大抵北京
即黃帝建都涿鹿之地今保安州西南九
十里有涿鹿山黃帝破蚩尤於此在天為
冀尾之分在地為冀州之域高陽氏謂之
幽陵陶唐氏曰幽都吳曰幽州夏殷曰冀

州秦為上谷漁陽漢初為燕國後分為涿
郡又改為廣陽晉唐曰范陽遼為南京宋
改名燕山府金補燕京尋改號中都元為
大都明初為平府太宗皇帝徙都焉改為
順天府今清因以都之左環滄海右擁太
行北枕居庸南襟河濟永樂辛未間禮部
尚書李至剛建言宜為京師遂為北京宮
城周圍二十里內城周圍四十里外城周
圍不得聞焉而臆料似近百里內皇城置
四十鋪：各置旗軍十名外皇城置七十

二舖大小街巷亦置軍舖：各相距百步
外城之門三副使之子朴鳳彬軍官吳相
準上通事金仁植玄昌運六從事方允謙
庫直李景煥一班清人周行殿庭之中間
盡日賞覽余與冠樵先為還歸

十四日中晴彼人之來去、放紙炮擊
錚以為聲余亦思鄉之心不能無焉

十五日配晴自厨房各進藥食與菜果依
然若在我東時正月十五日朝也是日夕
月色通明與冠樵泔踏下玉河橋裕誠局

掌庫直劉姓人先往在橋上焉因東攜手
往踏玉河橋即往觀燈于戶部兵刑吏禮
工部而略于燈懸別無奇觀工部則大門
內廣濶可容數萬人車馬相續人肩相磨
無數女郎隊、成行或東或西而坐而立
談笑自若其中灼藥多美人焉大門之內
南有寺觀、、之前有高柱一雙環於上
下列懸玉燈寺觀之內前後左右牆壁各
懸琉璃燈、之面或畫尚義堂百八諸和
尚或寫赤壁江三國大戰場奇、恠、色

形之亦一大觀也寺觀之中焚香擊磬聲
相應相應佛殿之前東西役人數十皆
皆暑繡衣而列坐又有二娘一則戴烏紗
画雲方冠被玉色綉紉潤袖長袍下係抗
羅裳腰束紅錦飄帶足穿赤色飛雲方履
一則頭上雙角結子紅繩總角身穿窄袖
線緞襖子腰束紅緞廣帶足穿青鞋坐于
殿門之內左炕淡粧濃沐亦為絕代之容
余與冠蕉坐于二娘之傍與彼人一談一
笑注目看之少無暑流之色自外忽有披

靡之聲洋人數十輩排圍直入二娘起身
避于佛像之後彼數十皆起身掩匿之洋
人輩只是環觀燈光而不知二娘之起避
余方吸草洋人未坐余傍携借余之烟竹
吸之數飲即為還我居無何出去彼人出
與二娘依舊列坐焉余問其避之由則答
云爾們本是禮義邦之人素知有別之義
意彼洋人即是^禽獸之類不知有別之義恐
有一場之鬧故見幾而使之起避云

十六日^庚晴自上玉河橋歷西洋人所住

處向北洋貨肆，在東長安門外三里許
洋貨肆有三肆，皆數百間，皆九楹之屋
其中列懸三層板，各色錦繡，置于板上，環
以觀之，其東西和買，不知為幾萬金。天青
月白，柳色松花，許多貨名，見之新，反聞之
亦初。彼們之一尺，與我東較之，不過為六
而一尺，價為六兩五錢，四兩三錢，二兩銀
子，以我東價言之，二兩銀子為十二兩六
寸，緞價為十二兩，雖譯貨，草初不論，價于
此洋貨肆，大抵此等之緞，即我東無用之。

物或補之以龍螭或紋之以草花厚如我
東錢一分之厚此真錦緞譯負輩換未之
錦即朝鮮条別織也其薄如紙彼人初不
着之価亦小焉而近因江南路絶此亦翔
貴云

十七日辛晴飯後往順治門外南街中間
珠巢街揚州新館與黃翰林翔雲徐子潛
會于寶文堂終日觴飲餽、兩盤熟鷺一
盤鷄莖三首莖豚一首羊肚羹一盆新果
品兩盤臨安酒一壺剡州酒一壺南邊酒

二壺鯉魚一尾菜二盤錦糕餅一大兜葡萄
一盤雪梨一盤落花庄一兜橘餅一盤
五花糖一大兜帶昏而返

十八日去晴夜與冠蕪及譯員丁數往蓬

萊店盡醉而歸蓋蓬萊店即飲食肆也一
交子各坐四人每人坐交荷上一交子上
各色各味合九十餘兜酒果魚肉餅饅菜
芥之屬奢美之味豐盛之需不可盡記者
名實不識四交子床佃合計纔為十六兩
三爰譯官以上判事玄昌運以初行禮擔

其西云

十九日 晴 早飯後三使先行余與冠蕉
並車而行出正陽門環城底逶迤行十餘
里平沙廣澗彼人滿野瞳目視之或坐或
立隊、列伍走馬較藝即我國所謂騎驕
也三使亦駐車在簇立中人皆豪勇馬亦
雄健坐沙塲良久觀之亦一可觀也促駕
而行十數里車、馬、來、去、填路而
行到白雲觀周遭壯麗不下天寧寺道士
百餘人居之牌樓外扁曰洞天佳境內扁

曰瓊林閨苑渡三空橋八玉皇殿玉皇具
帝者服透殿三十三天帝君拱圭垂旒皆
如玉皇天蓬神將三頭六臂各擁兵咒前
殿安南極老人星君騎白鹿左一殿安斗
母右一殿安卯長春元世祖國師也玉皇
殿扁曰紫虛直氣斗母殿扁曰大智寶光
皆康熙筆也道士所居廊廡十餘間明淨
整肅纖塵不動所備書冊皆錦卷玉軸及
珂古奇屏幃畫皆絕世之寶也自外門
歷二重門而入列檜六立闕有削石為窟

窟傍有小石窟，中有老僧坎中連而坐，
趺跏年紀之幾許，不得知之，不食不眠，不
言不笑，即一坐佛環窟列觀，人皆投錢，
成一阜，此無乃欺世盜名者，如不然，天生
異僧，以顯佛氏之法者也。又經一門而入，
三層殿閣縹緲出天，如花美人層欄之上，
成羣列坐，望之若天仙，攀梯而上，層欄立，
望之者無非彼中之雄豪者，而彼美人
兮，倚欄環列，逞美獻態，非一其情。俯視則
下臨無地之地，簇擁立者，皆是遊觀之

八也仍又下梯三使在傍寺方午慙余與
冠襍飲數盃酒携手緩步抵佛殿羣僧著
道人衣或焚香或撞鐘其中奇偉老僧坐
象者五坐西者五執經朗讀以無喧嘩失
禮每日講誦為道士之常例云道士所著
服製度衣樣一如我東之道袍也午炊後
行五里許到天寧寺，是元魏名光林隋
名弘業壇臨大道等壇二層高可為五六
餘臺上廂寮周遭聯絡幾數里中有大殿
佛五舊說隋文帝仁壽二年正月帝遇阿

羅漢授舍利一囊乃以七寶函致岐雍等
三十州建一塔而蔽之今天寧寺塔即其
一也塔高二十七丈五尺五寸塔凡十三
簷八稜懸鈴響音無斷時塔頂風磨銅輪相
晶瑩閃歛映人衣袂翻青掣白塔之北有
街旅數百間八其中皆是奇花異草青紅
綠碧交映齊綻此謂養花處塔之西三重
廊有鹿圍虎圍而虎圍等城如烟塔上架
井字椽覆以大鐵網牆為小窰樹鐵為柵
圍空而無虎鹿圍則別無柵者而鹿向人

叫有若索喂者然寺據大柱白雲觀而壯
麗繁華差有勝焉而有荒廢之廡故問其
由則年前洋匪之亂僧王格林心寧二十
萬兵駐寨于此為數月伊時受弊尚未回
蘇云矣

二十日 寅晴以昨日往返之勞膏肓難振
矣

二十一日晴往雍和宮、是乾隆之額堂也
蒙古人立其直所為皇都之第一奇觀行
宇人多勸其往故早飯後乘車而往宮在

萬歲山東北自玉河館為十數里許通事
及僮從輩先往在焉下車入其重門而各
門鎖鑰姑待三使之齊到故與譯官崔鳳
在方允謙坐于牌樓之礎上冠樵亦結至
三使多時而不來緣於坐礎之久石氣入
腸腹痛轉廁往于翼廊我們人及蒙古人
雜坐烹茶相勸余亦請茶痛飲數鍾腹痛
以袪時有僧徒五六百人皆著黃袈裟齋
戒行出宮南門轉入翼廊問其由講罷
而去云、因與冠樵散步轉往宮南出一

小門街路廣豁其直如矢僧舍逶迤撐拆
繁華節比來棟函欄眩人眼力其經營鋪
置即一大都直入僧舍則炕極精潔鍾磬
聲、花草葱、炕、皆然不是道觀無乃
仙境以爲三使齊到仍即開鑰次、歷閱
至於願堂之正殿左右複道聳出雲外鋪
戶紋牕墨榭層楹東馳西走薨殿之以黃
尾墻飾之以青甃聳之而上出重甍翼然
而下臨無地如此之宮連起三重左翼右
翼前廊後廊橫亘擁衛南訃之農夫周身

帛縷信非虛語也環一宮牆而計之十數
萬間實非錯料也余自通州入皇都時因
車夫之不肯不得路朝陽門故東薇廟亦
得見焉聞冠蕉之言則廟與宮規模制度
莫相上下而自太古以來天神地祇人鬼
皆為塑像而立焉坐焉左之右之雖賈三
四日不得盡焉詳閱西歷記云正殿之中
鋪花紋蒙古氈殿中有立佛高高可為十
數丈雖側身而卧者不得見佛面殿中之
左右有層梯攀而上第一層纔見佛之膝

又回而上第二層見佛之腰又回而
上第三層始見佛之肩而面則穹然在上頭
與我東恩津石佛點較則此佛之大不啻
十倍焉無量之坐佛金山之立佛余於少
時見之則天下佛像未有大於此者矣今
見此佛真所謂觀於海者也因與三使回
身步殿之左右複道樓上恍若身在半空
庶可羽化而去天似不盈尺矣第二層殿
之中只設佛之塑像左右慈略千羅漢第
三重殿之中亦有塑像佛儼然在中左右

有數十床床間其故則胡僧荅云每日曠
時僧徒數千人各持經文坐于床前而講
誦九門提督立席而受講一遍仍擊磬而
罷日以為常云矣西有一小殿從夾^門而入
老僧二人執經而坐講二僧焚香而跪伏
少僧二人擊磬而默禱又胡人三名被法
服殿前門外正路俯伏或起合掌四拜而
又跪伏大香爐一坐在殿門正路傍二僧
焚香而立一小僧殿西夾門傍焚萬壽香
數握此禱佛之禮也而與我東國僧祈禱

大同小異宮數里許有大學仍馮車而步
入太學殿閣之宏麗差大於盛學宮而東
西廡亦為傑崇碑石森立皆是明清朝列
聖御筆也杉槐葱蔚堦礎方正齋直二人
鋪席於殿門外中央路上與三使行拜禮
直八殿內奉審而雍和宮正殿鋪花紋氈
太學正殿鋪鹿毯可以見重佛而輕儒也
殿正門內有石鼓此則周時石鼓云正門
外又有五石鼓此則清之立國新造模倣
者云學宮之西有辟雍出重門環牆一里

許八辟雍之之中處而丹青眩煌左右廡
碑石立之石面正書十三經章句昭
詳鐫刻真大國規模也泮水橫分石橋排
五而皆以玉石雕刻宮庭廣圓可容多士
之較藝又有彝鼎與夷齊廟鼎相似而差
大殷湯所鑄云矣試院墻周幾五百里試卷
長尺餘廣六尺行用冊紙也硃印并間楷
字細書可用千餘言上首硃印禮部二字
下為封彌云歷代碑明朝題名碑也石數
十枚以十千為第次列置大成門左右戟

門之內各五枚又轉向紫市、在皇城東
北隅兩葺曰育賢兩坊之中為順天府學
八楹星門、內鑿池如半月是為泮水為
三空橋欄以白石橋之北有三門中曰大
成左曰聲金右曰玉振聖殿外扁曰先師
廟內扁曰萬世師表康熙筆也位牌題至
聖先師孔子之位四配在右曰復聖顏子
述聖子思之位在京曰子聖曾子亞聖孟
子之位兩廡之間多古柏樹明倫堂在聖
殿之東啓聖祠在明倫堂之北奎文閣在

明倫堂之東北文丞相祠在明倫堂之東
南即柴市、即先生感仁之地也坊曰教
忠中門之外左為名宦祠右為鄉賢祠國
子監內外學舍為五六百餘間而自彙倫
以下東西講堂典籍之庫餼廩之倉會
之所醫藥之房鐘敷之樓庖浴之室繩愆
之堂博古之廳啓聖土地之祠又莫知為
幾十間云矣日已向夕故先與冠樵蔡車
自東長安門直西向至金鰲橋玉鍊橋下
單坐橋上萬歲山在東太液池在北而五

五龍亭森列太和殿在南紫光閣在西南
金碧照耀殆榭森羅數三漁艇流在太液
池中央泛：垂竿可望不可呼如在瑤池
鏡中陳隋之伎蕩亦一快男子也三使馳
有五龍亭遊賞之約而日亦黃昏旋車舉
燭歸家

二十二日丙辰晴吳先達相準亦設初行禮
請余及冠樵又往蓬萊店一如玄譚之設
二十三日丁巳晴又往花神廟娟妍已空遊
賞備多次第更為詳閱塔城玉欄所布掛

皆龍氈刺而衣被者墻壁者畫是法書名
畫往々施帷幕撞金伐鼓者逞戲售術者
也遊覽表者類多翰林庶吉士為訪問訊
家鄉魚買兜服其所覽物類皆古董彝鼎
新刻書冊法名画朝取朝珠香囊眼鏡等
視墨也歷八大文堂盡醉而歸
二十四日携晴往正陽門外洋貨肆買各
色可挂綉三十二尺七寸銀六兩九錢六
分紅綉傷十六尺銀五兩五錢月白甲紗
十一尺五寸銀三兩五錢都合銀為十五

兩元幾六分有女當婚故賀此也
二十五日記晴留副使有病云往見問之
二十六日順晴往西山皇都之西山余在
我京城時艷聞者也三使乘車先往余與
冠蕉並車出來東長安門由萬歲山西北
逶迤出安定門十五里許有萬鍾寺三使
先往駐車余亦下車轉至大雄殿觀佛像
寺之內重門傍有二層鐘樓高可為數十
餘丈環為八隅而一隅為四尺餘合為三
十二尺餘之廣鐘之大豈立於此耶因却

蔡車直向西山大抵平野之曠有此山因
山等墻起樓斷石為檻鋪石為路皆白玉
石作一對乾坤也引通卅之水為洞庭湖
之大與我富春府三日湖同焉湖之中
有奇巧縹緲之高樓而禁不得往見湖之
南有岳陽樓年前洋匪之難燒燬只有遺
墟而墻壁門高間、有之可以默想其奇
麗軒爽是因坐遺墟敗墻上望見北岸相
距為七里許限以洞庭湖而層樓函閣或
在山腰或在山頭石欄森立百態敵媚萬

像交映山高水長之閣亦在灰燼中云皆是禁中不得造觀但為遠望景是可恨洞庭橋之東有水田四五頃催車東歸行五里許有石筭四方始此天子畋獵時置驛之處也前有平野可謂數十里是為畋獵之場四方始上以幅毯為軍幕皇帝居中而南仙仗羅列千官侍立六軍擁護一幅毯幕能容此多云其毯之廣大誠不可測恨不得躬見矣蔡旻歸雋西山常在目無乃未得詳覽而然耶

二十七日醉晴往五龍亭早飯後三使齋
發余亦趣車從金鰲橋至玉煉橋下車暫
賞行到五龍亭八重門先抵萬佛寺，在
五龍亭之北其制度略似雍和宮之正殿
無數金佛散在画壁之間不啻為計攀梯
而上中層又攀梯而上，層上中下三層
之壁間佛像一般其規教亦似無差焉又
下而到千佛寺，在五龍亭之東北寺中
有一立佛差小於雍和宮之立佛而頭佛
之肩佛之手佛之足佛之腰簪生無數之

佛像或有全體之佛潛伏於立佛之手掌
三底之間或有半軀之佛露出於立佛之
額上腰間口底鼻傍或在佛手或在頤指不
可勝屈又下而至寺前有一巨剎入其中
則在假山真於寺閣之中高可為數丈
棧途橫連可以東可以西山之頭山之腰
間有金佛之小龕因與數十同行齊登各
從各運而上而下之則搗不相觸人皆各
踰其山之穴索可想矣其寺之能容以
假山於一間之中其間之闊亦可搗矣又

從而出重門至于五龍亭，在太液之北
而亭之礎角在于水中列坐亭上太液池
蓮花雖未發魚兒遊泳於穩波之中錦纜
往見在平湖之上萬歲山色橫倒而如流
紫光簾影遠射而歷臨周覽天下恐未多
見中央彩閣即龍澤亭澄祥滋香在于東
瀉浩浮翠在於西是為五龍亭名也性海
福息是牌樓也而在于亭之南北右若
控覆而曲態焉亭之西有極樂世界其樓
觀之壯麗而奇巧清淨非比界而真仙

境名極以樂泉非虛也太液池環圓流而
東流西而固形而築墻之內皇帝居焉
而宮室之盛盡在於此中大抵池引玉泉
山水入城穿太液池環宮為渠架石為橋
下可以行舟而引舟可橋之內矣
二十八日庚午晴飯後與朴判官命鴻吳相
準往鄂羅斯館遊覽館即古朝鮮館中年
與今會同館相換蓋其由則我東入苗鄂
羅斯館時多有丙死者故相換云定鄂羅
斯國在大洋之西，洋之國即其隣也天

下之第一大域而其人物也俗尚也與西
洋大同而少異云矣入其館羅斯人出而
迎揖有欲；然色話套全不可曉雖通官
輩因華人而轉相通曉居處精潔汴物極
侈館中有一人善摹人像毫髮不差館中
炕壁上有八列坐衣冠鮮明氣像端儼就
而視之即画像掛壁者也的知生人豈意
画人同行諸人請模真其人答云模真之
法明朗之日巽巳之時可以模出今則日
日就明日再來也

二十九日發晴冠蕉因事往揚州新館余
與朴吳兩行更往訪之其人出迎余以同
同行中年最高故先使寫真其人出置一
卓子：：形如我東馬鞍巨里橫樣木之
兩頭以沒滴飾之以青襟覆于卓子之前
頭坐我於卓子之北不使搖動立而口吮
數遍口吮不知何樣說來乃還入炕中少
焉出來按卓子前頭之沒滴俯首而立良
久還押沒滴不知何樣物置諸懷中而不
使人見之又立炕中燃燈而立以一炷沒

瀉洗于缸水旋即出而示之余之全面移
在波瀉之面非七分即十分也還置炕卓
精潔處以画祿覆之又為出來补吳次第
寫真其節次一如前樣方其寫吾之真坐
而不動故不得揣觀及其朴吳之寫乘其
人還入炕中之時舉卓于前頭之覆祿俯
首視之則坐彼之朴倒立于卓頭波瀉之
面全體真樣酷相背矣異哉此何術法口
呪之說似是幻身之法歟其人云画像今
不可持去數三日後更來覓去云

二月初二日甲晴是日與朴判官上城上
周覽在我東時聞中國城上廣可容五馬
作隊云今見之則廣可為三十餘步則豈
特容五馬作隊乎壯哉即為下來卧炕中
細想周覽之處有非智思慮所可測度亦
非言語文字所可形容也大槩更記其詳
城址臺鍊石而等八地五帶幽地三帶云
不夾土全以甃間灰石灰而薄如紙僅令
粘甃如木之用膠合縫城內外如繩削而
上豐上殺雖大、礮衝車碎難破碎蓋其

外甃雖落裏等自在皇城周四十里若棋局然九門正南曰正陽東南曰崇文西南曰宣武正東曰朝陽東北曰東直正西曰阜成西北曰西直北西曰德勝北東曰安定皇城之內為紫禁城周十七里紅牆黃琉璃瓦西門北曰地安南曰天安東曰東安西曰西安紫禁城之內為宮城正南曰大清門第二即紫禁城之天安門第三曰端門第四曰午門第五曰太和門後門曰乾清：：之北曰神武東曰東華西曰

西華皇城九門樓皆三層皆有三甍皆有三甍城、
皆有二層敵樓鐵果門闕與城門相直而
左皆有便門正南一西為外城有七門制
曰九門正南曰永安南左曰左安南右曰
右安東曰廣渠西曰廣寧廣渠之東隅曰
東便廣寧之西隅曰西便門外有鼓樓、
之北為樓鐘角樓內城十六街有二十四
坊大清門之東曰敷文西曰振武崇文門
內之對坊曰乾日宣武門內之對坊曰瞻
雲東大街四牌樓曰履仁西大街四牌樓

曰行義太學東西對坊曰成賢府學東西對坊曰育賢帝王庫東西對坊曰景德直正陽門十里為南郊圓邱在焉直安定門十里為北郊方澤在焉直朝陽門十里為東郊朝日於此直阜成門十里為西郊夕月於此太廟在闕之左社稷左闕之右六科在端門左右六部及百司在大清門左右虎園在御厩後象房在宣武門內西城北墻下出朝陽門循濠而南左數丈額曰阜此古之黃金台雍和宮有三簷大殿

塑金身踏十二級胡梯如入鬼窟梯盡得
樓始見天日樓之中央四圍閣于竅虛如
井僅及金身下半截又自此踏梯如行叅
夜良久乃得入窓洞然樓中井竅如下層
而金身要膺纔見其半又暗摸拾拾級信
足冥昇乃出上層始與佛頂平據欄俯視
風氣凜冽又入前一大殿列短脚床、大
如棋枰一人一床跏趺而坐僧皆喇嘛禪
醜無比者蓋三千人一僧響鐘衆喇嘛一
時誦梵西安門內南小街行數百步有

三簷十二面圓殿覆以紫琉璃瓦黃金蒲
蘆頂題曰大光明殿五龍亭在太液池上
西北澄波萬頃金碧蘸影紫光閣承光殿
紫瓦金殿隱約林間紅牆內絲瓦亭閣亭
下廣壘太液池在西安門內周幾十里紫
光閣循太液池有圓頂小殿上覆黃瓦簷
用碧瓦是謂紫光閣由九龍壁行十數步
有大殿遠壁龕置小佛一龕二佛合為万
軀又有丈六觀音變相頭上遠空萬佛千
手十目足踏神姦奇鬼惡獸毒蛇變化成

精而未得佛性者前置大香爐三足高丈
餘十奴百恠未舉鼎石撐臂支脚如目張
口許邪誰何若鬼子母搗琉璃鉢五龍亭
西有大殿屋數百楹覆以青瓦屋中以沉
香旃檀為五岳山岩密洞壑幽深峻峭寺
刹樓觀羅絡其上剪絲為花松栢皆以銅
鐵為葉青翠出色數仞飛瀑漚騰沫跳雪
翻驚滾令人滋惑有若鑿水激水也蓋鑿
琉璃為之也鑿太液池為山曰万壽又曰
煤山：上有三層殿閣立四法輪等其中

有壽皇亭瓊華島在太液池中世傳遼太
后粧梳處也跨島有大石橋之兩端有
二坊左堆雲右積翠臺下有金時古松皇
明嘉靖間號為都督松跨太液池架石橋
東西二百餘步而泐為白玉闌干中為馳
道增高二尺夾道為復欄之頭鉉煖總為
四百八十餘步各其情態不一其形橋之
兩端對樹二坊東曰玉煉西曰金鰲車馬
闐咽遊人雜沓北望五龍亭西望紫城層
樓復殿相掩相映五色琉璃瓦甍隨日作

作陰陽澄烟淡靄四面常時如開屏幃太和殿前庭數百步許臺高丈餘護以白玉石橋上有太和門，上為三簷黃瓦是為五鳳樓自體仁閣出協和門與東華門相直有殿曰文華殿東有門曰前星象青琉璃瓦門內又有重門而皆鎖重門之內皆青琉璃瓦是為天子宮也御殿在前星門外東西樹柵為門協和門外有武英殿制如文華殿雍和門與西華門相直協和門與東華門相直武英殿前有武閣閣大

樂殿閣門牆莫不對，相直中庭廣潤亦
必相當無所差殊矣。文華殿前有閣曰文
淵，天子藏書之所也。出雍和門有殿曰文
華，覆以黃琉璃瓦，東室為九龕，供俸伏羲
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左一龕周公右
一龕孔子，蓋天子開講之所也。寺觀及廟
堂之傍，必有戲台，皆架七椽或架九椽，高
深雄傑，或扁以仲秋慶賞，上元佳節，記無
序次，且以泇路及入都後所見，并記于此。
泇路二里三里之間，閤井斷續，車馬連路。

左右市舖無非可觀而自鳳城以來奢儉
不同總是一樣規模有時魯驕過眼者可
驚可喜不可憚記民舍繚垣肩以上更以
斷尾兩之相配為波濤之文四合而成連
環之形四背而成古魯鑲嵌空玲瓏外內
交映聚諸色琉璃碎瓦及水過小磔之廣
圓者錯或花草鳥獸之形奇或巧或為標
皆虹霓如城門大可以揚帆小亦可通舫
懸石欄鐫刻雲物蛇腹蛟螭木欄亦施丹
綠到處皆然甃且專用畫畫不見白銅鋪

錫等器日用飯飧之器皆金碧朱白之飾
標非其尚侈而然陶工窑家之手工本如
此而瓦之破缺者不棄皆外施鉄釘為完
器釘不透內而緊舍不退觀帖無痕數尺
諸色觚鬲柶花柶翠之壺罇到處皆有之
店舍庭廣不下為數百步廊廡間椅卓四
五十副廡中槽長或二三間廣半間庭中
列置木槽五六十坐以兩頭入木而反之
豈不壯哉小賈之行于道路者或高聲叫
賣而如賣青布者搖手中小籠為人開扇

者彈手中鈇簡賣油敲鉢或有持金釘竹
篋木柝而行者周回街不撤敲響則人家
門裡走出小孩子叫之以買之蓋聞敲響
已辨其貨物矣喪車之大幾如二間屋子
以五色錦緞為帷帳雜函雲物雉雀亭項
或爛銀或結五色絲為紉瓊轅長幾七八
丈紅恭歸以黃銅鍍金為色擔夫數百人
鈇旌皆緞金字書寫旌竿數三丈黑恭函
金龍紅蓋青蓋黑蓋各一瓊幡幢五六對
旗幟數十瓊絙以笙箏鼓吹僧徒道流各

以其服具誦咀念呪以隨輿後其威儀甚
盛高設白色牌樓以蘆葦結構尾濤鷗吻
無異木石高四五丈離立喪家門前十步
之內其下列坐鼓吹壘鈺一對唢呐一對
晝夜不離吊客臨門則大吹大打上食祭
奠內有哭聲則外輒以鼓吹相和恠哉
太平車輪高及肘三十輻共一轂棗木圓
成缺尾銹釘圓遍輪身上為圓屋可容三
人以青布飾之或綾緞或羽緞為帳或垂
簷簾用銀鈎開閉左右傳玻璃為牕屋前

設橫板以坐御者屋後亦坐從者駕一駟而行遠則或二三駟並駕而行一條長鞭係兩條長可二丈打中不用力者守耳中脅手慣妙中鞭打之響震動如雷

初二日北晴夜深方睡乾輶庫直李景煥推炕門而八告上使之傳唱曰有奇、妙、天下第一物件而不可傳玩故茲仰聞飛也似來玩云故即起更衣而去上炕則果有一小小物其物以鍤飾之長不過一寸五分上尖下豐四稜一稜廣為四分餘

上尖一處有小孔其孔甚小如針孔細
斜視其孔則其孔中一丈夫一美人赤身
對立丈夫則身數軒昂美髯身長七八尺
美人則容貞娟妍短小如傾國之色近而
視之則差小遠而視之則稍大樓堦之起
金碧照耀花柳之景倚風裊娜蓋其中小
而窄難容錙銖之物而作一別界花柳掩
映在樓堦之畔丈夫送情於美人之側蓋
洋人之画雖奪造化豈有如此之奇且巧
者哉

初三日雨晴朴判官更往鄂羅斯館推其
攀直而余之函本亦為推來不過一小片
羅斯紙上十分真而宛爾在焉但肉色未
寫蓋肉色之出費銀數十兩云此異國之
術不可學得而既寫之像燒為不可得置
諸箱中譯官十數亦皆摸出冠樵亦欲寫
出與李景燠數次委往適值不得寫焉
初四日雨晴往大文堂買類函醫書等略
于母仍轉向寶文堂暫誌而返大抵大文
堂寶文堂之間無論此堂彼堂離欄函模

金碧輝映紛碧紗。惚渺若仙居。左右多張
古今法書名畫。精墨佳紙。寶硯良毫。又多
酒席佳詩。蓋廷紳羅衙歸路。及海內名士
夕陽淡集。車馬雲屯。御盃賦詩。評書論畫。
竟夕流連。日。如此。昨日所留。今日已盡。
定。售賣中國名士。大天不以娼館酒肆為嫌。

初五日庚戌晴

初六日己酉晴。三使往端門。受頒賞五色
綢緞。二端紫色。庫緞青色。庫緞各色。二端有

紋紅絲織二端雜色織並合二十一端馬
一匹鞍一部大荷包一對小荷包二對銀
五十三兩即奴子賞也六抵頒賞四起銀
為二百兩織為三十二端天子方在亮閣
故只受歲貢不受正朝冬至聖節之賀只
頒一起之賞四起者正朝冬至聖節歲節
是也七從寧卡恒測寫字官金仁赫以副
領事行中丞為紛紜
初七領三使及一行受下馬宴仍即受上
馬宴自是禮待外國使之例也其精潔

感動費千金云而皇極殿紫光閣天子若
親臨受賀外使八叅則接待之禮燕享之
儀亦可以聳人觀聽而八歲天子方在亮
闇只受年貢之幣不受正朝冬至聖節之
陳賀故上下馬宴使之例待於三使留館
之帶其精潔豐盛似減於親臨燕享之時
而以若大國意謂有所可觀矣今二月初
八日發行而初七日午時量玉河館外門
喧聲大作有若殺伐之振無數首漢成寧
人門或執綾杖而揮之或投盆水而禁之

此蓋上馬下馬宴床之來也二箇人各持
交于床左右而舉之徐步入來首漢鞞擗
排褥喫床無一筯之完如干需物散地無
餘其風色誠不可見三後炕所進之物亦
皆無餘余炕所進之床只有蜜梨一筯五
六箇而已豈意上國之法令無嚴若是乎
晚後有一役來訪余炕故酬酌而餘語及
宴事則役人笑答曰宴事之費例過銀數
十兩而太和紫光皇帝親臨宴享則果為
豐盛若宴及于館炕則自宴享所隨其所

掌各自減食宴床全不成樣故使彼數首
漢隨後奪去揮杖投水禁其雜沓塗抹外
面云：誠可笑可諉事也夕間彼人三十
餘名以債銀事周圍卞金兩人而督之所
聞甚擾矣

初八日晴風寒午時量自玉河館離發
宿于通州彼人以下金事通使德祿呈文
于上使：之督捧半日相持卞金兩人捉
八方欲決棍因首驛李楚掌務官李容甫
上通事金仁植之懇告姑使退送仍即發

行孝靜成皇后神牌牀前太廟奉咨之順
付回使便成皇后即道光皇帝之嬪云是
日行五十里

初九日申晴宿于棗林庄以卜金事首譯

為胡商所拘云是日行六十一里

初十日癸晴宿于邦均以首譯見拘事馬頭

鄭永信于首譯處是日行四十六里

十一日甲晴大風朝聞首譯以今日發還

之報即發宿于薊州盤山以風日之幸宜
不得往觀因往卧佛寺、在城西門內數

千年古寺也。簷宇墻垣多有頽毀。寺後小
觀之傍坑有卧佛，像犍頑恰是泥醉頽
卧者然。卧佛之前有寺，之中有夫人塑
像。眉宇攢愁，俗傳卧佛李白塑像。李白之
妻也。而愠語李白之長醉，有是憂歎之像。
云：薊酒天下有名，故買一盞而飲。果是
清冽。至毒，即為醺人。買黃膏藥，一匕。是日
行三十里。

十一日紀微雨。風自薊雒發，出城而東行。
十里許有翠屏山，之前有漁陽橋。漁陽

擊鼓動地來即此地也橋之傍有安祿山
祠楊貴妃廟大抵中國之人太多事而酷
好神也鱉山中火玉田宿所首譯表見于
中大姑是日行八十里
十三日子酉朝洒雨陰風沙流河中火豐潤
縣宿所山上多雪是日行八十里
十五日庚戌晴大風永平府中八双望堡練
馬撫寧縣宿所未到永平府二十里許沙
場風勢大作十里平沙天地混合人馬不
辨堅閉車輪之門而飛沙滿車健彼騾子

循且亭車而行是日行一百五十里

十六日卯巳晴深河驛中火紅花店宿所是

日行九十三里

十七日辰庚晴出山海關五重城到八里堡

中火中前宿所是日行四十三里

十八日巳辛晴滿井堡中火中後所宿所是

日行八十七里

十九日午壬晴陰風寒沙河所中火亭遠衛

宿所是日行七十八里

二十日癸未晴燕山驛中火杏山堡宿所

是日行八十三里

二十一日卯陰風寒獲湯店中火越大陵
河先老浦宿所渡河之際停風大作陰慘
河水森茫乘水車直渡是日行七十九里
二十二日酉晴二臺子中火廣寧店宿所

是日行九十二里

二十三日戌雨朝陰午晴與上使往北鎮廟
廟在醫聖閣山下背後千峰如列屐屏幃
前臨大野右深滄海寧廣撫在膝下萬戶
濤烟繚青一帶層塔迥白俯仰天地無所

晴岸日月出沒風雲變幻皆在其中東面
而視尺吳村齊在我指端但恨目力之窮
矣鎮海嶽祠北方玄冥帝君并其從神皆
袞冕珮玉捧圭而立巖威儼恪格人非心
香鼎高六尺餘雕刻神姦鬼恠青翠八骨
前置忝缸可容十石廟前有五門牌樓純
石架起棟椽薨簷不資一木高四五丈結
構之工刻鏤之巧非人力所及樓左右石
獅高數丈寺前有两碑一萬壽禪杖一萬
古流芳前殿有二像冕旒玉笏曰文昌星

碧鳳冠珠帶曰玉妃娘。左右兩童子侍立。扁曰乾始靈區。廟自隋時。祠玄冥。唐封廣寧公。宋加王號。其外即葦言之地。廟門內西有巖石。刻卧松。乾隆詩亦刻之。廟西十里許有桃花洞。之口三四里。即原濕之地。環左右有桃林四五處。其中只見桃樹而已。棄車杖杖步行出桃林。涉澗穿石上清安寺。在山之翠微寺之西。數十里。或有石穹然。其中可容數百人。石蓋之下。石上有金佛十餘。石蓋之石高可為十

數丈招僧徒結搆層梯束木竿于長木之
副使書三使姓名于西蓋之西寺之上
一里許有石立縹緲石上起樓堦丹青照輝
如在天上立而望之不覺宵喪環山皆石
也崎嶇嶮險峻截危高豈意至大之野有
此絕勝之區耶亦一壯觀也有吟北鎮廟
中大小里山宿所是日行六十八里
二十四日訂晴二道井中火白旗堡宿所
夕間有三姓人率十三歲女兒來見上使
而其女善書云故使之書之運筆也作字

也果名不虛矣自七八歲以筆名我東使
价每歲來往時常使書之給厚餼云王姓
人即明之位宦後裔也是日行一百里
二十五日抵陰夕雨新民宅中火孫家子
宿前是日行八十五里

二十六日巳陰晴大方身中火瀋陽宿所
養漢的四五女來坐所位炕嬌態敵媚而
與皇城養的不可同日語也鄰見極醜移
宿于上使炕傍炕因先家車夫回便聞又
有朝鮮使行一行驚疑首譯先往娘子山

是日行八十五里

二十七日 顛陰大風白塔堡中火十里河
宿所自瀋出城大風起作揚沙走石到永
平時風同矣到瀋江則結船塞江如我東
幸行時露梁舟橋而但無欄干矣是日行
六十里

二十八日 辛晴爛泥堡林馬迎水寺宿所
爛泥堡張家店壁上余之筆牘尚掛筆雖
極劣見甚快暢是日行五十五里

二十九日 辰晴玉寶塔中火娘子山宿所

歲書未得見槩聞京中大小衆安信甚喜
幸見京中兩報尹判書致書以廿一史經
筆上疏 主上即為傳教差出陳奏使下
詔上使尹致書副李容殿書狀李寅命灣
尹及宣川倅送饌盒酒肉于上使自厨府
夕進青魚亦可以開胃矣灣妓蘭姬鳳愛
裁書問安亦一可喜事也是日行七十里
三十日發甜水站中火連山靠宿所是日
行七十里
三月初一日 押晴午兩邊遠堡中火黃山

宿所是日行六十五里

三月初一日未晴西台子中大柵門宿所

申時良到柵始到我境矣見家書登州人

呂惟明尚留柵即為來見欣然相握是日

行一百五里

初三日申雨晴沿路墳墓必繚以垣牆周數

百步植以松栢楊柳列行必整排墓前皆

有華表而象設者貴人之墳也門或三或

為牌樓亦多宏侈門前為石橋虹空有閣

墓田也昔之如金道無遺灰拾馬矢者奉

參而尾隨續序方正或八角或六椽或高
樓塔之形

初五日戊晴

初六日起晴鳳凰山桃花滿發與冠燕携
手上去今日賞覽亦一暢懷矣泉胥金仁
祖云我東人若上鳳凰上峰天必雨云故
幼欲登去以試其佯語而山極峻緣憊困
竟不得遂意

初七日涼晴以方恒淵債事 啓聞且論
報籌司

初八日_丑辛余曾見白沙集中有譯官一渡鴨水便化為狼蝎為熊不忍見爭利之虞累有可駭或不良者做出架虛之說云々信哉斯言也譯輩之此習自古已然而况又世降彼輩之行事豈可滋筆乎大抵吾東名分截嚴有上中下之別而中等雖殊於上等想必少有奇偉端正之風今行見之則絕無補道者蔽一言為中人者一號為譯家去於彼地者即不過化外之徒也竊為中人貳焉

為中人式

初九日壬寅晴聞陳葵使渡江

初十日卯晴陳葵使入柵上使尹判書直

訪回還上使良次坐話而去

十一日辰晴副使李容殷書狀李寅命並

來訪上使余坐上炕之對炕嫻其穩話即

與冠蕉出門彷徨于屋簷之間

十二日巳晴尹上使與回還上使設小酌

十三日午晴陳葵使一行即發赴燕車卜

盡為八到

十四日打晴分車卜

十五日晴自柵騎馬抵溫井驛中火未
時渡江宿于來宣閣江渡之時一班知而
人及妓蘭姪花艷輩來現如見京城之人
也是日行一百二十里

十六日配晴

十七日晴以卜譯之 啓聞及籌司曰
題未下事三使一行留

十八日晴上統軍亭望金石而想往還
亦一夢場也然而自濟至燕二千餘里之

間山川風土人物城池宮室苑囿倉廩奇
偉環麗易詭之觀可以駭耳目娛心志歷
々森記故行而忘跋履之歎歸而恣矜耀
之談矣

十九日

壬午晴

二十日癸卯早兩晚晴籌司回題下表

二十一日甲辰晴三使行自灣早發所串三
十里中火龍川館聽流堂五十里宿所灣
妓紅蓮上使所晤蘭姬余之所愛並到館
宿鳳爰余所暫晤也而曹華站作別還送

二十二日卯晴早朝紅蓮蘭姬並還送不
無悵之志情自顧白髮誠一可笑鐵山館三
十里中大宣川倚劔亭五十里宿所主倅
申恭善即風流人也迎接款洽楚仙諸妓
夜來談話

二十三日丙晴郭山五十里中大主倅李
禮祐病不能相見定州三十里宿所牧使
徐容導遶歸新倅徐

二十四日丁陰夕雨嘉山六十里中大郡
守具 鉉安州五十里宿所安相權瑒與

別使李容殿有隙至在上疏狀罷之境夜
即入見叙阻牧使徐蔬淳午後兩到晴川
江兩勢大注冒渡救營松禾宗人象憲海
州宗人俊會甫川宗人炳斗未見

二十五日穢晴甫六十里中火房使韓尚
烈順安六十里宿所縣令李承敬二更量
聞宗婦訃音上使悲懷實不忍見遙想甲
棟情地令人落淚處也

二十六日紀晴平壤五十里宿所監司尹
致定迤歸新伯李諱在庶尹金炳愚夜與

濃雲綠葉竹香等四五妓往蔡學默泉設
酌淡酒

二十七日庚申晴晚發乘舟載三四妓行十
餘里中大黃卅五十里宿所兵使李元熙
教使李象慎蔡姪諸妓一齊來見

二十八日辛酉晴鳳山四十里宿所鄒守金
沃報上京趙啓植未見冠蕉因事落後還往
屢月作伴之餘悵如有失焉

二十九日壬戌陰劔水三十里中大瑞與四十
里宿所府使金教性違去新使鄭基命白

川島進士治榮來留衙中相見甚洽
三十日發細雨巷秀五十里中火平山三
十里宿所府使金鑑淳策留鄭生負仲延
携酒來見夜與族人基永往邑城牧丹家
蒲飲而還妓即族人所愛也

四月初一日理晴金川三十里中火郡守
李塿海州宗人重植來見高進士作別還
歸塔峴三十五日秣馬松都三十五里宿
所留守金燭地適歸新留金蒲蘇洋主人
安弘石來見平壤妓瓊姬來在營下招來

夜話

初二日丑早雨晚晴長湍四十里中火都
使李鶴周坡卅四十里宿所牧使孫亮錫
初三日寅晴高陽宿所郡守金直善奉事
炳教進立宜文下隸十餘名未見蔡司果
未飲洪喪人承孫亦未見

初四日卯晴早發抵弘濟院兄豆率六歲
兒子戊得未臨其喜滿不可形言仍即置
家自立戌十月二十一日至癸亥四月初
四月凡一百五十二日自漢陽至蕪都往

還元六千一百五十八里也
余自中國還每思過境情：如朝露傾眼
宵：如曉夢斂魂朔南易方名實奕真更
撮其遺漏者而紀之
舊遼東即漢時太守舊治即明時寧遠伯
李成樞開府處也瀋陽即清太祖興王之
地補盛京奉天府去蒙古地八百里山海
長城東門熱河在易水德府自燕京東北
行三百餘里到南天門等城障之云
即唐堯所封境內有崆峒山廣成子問道

處也帝王廟在西安門外景德街不許止
國之君而特祀崇禎皇帝石鼓在太學大
成門外其數盈十舊在陳倉野中韓昌黎
請於祭酒樂至太學不從金人樂至於燕
元皇慶中移在文廟云盤山乃康熙陵所
在山頂有石搖之輒動州西四明山有聖
母娘、廟州北夫君山有柳河龍王廟四
庫全書一帙為三萬六千卷總目二百卷
皆善寫一帙登文淵閣一帙置盛京文溯
閣一帙分置圓明園熱河又加騰三帙分

置於揚州文匯閣鎮江文宗閣杭州文淵閣明朝陵寢在昌平距奉天府為百里有山寺在山海關北卅里自熱河出南門有古北河城堞迤於石角即萬里長城之右北平也有避暑山庄

朝鮮歲至朝貢東南日琉球間歲一至蘇祿五歲一至南日安南六歲再至暹羅三歲一至西南日南掌十歲一至西洋緬甸道遠無定期西洋暹羅無常貢物琉球由福建閩安鎮蘇祿由廈門西洋由廣東

門暹羅由虎門皆浮海安南曰廣西太平
府緬甸由雲南永昌府南掌由念百洱府
皆陸行荷蘭在東海外數千里去北京屢
萬里康熙丁未乾隆乙卯來朝鄒羅斯北
海外大曼近處之國
清太祖高皇帝崇德陵在瀋陽天柱山合頁首

孝慈高皇后

九月二十七日

太宗文皇帝天命天聰昭陵在瀋陽隆業山八月初九日

孝端文皇后

四月十七日

孝莊文皇后

十一月二十五日

世祖章皇帝順治孝陵

諱福臨

甲申在位六年 正月初七日

孝康章皇后

二月十二日

孝惠章皇后

三陵皆在薊州十二月初七日

聖祖仁皇帝康熙景陵

諱玄烨

壬寅在位六十年十一月三日

孝昭仁皇后

二月二十七日

孝誠仁皇后

五月初三日

孝恭仁皇后

五月二十三日

孝懿仁皇后

五陵在薊州

七月初十日

世宗憲皇帝雍正恭陵

諱胤禛 癸卯在位十三年八月二十三日

孝敬憲皇后

九月二十七日

孝聖憲皇后

三陵在易州

正月二十三日

高宗純皇帝乾隆裕陵

諱弘曆 丙辰在位六十年 正月初三日

孝賢純皇后

三月十一日

初一日

晴晨渡湖行率伍人金昌吟別信曾奉先學子花

春奴子劍轎軍四名金先達利濟果亦三十四年

火四十里華一坡南門外宿沙坪一達注書南鎮葛氏

上京行暫別

初二日冷霜早發三十里曾志中人四十里七原中火十里陽

城陳村族人其真等家宿李學官歲守父子未見拍

來山陰鄭生三元而明日先送溫陽葛洞之詩

初三日晴朝解于李學官家與真叔偕行三元先送等

洞行六十五里天安島洞三叔貞淳家納安東詩

留洞遊李洪向雅來會詩

初四日晴朝解後車一陰此世拜三友二終三十一

... 下居... 人... 陽城... 來... 何...
... 往十里... 與... 叔... 弟...
... 仍別與...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 送二元... 叔... 弟...
... 仍行三十里...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 叔... 弟... 叔... 弟...

孝儀純皇后

三陵在蘭州

正月二十九日

仁宗睿皇帝嘉慶陵

諱顯琰

丙辰在位二十五年七月十五日

孝淑睿皇后

二月初七日

孝和睿皇后

十二月十一日

宣宗成皇帝道光陵

諱旻

辛巳在位三年

正月十四日

孝穆成皇后

正月二十一日

孝慎成皇后

四月二十九日

孝全成皇后

正月十一日

孝靜成皇后

七月初九日

文宗顯皇帝咸豐陵

諱奕詝

辛亥在位十年七月十七日

孝德顯皇后

十二月十二日

六十里至家院南茂所始學家器始樂器

解語

初八日晴朝飯後與始叔同行三十里到黃浦新家

家留 昌發七歲九歲二十九

初九日陰與始叔同留

初十日早也發六十里到金井驛拜心菴相公山可又行十

里到文河宿庄上里莊會諸從會諸是

吳敬金流氣書

十一日晴也發三點半車能家行六與三十里又行二十

里光山邑俸乘甲也為入見因宿

仁祖莊穆

元年天啓三年

癸亥

孝宗忠宣

順治七年

庚寅

顯宗莊恪

十七年

庚子

肅宗僖順

康熙十四年

乙卯

景宗恪恭

六十年

辛丑

英宗莊順

雍正三年

乙巳

真宗恪愨

正宗恭宣

乾隆四年二年

丁丑

純祖宣恪

嘉慶六年

辛酉

翼宗康穆

十一日晴早午行後發行四十里新營已中火又二十里
路院宿宿宿以全坪院火可見愁情

餘

十四日早午行後率龍兒發行四十里入皇橋中火又四十里

行

十五日晴早午行後率龍兒發行四十里入皇橋中火又四十里

憲宗莊肅

道光十五年

乙未

哲宗

右我朝

列聖清國年歸使行時咨文相馮寧

上使李宜翼

首譯李楚

副使朴永輔

乾糧官朴命鴻

書狀李在聞

軍官彭綸益

隨行李恒億

漢陰後

金時言

李豐九

蓮峰後

吳相準

朴鳳彬

副使蕭二子

庫直李景熙

次正得

僚從李海與

天津談草

天津奉使緣起

我國素無他交惟北事中國東通日本而已自數十年來宇內情形日變歐洲雄長東洋諸國皆遵其公捨此則孤立寡助無以自保於是中國及日本皆與泰西各國修好所立約者近二十國日本舊有開白執權自通洋以來日皇廢閑白而親攬國政允治國練兵製器征貨等事悉用泰西之法滅琉球拓北海號稱東洋強國日本最近者莫如我國改紀以後通書契于我 朝廷朝廷以書契多違舊式令邊臣却而不受至於八年之久丙子春日日本派使乘兵船入

江華要約不得已許之俄羅斯廓其境土至于海參
崴屯兵開港與我國邊疆只隔一水如虎豹之在傍
時安南緬甸琉球次第削弱至於滅亡我國猶未知
也安南則與法國修約緬甸則與英國修約琉球則
服事日本此三國不願廣立專仗一國以爲可恃事
久變生漸加侵凌國勢積弱無以制之他國則素不
不立約以局外處之不敢過問孤立無援遂值傾覆
中國鑑於此三國之禍爲我國深憂之蓋此三國皆
中國通貢之國棄舊悅新自取禍敗中國雖欲救護
實有鞭長不及之歎且在約外不便過問海外荒服

又無損於中國之大計故不能力爭至於我國水陸相接爲東三省藩蔽中國人視同內服故欲先事設法俾不蹈三國之轍北洋大臣李少荃中堂鴻章屢致書於橘山及山響相公開陳利害勸與各國修好不然則將爲狎鄰所制悔之無及矣其策有聯美親中國二者爲最要聯美者美國比歐洲諸國最爲公平順善又富於財無貪人土地之欲先與美國商立善約則嗣後他國立約亦將悉照前稿無見欺之患又美人好排難解紛必不容各國偏加凌侮此聯美之利也親中國者我國服事中國自有數百年相守

之典禮然海禁既開我國亦以自主立於萬國之中
則內治外交中國不便于涉而我國素昧交際若無
中國勦助則必隨事失誤故中東西國須加意親密
隨機暗紮如一室無間亦可以禦外人之侮此親中
國之利也津門諸人又多方爲此說以勸之庚辰冬
天津海關道鄭藻如以少荃之意致書于我國年貢
使臣使之歸達我廷其論有聯美七利且曰朝鮮既
許日本通商各國必將援例而至果能一概謝絕今
日之論誠爲贅詞若明知萬不能必待其異日別
生技節而後許之不如今日許之而可泯形跡也必

京城鐘路一丁目七(露南紙物舖)印行
取次電話先代門一八七三卷

待衆國交乘而後許之不如擇其較可親者而先引以爲助也宜借學生赴津爲名迅選曉事大員來津商辦機不可失惟此議必須慎密勿使他鄰知之自上海嘉其議漸欲行之奈國國洵以和洋爲非不可力遏翌年辛巳三月始有派送領選使之命至是年七年余猥充使銜時余在湖南順天任所聞命倣裝入京率機器學徒七十餘人迫歲到津屢謁少荃談紙成堆蓋議約事居十之八九而學造事不過一二年到津後承少荃指導屢約事專使函達而我國事素多持難又碍於浮論事多濡滯余以是

每於談次屢被因迫而自同痴人惟婉辭謝之而已
每談罷歸館手繕談草付上 本國以倘 乙覽錄
底鎬於行曆中其與他人晤談非汗漫說話者亦載
之壬辰季夏謫居無事屬印君東植移膳行曆中談
草彙爲一冊命之曰天津談草畧述緣起於上是月
上院清風金允植書于河川花井鵬舍

不肖曾孫 周龍謹書

天津談草

辛巳十一月二十八日保定省署談草

北洋大臣李少荃中堂兼帶直隸總督各月來駐保定府余自北京先詣保定府見中堂從事官尹恭綬官弁白樂倫別遣堂上卞元圭同入座

中堂問 國王安寧及行中安否各人出身年紀令

從事官弁先出雷余及別遣仍開筆談問工匠學徒

年紀對以自十六七至四十餘不等問年紀何如是

過多對以年幼味方不如素所執業之人問李應後

逢於何處對逢於義州想已達 王京矣 問魚允

中逢於何處對夏間往游日本姑未復命問問已由

津回國何以不逢對在途雖聞風傳一路曾未相遇

問魚允中官居幾品何職對弘文應教曾經三品問
魚允中論外交事明白頗有聲望否對有志氣有識
見人外交情形素能諳究居官到處有聲問此來學
習之外更有何幹對中堂以聯美事屢有指教我
寡君深感謀忠之德意奈國俗初見議論不一迄未
歸正寡君屢致意焉問機務府初於何時對自今
春始設問統理者為誰對大臣二員一領府事李最
應今王之叔父一左議政金炳國問既管機務何
無書於余余與橘山相復國王亦有咨文大臣有
何嫌疑乎吾於貴國視如肺腑昆季推心置腹尚未

喻余意乎對中堂屢度勤函苦心代籌我 寡君感
謝不已但機府新設凡百艸荆兩大臣年多病未及
上書且未承尊命何敢遽先往復乎曰孔子曰所求
乎朋友先施之未能也對謹聞名矣問花房義質尚
在否對花房義質因事還國姑未再來隨員副田節
領象雷館問學徒等何許人對一半少年書生一半
素習工匠問書生何為對以其年少聰明或有可學
之道耳問居住之限對隨其成就早晚姑無定限問
兵丁之數對都下各營軍簿雖云三萬除羸老外不
過什之三四問一年餉銀對通計地部一年所入以

錢計之不過數百萬。問行中人員資斧對每人日銀
子或二兩一兩不等。問帶來那換給那對帶來換給
隨便措寘。問將由京赴津對自此直向天津學徒等
於廿七日自京離發計今明間可達津門。卞曰元圭
同向天津觀學徒真接留數日由京還國。趙來春正
月旬間。王世子加元服為參慶會。耳中堂曰卞君
與天津諸局員熟悉。偕往照料甚好。且曰國玉厚
遠不可無回禮。而此間難以備辦。送天津備送臘中
起程。可否對謹遵尊命。

是月三十日督署談草

與別道員

中堂先使通詞傳言 國王禮物使臣所送不必番
番有之彼此貽弊不如省事此後置之爲好仍始筆
談中堂問前年我與李裕元密書何以傳播日本刻
出新聞紙我爲貴國代謀名正義順何畏乎日本但
自洩情實於貴國不利耳答我 寡君爲是懂 今
夏游歷朝士之往日本也 諭令到底發明日人頗
釋初憾云問如何登答詳晰見告毋隱答日人亦憑
傳說未嘗見原本朝士之去日人有問書函事答以
中堂書中聯美事有之至於事涉貴國初未曾有此
必奸細之徒欲問兩國之好做播謠說此未答之所

以作也日人稍解前惑不如初頭氣色云問八月間
安驥永輩如何作亂聚衆若干荅同謀者近四十人
方欲募兵起事爲徒中人所告次第就捕得情問派
往日本之趙秉鎬李祖淵是何官職李祖淵係國
王同族否荅趙秉鎬官禮曹參判李祖淵現任機務
主事俱係國王親信之臣非同族也問修約議稅則
底稿曾見過否荅曾見過而稅則姑未敦定信使此
行爲議定稅則問趙秉鎬等已於十月廿六日由日
本起程回國擬於明年三四月奉使來津稟商外交
事宜確否荅領選之行距信使發行不過一月之間

伊後信息更未聞知問六月間鄭大人交李應浚帶
 呈密議辦法甚妥貴國果允行否荅鄭大人密議實
 稟中堂旨意代籌詳密 寡君感珮無已中堂曰魚
 允中在津接晤兩次論外交等事甚詳據云歸告
 國王矣使臣等問魚允中何時抵津候謁歸時由旱路水路中堂所答如此問使臣趙秉鎬等回國之信
 何以入聞否荅中堂頃何星使函稱趙秉鎬等與日本
 議稅則不成擬明春奉使來津再商與美摠兵議定
 條約稅則日本自不能獨異甚合機宜問使臣蕭孚爾
 與書斐路為兩人否現在何處明春來津否荅中堂即
 是一人自去夏來津見示該國密旨與朝鮮結約五

四

事因貴國尚未定見欵畱至今若明春貴國仍無確
信彼決意回國矣余月初由津啓程時屬美摠兵住
至來春余回津時再議該摠兵唯問中堂去秋帶回
毛瑟鎗後門鎗弁兵知其用然否答別道願解使用矣
問別道何大人書中云俄事不如去歲之急何謂耶答
答中堂俄約已定言歸于好故何星使謂其事稍緩然俄
使十月初自其國過津晤談亦求與朝鮮結約余答
以緩議不獨俄也英使亦向余屢言之皆婉詞拒阻
竊見美摠兵蕭孚爾人極和平美國又無貪求要挾
之意是以欲成此舉也卓子展示我國地圖詳問通

商各口要害以紅墨點開港處問各國人皆言通商
港口永興最好云永興距德源幾里荅鄰境而永興
有先寢所重故不許開港問釜山開港亦係新設
否荅釜山自壬辰以後仍爲許和通商但規模盡變
耳問所變者何事荅前日日本番館人自嶺南輸米
餽乏名下納米今皆革罷一直賣買而已問自貴國
向日本惟有東萊一條否荅湖南沿海固城等處皆
可直向一歧薩摩等島問對馬島今屬何國荅屬日
本問元時再攻日本見敗而還知之否荅知之問仁
川距王城水陸幾許里荅水路迤由江華近二百

里陸路一由旬有餘指幸州項而問曰此距王城
幾里荅十里遠近問江水深廣如何荅廣可一里最
深處數三丈海潮出入驚問曰然則輪船無慮往來
天津港口甚淺不過一丈水各國兵船無難出入况
三丈之水乎大有憂歎之色曰輪船曾無來礙之時
乎荅丙寅年法國船一隻來至此處船樣不大若大
船則不可入矣問伊時貴國曾無騷動否荅安得無
騷動問國內沿海地面曾經行歷否荅未嘗行歷微
笑曰讀書不曾出門別遣曰北道沿海往嘗一遭游
問俄人所在土們江卽豆滿江距何地最近荅六鎮

諸邑皆距不遠指會寧而問曰此是與中國互市處乎荅曰然問中國何處人赴市荅吉林兀剌渾春等人或皇城商賈亦出來問中國商賈出否貴國供給朝夕其費皆歛於民間果然否荅果有是事問此是弊風可以革罷荅商賈出來者亦非多人且自前已行之例別無爲弊問罷則罷之何難之有其費官亦分當耶民間全當耶荅官民分當行之已久不必革罷問貴國多山必產石煤荅問有之姑未采用問何不采取一爲民間柴薪之用一則賣於各國來船必獲大利日本船石炭何以繼用荅彼國隨之載來

而用問貴國曾向日本講究采煤之法否答曰本人未嘗不自請而弊邦每事專仰上國擬從近送人上國學徒未墾之法故姑未許也

十二月初一日督署邀飲時使通詞傳語口談

從事官昇別選同入時游藏園及布政使崇駿辨鎮青按察使方大浚并葡人史觀察克寬松園在座

中堂使通詞問貴國有何土產否答土陔民貧別無所產惟衣食所需僅支自給而已問人蔘爲貴國上貨何不多種譬賣他國答人蔘多則價隨以賤問東國亦養蠶織帛乎答然問多種桑樹乎答然問以綿絲賣他國則可得厚利貴國綿絲一斤價錢幾何答

銀子一兩有餘

因西山郡綿絲一斤
價至常平十餘兩云

問比中國價太高賣買無

利棉布何如荅國中衣服皆藉於是問棉花頗賤否

荅然問紙屬何如荅三南種楮造紙問亦行賣於中

國否荅然問此外又有何土產否荅別無問貴國所

產真個稀少產茶葉否荅全羅道沿海或產茶問國

中首富資產幾何荅貯銀十萬兩為最饒之人問若

此者幾荅無幾問王城大小幾許荅周四十里問

王城周迴不少矣皇城周迴不是過也荅皇城有

內外城王城祇是一而已問輒築乎荅石築問以

大石築之乎荅不用大石上用小石問王宮大小

答畧七里周迴問 王宮亦不小矣堂室大小與此
間屋子何如答比此間稍少問多瓦屋乎答 宮殿
公廡覆瓦民屋多葢草曰此間亦然問從事官何年
進士答癸酉進士問進士三年試取否答然問取
幾人答及第取三十三人進士取二百人及第稱大
科進士稱小科問所取之人皆入仕籍乎答大科入
仕小科或仕或否問然則徒得進士之名而無所事
乎答往有老於進士者問貴國亦有恩科乎答然
問詔勅畱館幾日答三日問詔勅出太時禁士民觀
光果然否答恐致雜還喧鬧故設幕嚴禁或得於白

八

問窺望問雷館三日之際四謝國王否荅詔勅入
來時國王出迎十里外與勅使同入宮宣詔畢勅
使出住館舍國王每日出見又遣重臣三時請安
曰勅使體重矣問迎勅時貴國有贈遺之銀云其數
幾許荅無過幾百兩此是古例也指余及從事官并
曰此三君將住津局習用官話為好荅聰明衰鈍恐
不能易學問泰西諸國皆能漢語此諸國中最易學
荅謹當留意學習矣問貴國能解日本語否荅亦
有學習者苦無精熟者耳問貴國公私文字用何文
荅純用漢文問無國書乎荅有之惟婦女常賤用之

問日本國書亦解麼答此亦未有精通者問天津紫竹林各國所會將與各國人相從否答小邦姑未與各國相通恐難往來曰不必相從泰西人專欲探知他國事朝鮮人雖不相通彼亦不以爲忤別遣問學徒中欲擇聰明者習各國語學雖不相通亦有可學之道否中堂答東局設語學局年少聰悟學習者甚多不患無師也但須二十以內者爲可過此則不能別遣曰二十二三歲亦可乎曰尚可爲也年至三十則不可學

十二月十九日再至督署談草

問還天津伏承通詞張洛用便
內下封書有稟商傳相事復

作保定之行

李中堂以筆談問曰游道游智開也示貴國王書意

並閱公書稿均閱悉何以公等出境時未先商定不

久又有此信允曰允植辭朝時大畧既承命意

以國勢民情仰稟酌議故向有所仰陳者矣此次專

信想美使之尚留今始入聞又以俄人致書邊臣

雖始未受多應是求好之意却之亦難受之亦不無

商量故欲先妥美事者今番亦無公文然李應浚所

齎書以待領選使面剖即公文也李曰前已告知俄

使十月初過津面稱欲與朝鮮通好頃又聞俄人擬

於明年夏間派兵船前往屆時恐有他國隨之而太

可惜李應浚齋書到時 貴國未能遽定立議立遣
員來津與美使商議已失機會昨聞美使蕭孚爾奉
到國書已赴北京諒駐京各國使臣必共聞知將來
議約恐不易就範耳 允 曰俄人事項於席間陪話時
既已聞命敵邦不及南知矣若於夏間來到則伊前
先與美使議約恐不為晚但美使之遽奉其國書赴
京聲張起來實有將來議約不能如意之慮機會易
失可惜之甚 李 曰向來各國議約必有全權大臣憑
據朝命互相看閱始允商辦閣下既未奉公文是無
此憑據美使未必與商 允 曰敵邦事勢雖不得不聯

美事成之前不欲露出公文顯示國人以邀來之意

寡君之意則鄭王軒

王軒即鄭謙如

書中所言自此酌議派

員出送則

寡君預為密飭於沿海守臣勿大驚小

恠船到近港委員會議一邊彈壓一邊修睦無所不

可允植既未奉全權之命雖美使請與會商義所

不敢

李

曰王軒書原請

朝鮮派官來華與葡面商

則本大臣可居問詢停較易操縱若朝鮮無人與

美使議論竟是中國一面之事美使既不見信亦有

難於措詞之處顯示顯示國人以邀來之意實未明

萬國交涉公法凡不願通商則壹意堅拒既可議約

則必各派全權大臣若議不成雖一兩年再三往復
自無妨也允曰若依各國之規必派全權可以議約
則須令急發一函奏達於寡君但恐國中事勢不
能如意是可悶也李曰昨接薛斐爾自著本月初四日
來書彼擬西曆五月初一日乘兵船赴朝鮮中曆貴國
如尚遲疑不早派全權來華本大臣實亦無法阻美
使之行允曰若兵船一到雖云匪寇昏媾不免事多
阻碍允今將歸津即發急使願明示方便海關道即問
或游藏園自游以此意致書敵邦政府錄送美使書一
通囑令派員來商帶有全權字樣事乃可成云云允

亦將倘達此意以俟 寡君處分矣 李曰辭書請即
照鈔密達寄太津海關道台於 貴國政府尚未通
問恐未便多瀆裁國則未知何如 允曰謹當如教而
故邦自來不諳外交情形果以日前橫議爲難若美
國兵船出法云則一邊議論必有坐而待之兵到後
議和未晚云則全失機會爲之奈何即欲以此意專
報敵邦而若派全權則事涉張大以敵邦人心之叢
二恐難趁期來議反貽他邦之羞 允雖未承全權之
命先於此處與美使一面以示傾達之意開春後
任其東出即當議約便是邀來之意未知可否 李曰

昨已緘復薛使請其來保定一商據關道報稱薛使業於十七日起程進京未知其果由京赴保定否如來此可就與閣下會面道達貴國日下人心囂々之情勢及傾慕友邦之誠本大臣再相機開導勸其少留津門以待 貴國後命但聞薛使與關道密談欲照日本條規成式則事殊不妥且若聯合俄英諸國偕往更慮激成事變倘薛使即來執事或遵 貴國王密札變通權宜另擬全權密旨一道給與閱看以堅其信在此將約稿議有頭緒較在津各國交証已僻靜多矣 允 曰權宜另擬在他國或有是例否敝邦

則行不得此何等事而允植敢擬全權 密旨乎若
與美使在此一會道達情意以緩其東出之事則儘
好一邊死奏本國須奉有全權之旨然後事而正大
耳美使之欲照日本條規者指稅則而言耶稅則尚
未歸正未知所照何事否 李曰彼所謂日本條規想
係初訂之約稅則尚未議定何從援照薛使人尚公
平吾勸其增訂稅則 允曰以若公平之見欲照日本
條規者豈緣敵邦以此事延擱故少變其好意耶 李
曰嚮在津會晤時未曾談及和約如何議辦只說要
公平耳今彼既奉全權之命未有不欲見好本國者

其云照日本國條約之言不得不爾吾嘗設法勸導
之但慮貴邦既多延擱各國互相交通俾雷長智
事未可知此事須趁機會佔先着也允曰今欲急發
一函期於正月晦內或二月旬前得奉回音尚未過
晚否美使或當來此允植姑雷俟一面為可耶并乞
明教李曰即可照辦若貴國另派全權來津仍作
為照料學生臨時相機辦理較安外間不至張揚允
曰謹遵寡命以此意專達于寡君矣談草乞暫借
欲歸寓騰出以為遠外信蹟李曰騰就望即將原稿
封還此來帶有幾人能分派回國開寫各條即繕給

護票允曰此來所帶者通詞外奴子二人伴倘一人
伴倘奴子一人而已自此急發一使則卡君想離京
不遠可以追及李曰請轉達 貴國王暨政府如卽
派全權於二月初旬到津吾必從旁爲力俟議約稍
有眉目奏明派員同美使前往近港再行畫押定議
若遲逾期限只好聽美使自去矣允曰請便告退還
寓裁函速發專足以及卡君之行自此至山海關以
內雖無憑票庶可無碍但恐不能速馳耳李曰明春
開河較早計正月廿外營口即通輪船來使就赴營
口搭舡到津僅二三日尚可以速補遲允曰但速派

使不患不及謹當力奏無失此期因揖辭而出

是月二十六日督署談草

中堂問卞元圭何時由京起程對初擬於今日十九
或二十日起程云矣姑未聞到京信息未知果能如
期登程否問貴國派有生徒往日本學習何事對未
有派送學生於日本之事日人方畱住王京故使
兵弁往學技藝問送去兵弁若干已否前往何項技
藝對春間選送八十名八月又聞有加選之命所
學者先習步法次習鎗砲教師姓振本而所學不甚
精微云問余知日本步兵仿法國操法聞尚整齊貴

國派人往學甚好對彼既屢懇難拒好意中堂倚書曰白是好意且彼
 方雷館無事故就遣學習然友誼敦則斯疎 寡君
 常欲邀上國教師教人授兵弁技藝勝似請學於日
 人中堂曰似無不可對請學於上國面勢也好 寡
 君期欲圖之間派往日本學習之兵弁交何人管帶
 用何器械對所選兵弁原屬武衛營現今武衛都統
 使閔尚書台鎬帶往學習者韓聖根尹雄烈器械則
 允未嘗目擊似是日人所用鎗砲矣問貴國舊器械
 全屬無用既學西洋兵法則新式鎗砲斷不可少稍
 有儲倘否對西洋鎗砲未易多得自國中雖有仿造

試可而已恐不中用稍稍振作然後乃可言儲備耳
問昨接美使薛斐爾自京城復函云如遽赴保不免
動人聽聞種二不便約俟回津面談是閣下可先回
津專候來春貴國朝命如何對美使做事鎮密可
喜第欲一面者為彼此通屏而已今已畧相照領矣
遽相接允即當還津以俟敵邦回音允曰此事無論
差早差晚想究竟乃已約條宜豫為講究停當謹齎
議稿三本一李中堂所送一黃參贊連憲所送一機務府
參謀官李東仁擬呈本及日本修好條規
謄本或可塵覽否中堂曰望見示允曰茲有在寓荒
謄之本敢呈中堂曰李東仁所擬藁本語意頗為簡

括但美使未必盡允第七款派駐官員通商章程俟
五年再議尤恐難行約內似須添一條大意云朝鮮
久爲中國屬邦而外交內政事宜均得自主他國未
便過問方覺不觸不背專意以爲何如對雖有擬稿
敵邦原無閱歷未諳便否故以此仰稟商酌無致異
日深悔此 寡君之意也派駐及通商事彼若堅執
亦非例外之事恐難終拒但與日本修好時係是期
行期開不免事事相持今則稍異於前然日本公使
駐京一欵至今在未許中彼自托事來留耳未知開
春敵邦派送何員來時承 朝廷命意如何俱未敢

質對惟敵邦在中國爲屬國在各國爲自主名正言
順事理兩便條約中此一疑添入似爲極好問余所
以預料美使必不允五年後再派駐通商者緣薛使
在關道處已言須仿日本約稿將來縱不能事事仿
照但日本久經派駐通商美人豈甘獨後且恐貽各
大國笑柄也卽第十款之不立教堂十一款悉照萬
國通例亦有難行美國耶蘇教向不滋事中日訂約
皆未能照萬國通例豈獨讓於朝鮮耶至另款聲
明中國屬邦前已與魚允中商定彼必回奏耳英使
前詢及朝鮮議約亦與泛論及此渠亦謂應如是

對擬稿雖如此派駐通商之限以五年者彼未必允
敵邦亦有日本前例惟當仿行而已惟不立教堂一
款不容不力言他日聞見漸廣宵次稍豁則未可知
也惟今則實難許立且敵邦之望於美國者以其和
平無乖僻之性欲保始終友誼而以若教堂先失民
心實爲可惜雖云耶穌教本不滋事愚民安和天主
耶穌之分耶悉照萬國通例者欲得公平之分耳若
未得公平之分則又安有衣裳議和之本意乎末段
事外面與裏許均爲極妥竊想寡君入關稱善感
謝也問不立教堂一節言極有理竊就貴國時事揆

之實多不便余必與美使力言之前說係默揣其意耳但能堅拒或不因此節誤約事萬國通例通商口岸及內地無論何國人民寄居皆歸本國地方官管理東西刑律風俗禮教未可強同是以地方官未能兼管他國人民日本現欲與各國議變通舊約無成者職是故耳此一節各國必不能行對黃參贊已以此有所論著於擬稿中竊念西國通例他國寄居人民歸本國地方官管理惟中東不然西人謂之不公然抑其事勢然也况敵邦素昧外情雖使兼管他民實多難便之端若日本改約中國亦改前規則敵邦

固當隨而改之約秦中先依黃參贊所擬立言似宜
 教堂事伏望另設方便務回彼意實為敵邦之萬幸
 中堂曰黃參贊原擬第四款暫許美國領事官管轄
 較虛活第十款查照改美公例定立關章較著實又書其備
曰此二款甚合情理立言精確將來議約可即用此兩條改擬之第一款太
 覺渾融美使恐難允行教堂一節貴國使臣必應詳
 切辨阻余亦當從旁道達國人疑畏之意對謹已領
 會問閣下還津照料學生余於正抄想可抵津屆時
 看美使動靜若何再行奉告對既在此無幹則今已
 天晚明曉即程歸津恭候節旋進謁筆譚中堂使

通詞舌問曰貴國產茶耶對曰全羅道沿海往三產
茶而國人不嗜茶故無以茶爲業者又問養蚕否對
曰養蚕中堂曰泰西不能種茶與養蚕多種桑茶可
獲大利速達貴國王傳諭國中多種桑茶爲好又
問畜羊否對曰犧牲供用之外別無取畜中堂曰貴
國多山牧羊極易貴國之民何其鈍於趨利也日本
近買羊於中國及洋國數萬頭畜之余問曰敵邦蚕
絲脆劣恐不能售於他國中堂曰無傷也中國關東
山東等處蚕絲亦劣不能織造錦緞洋人亦爭買之
爲其入用於毯氈之屬且轉買於各國也

附錄鈔上談草封書

臣竊伏念美使既以全權出使奉其國命早晚議約
勢所難已約條不可不豫爲講定而有難懸空說去
故下送議稿三件合勝一冊指示某、所擬拜日
本修好條規勝本出示李中堂請商酌可否中堂一
看披覽後不論自己所擬但論黃李二稿先說李東
仁所擬頗爲簡括而第七款派駐官員及通商章程
五年後議定尤恐難行此在問答中而臣伏念派駐
官員一事往在與日本議約時我國以此相持然此
是各國之例議約後最先務也若不派官互駐情意

大

一向不熟與不和同我雖不往寧能禁彼之來駐乎
曾於日本雖堅執不許而日本則來駐自如今於約
美之後恐難更申前說徒傷事體通商章程一事各
國議約專爲通商一款若待五年議定其間憑何法
例我國於日本議約之時不知裏許不定稅則六年
之間所失不抄已爲各國之所竊笑豈可再蹈前轍
乎此事非徒彼所不肯在我自謀恐不當如是不如
初頭議立公平章程如有未盡處則照他國例限年
追改未爲不可此二款李中堂所去難行者似非謬
見又曰第十款不立教堂之難便臣旣以書以談力

言不可中堂亦以爲然當從旁力勸云且在談草中
又曰第十一款悉照萬國通例亦有難行中東訂約
皆未能照萬國通例豈獨讓朝鮮耶臣之所答具在
談州中而中國日本用兵後議約故事多未洽今審
以好意修約何獨不得萬國之例乎不過烏鴉小不
能優占地分耳然在我不無可言之端縱未能件件
滿意恐不宜與用兵後議約同例也但我國所得見
者惟中國與各國相通之案規而已不知萬國通例
之如何只以稅則一事言之泰西諸國則似用值百
抽十或二三十之法而中國日本則至今用值百抽

五之制此其用兵後議約之害也今次不必照其例也又論黃遵憲所擬第四款暫許美國領事管轄較虛活第十款查照改美公例定關章較着實已上亦在談州中而虛活者外樣甚好而裏許則從其事勢之便也着實者緊着而有實利也於此二款大加稱難連稱好好加圈於傍蓋美其深中機宜也以此觀之查照改美公例定立關章云者卽與悉照萬國通例者何以異焉中堂所以斥彼而扶此者以汎稱萬國通例驟看則甚大而汗漫無實不如黃議之較緊也故云將來議約可卽用此兩條改議之改者改李

東仁所擬稿之謂也又曰第一款太覺渾融美使恐難允行此指黃稿第一款朝鮮奉中國政府命云云若如是則美國亦渾入於中國命令之中故彼必難允者也臣謂此奏五言非徒美使難允在我亦欠自主之權恐難仍用又曰約內似須添一條大意云朝鮮久為中國屬邦而外交內政事宜均得自主他國未便過問方覺不觸不背臣之所答亦具在談草中此亦黃氏所擬奉中國命之意然特其五言不侔耳我國之為中國屬邦天下之所共知也常患中國無着實擔當之意以若我國孤弱之勢若無大邦之作保

則實難特立今李中堂即中國掌兵大臣也幸而擔
去我國之重毅然自任既已聲明於各國大書於約
案異日我國有事若不竭力救之必貽天下之人笑
天下人見中國之擔任我國則各國輕我之心亦從
而沮且於其下以均得自主繼之是則與各國相
交無害用平等之權矣不觸失權之忌不背事大之
義可謂兩得中堂此論大有益於吾邦故屢々稱謝
伏未知何如右斯論諸條皆係約條之大者其餘均
屬例言別無可論茲敢附錄以備 乙覽恭俟 聖
裁明春或有派使之舉須奉有 成命庶幾臨事無

碍竊伏念議約大節不可隨意專斷又難遠外取

稟臣不任預切憧憧

是月二十八日永定道署談草

游藏園名智開現任永定河道

主人曰兩奉保定所寄手書具悉和議總於明春在天津定妥爲是加以全權自是正大廿六日稟辭傳相當又有一番籌畫顧聞其畧客曰茲有譚草及美使書呈覽此行業欲仰議茲事暢聆高論主人良久觀閱再三及覆書示曰不止教堂此條宜堅拒之在中朝爲屬國與各國言之則爲自主此條說得極爲得體其餘均可相機行之閣下此行已得其要矣客

曰中堂所教一條大意為頭腦黃參贊所擬兩條為
肯繁不立教堂一款為敵邦目下最先要務其餘猶
可照例立約未知敵邦朝議更當何如耳至人曰所
可慮者通商事國人皆曰不可竊意此等大事務須
明明白白反反覆覆愷切開導俾上下大小臣民咸
曉然於時勢之不可拘執如盤庚遷殷之煞費苦心
則得矣客曰我寡君用心之苦不減盤庚但小民
狃於故常大難變化今古一轍若議和而無通商之
利則是慕虛名而受實害也是切憧憧主人曰務必
大誥於國方能內振朝綱外禦強敵古未嘗上下

不同心同德而能立國者此事自在執事之力言于
貴國王耳客曰允職卑人劣不足有無我 寡君
恢弘聽受之量不拒荀彘但此事不待力奏而蚤已
往來於宵旰憂念之中方以誠意開導不大聲色終
必有歲計之效耳主人曰 貴國王乃大有爲之君
智聞所言諒必不以爲妄惟仰求 鑒區區之忱而
已客曰聞下之爲敵邦謀忠至矣敢不拜嘉談草見
借謹當專函啓達矣主人應諾只給自己談草客曰
遠人當此歲暮舉目無親如樛驚戀主木厭百回飛
來此次又迤路歷拜轡：聆教至見燭跋濼用不安

請祈新年鴻禧主人曰爲王驅馳客中度歲諸凡望
自保衛

壬午正月初十日天津海關道署談草

與首堂李應
俊同入

周向李君年幾何何號現官何職幾時由京到此卡
君幾時啓程回國李答卑職今年五十號相庵官居
鴻臚寺四岳去年臘月二十八日到北京今初八日
到此卡君昨臘二十五日在小凌河相逢周問閣下
去年與大家分先後行耶抑到北京復回本國而又
來耶在津能常駐否李答早分先後而行也今月底
回本國再未津常住耳周問去歲十二月廿三日聞

有人回國今正月李瓊等又去大約二月底當有的
信來金答想二月必有回信今次李君之來又奉到
寡君手札辭音與前無異大畧敵邦物情斷不可
先派員來由美船自公爲好另有錄呈可賜覽否周
曰謹將此意及來冊寄保定俄國有書來不宜屢拒
以好辭荅復而已日本性狡此時但其力不足耳然
貴國與中國一氣彼自不敢輕動全日俄書之四次
退却亦已過矣此後來書 飭令受上但恐俄人托
以旣通書札不時來泊遽欲議修好通商等情事或
有窘迫未能妥善之慮耳日人之性如婦女難遠難

近此次數條語甚覺憤惋。聞曰：昨保省有書來言中堂正月尾到津，但未定準何日請李公不必往保定。候中堂到此見過兩面，得端倪再回國，不違貴國若許美船到仁川港口甚善。惟慮議約一節，彼此意見相去太遠，而中國又無人在仁川幫忙。約成或不吃虧，約不成更多後慮。愚見就金公在此，或二月有貴國人來在此密議。大約派全權大臣到此一節想甚難行大概使美使曾甲有幾分可成，打算再聽其乘船而往仁川也。似於事機更順，不見日本乎？日本與各國所定之約並不甚好，即貴國去年與日申議修而未成之約稿亦覺不甚周。

到惟此事宜機密遲則恐漏毋論貴國二月有無全權大臣來天津密商此事至多不得過一月工夫全曰李君行止固當依教爲定冊子所錄幸望因便速達亦望大人攸助若遂寡君之意則甚幸甚幸摠之敵邦不便先派議約之使卽敵邦物情實難強拂故耳

是月十八日周玉山談草

周曰美使乘舡到仁川勢所必然耳所慮不安中國昔年用兵所訂之約大爲吃虧現觀日人與各國貴國與日人及此次日人貴國欲改議約稿皆不安當

前年本國與巴西換約從前日人與本國換約卽非
用兵時所議大概可知也現美使意中所必求者幾
件貴國所必不能者幾件須見面問過方可代籌否
則不必空言也貴國與中國一氣將來邦基鞏固外
人自不敢輕視且貴國與他邦議約本朝應得與聞
若援昔與日議約並未與聞爲例或他國將欲繼日
人接踵而至一概按日人已成之約後患何可勝言
此時本朝以主少一切未敢輕動然日日講求安和
十年廿年之間氣像不迴異耶倘聽日人之謀是認
賊爲子本朝何利於貴國而有壞心待之耶中堂

何曾勸美使不往何曾要彼此定在天津議亦因邦
交情誼故耳竊見前日說帖有獨立半主之語故放
言及之請察允曰大人於敵邦事情終有所未盡諒
察矣敵邦自古慕華慕義仰庇上國如幘幪覆情况
今委弱已甚諸國窺覷之時敢以自尊特立爲計有
是理乎是不爲也亦不能也往者與日人與議和時
舡泊港口事急無暇仰聞故伊時事過之後卽發私
咨據實轉奏今次美國事卽敵邦通洋之冊例也爲
國論攬貳縱不能止彼之行實難派使迎來旣經許
好之後議約通商諸般事務一聽中朝處分奚止望

聞而已乎向者獨立半主等語卽日人構向之計敵
邦原不以此動心豈不見諒耶若美和自出知議約
誠恐未安此所以縷之仰祈方便設法俾無受屈者
也周曰本無不見諒竊細繹前說帖似以議約難辦
之爲輕而爲乘和通好易行之事爲急若此向故留
美使者譯意未暢是以傾吐勿以爲實話又曰議約在用兵
後與未用兵前本迥然不同然東西之勢頗不易說
又曰魚允中幾時回國想李應浚來時當見過矣允
中曰魚允中自天津由上海還走長崎島與信使同爲
復命在應已發之後故不得見過耳周曰魚允中前

在此請本朝開海禁與貴國通商本是因時制宜辦
汰然必貴國先奏或咨請總署及北洋大臣代奏方
可議准能先奏否有所聞否當今之時外來生客日
多防維不易與舊相識之人更要親切方於事體有益
也此言譬得中理否日人在貴國恣肆聞者無不切
齒因只有兩家若有他人幫說不至如此如人入市
中不能說大無禮話以人多故也允曰開海禁事謹
當隨便 奏達諒敝朝廷必無異議此豈為中國商
民之地耶古人云數見顏面情重昔時大小邦相字
之義日以益親此敝邦之所願聞也市中不敢恣語

之教譬喻切當東諺云無虎洞中狸作虎政類於此
周曰先開海禁有中國官商在貴國暗中幫忙庶免
外人許多猜嫌耳又曰此間諸人有送貴國王禮
物一月後可到望赴便雇車與信使同路發特此先
聞

壬午二月十一日與許凍文談草畧

凍文名其光登科入翰林今調機器總辦

凍文問自海關道有信來否荅姑無信主

駐東局年五十餘人曰想一

半天有信來聞中堂已接見美使荅早晚必有信主
人曰貴國民心亦惡日本之人否荅小民無端切齒
常恐生變主人曰日本可伐

時主人半醉面有紅潮故放言

又曰中國若伐

日本貴國能出兵相助否。答元時遣將伐倭，敕邦金
方慶亦率兵隨征前。明時敕邦被倭患，明朝傾
天下之力以救之。上國若有致討之舉，豈敢顧友誼
乎。但患力不足耳。主人笑曰：戲談耳。大抵日本兵力
財力不足。深慮答曰：人最可憤者，輕侮中國。近與敵
邦外若情好甚篤，然其實欲攬東洋大權，跨中國之上
也。主人曰：美國在泰西諸國，兵力最弱，且爲人和平
雖與貴國通商，斷不致生事。答：近來事惟視強弱不
在公法，然小邦自守之道，惟在謹守公法，無失言於
他邦爲可也。而敵邦人視公法如邪學，不欲掛眼。主

人曰萬國公法亦非諸國會議定法乃參量時勢如
六國時合從之說假使孔孟復起不得因時制宜但
辦法遠勝蘇張耳。答者來日人所爲多不滿意悅
洋人之道盡化其鬚髮衣冠典章法制但恨不能日
浚鼻高耳且百年以來頗尚文風今則掃除文字專
習洋文是秦政復起也東洋山川亦有神祇必不樂
此舉措也。主人曰彼國亦有文士能言其非彼稱仿
趙武靈胡服之義以琉球爲中山而滅之答曰本滅
琉之舉天下尚無公是非乎。主人曰往年美國伯理
璽天德游歷至日本語琉君復國事終不見答由此

言之曰人之不憚美國亦可知乎荅曰人之悍然滅
琉者恃其諂事西國彌縫多口也然則萬國公法亦
不足講也主人曰楚人縣陳宛亦復之荅踐田奪牛
久假不歸安知非真有之乎主人曰魯衛在春秋時
最稱弱少而亨祚過於齊晉貴國雖偏小惟勤撫其
民訓兵務務農通工惠商無害於歷年之久遠孟子
之告滕文公曰與民守之又曰勤爲善而已保邦之
道諫不外是荅曰孟子之言亦出於無奈之辭耳譬
如稟賦羸弱之人節省慎攝其享年多於強壯之人
此理信有之然畏寒怕風何時當舒氣抬頭問丁提

主人

督外貌已是魁偉可知。赴干城之才，習於水師。未將陸軍否？主人曰：向帶陸軍，最稱驍勇。水師於前，李初帶曾赴德國，駕駛新製磁快船來津，與劉銘傳周。盛波諸人何如？主人曰：劉固宿將，而名位已貴，駕馭殊難。此君尚無氣習，易於驅使。近日中朝用兵，節制彷彿前。明文臣統制武師，聽其指使，事面最好。主人曰：文臣素無服衆之望，亦可駕馭乎？見今曾公國荃及李左兩中堂，亦無服衆之望乎？主人曰：此三公迭掌兵權，宿將多出其麾下。今曾公告病，閒養左公年踰七十，惟李公尚強壯。客曰：李公亦已滿六旬。

筋力豈能常健繼此而有可屬代者乎主人曰川督
丁寶楨督張樹聲可繼也客曰曾聞駐美公使鄭
玉軒有器局此人何如主人曰姑未經試客曰近見
淮軍平捻記李傅相指揮諸師持重決策不減趙營
平主人曰傅相常自言平捻之功專賴劉銘傳然防
河圍之策始終不變寔傅相之力也客曰牽制流寇
之策莫善於此前明時若用此法豈至蹂躪天下
乎但明時委任不專雖有良策無所展施以此觀
之不第傅相之功實朝廷之任人不貳處置得宜耳
主人曰七八年之間凡兵餉防攻之策言不從宜傅

相之成其功也。客曰：傳相之勞苦功高如此，緣何民

心尚多不服？僕來時過邦，均店見壁上所題詩，以傳

相之通洋和俄，至此拳擗不亦過乎？僕嘗戲次其韻

因錄示次韻詩。古來車戰轉為馬，能讀書宜知合度。老成方畧還持重，白面坐談國富今惟數海航。急投刺豈已膏肓，連養王師且晦光。聽之盈耳

天下事儘洋至人見之大笑曰：足為傳相禦侮。亦錄示已詩

其意專在於日俄詩曰：滾之中原聽鼓駭，六國勢

連雞才名似餅，都能說秘計。如饒不敢題伺隙，卞莊

工刺虎失時，溫嶠忌然屏。言不可明白本秘計，如饒不敢題之意。晶瑩三尺昆吾

劍，南面還須手自提。言方今主少未敢辭是用兵，異日自有聲討之時也。客曰：他日皇上

春秋鼎盛，亦須觀勢觀學，俟時不得已而動，未必牽

於浮議輕試昆吾之劍主人曰尊論誠然遠人不服
修文德以來之未聞黷武漢患匈奴而呼韓之朝不
因兵革客曰亦由武帝屢創而匈奴運衰之故主人
曰摧枯者易為力客曰今聲討日本必有師名烏琉
球問罪耶主人曰琉君尚在日本其臣來此久為包
胥之哭此須有究竟客曰向聞琉使或死或還今尚
在否主人曰琉使一人今在上海春間復來津去客
曰其情甚悶迨中朝亦極難處客又曰向見申報大
書中國欲伐日本之事無乃使日人見之而知畏耶
何其不慎樞機也主人曰申報本多張謊彼亦見之

亦不准信

是月十七日天津北洋衙門談草

與首堂李應浚同入

中堂問李應浚幾時離王城應浚曰去年至月廿七離京中堂問問以何事入京浚曰爲見年貢使臣中堂曰年貢使官幾品浚曰判府事正一品大臣猶中國之中堂也中堂曰然則出疆踰年相府事務盡爲廢曠否允植曰議政府尙三事雖一人出疆無曠務之理自古奉使中國必遣一品大臣例也中堂問李應浚曰年貢使臣應知美約事浚曰不知中堂曰他不曾問過否浚曰不曾問亦未敢說中堂曰爾國

事何其秘密也。備是小官也。國家大事，豈有小官知之而大官不知之理乎？觀其辭色，似是認年貢使方在政府而不知國家邊務，深為疑惑。余對曰：年貢使臣不曾過三事之任，每年進貢時，相臣無幾人，故就列卿中加啣奉使，亦自古有例。中堂曰：然則今之年貢使現居何官？允曰：前任工曹判書。中堂曰：今已解任否？允曰：今已解任，特奉使命而來。中堂曰：何不早言如是，使我疑惑不定？中堂問向曰：專人送函，有回信否？允曰：姑沒有。中堂變色曰：是何說也？

以上口談使通詞傳言比以下

筆談 中堂問李應浚曰：汝奉國王面諭，是何事？浚曰：

寡君以國論未定諭汝仰稟中堂善圖方便也中堂曰此次亦有貴國王手札否可呈閱因使李應浚移椅來就允植之傍漸看其辭氣峻厲允曰此次亦有宸札而在東局未曾奉來中堂曰國王手札不曾來示面商可見執事之將命不誠也允曰不敏甚悚然君臣間私札不便呈覽所以不敢奉到也中堂曰書中若有他言不必過問若只為聯美事則何不便之有乎允曰下書中別無他事但寡君函諭中未承呈覽於中堂之教允私自呈獻分所不敢既承旨命此與私意擅呈有異謹當送人奉到

呈覽矣中堂曰 貴國王書函既不來示則但憑一介行人之三寸舌可乎允曰但念自下難便之義見識原不到此惟望教其不逮以示益國便民之道中堂曰貴國事常如欲吐不吐如是而事可做乎派員之來不來非吾所知而吾歷年忠告貴國尚不知利害乎允曰中堂之爲敵邦悉心代籌 寡君深感無已前已仰達允在承教不止一二豈敢曰專味利害之分乎但敵邦國論尚未甯靜 寡君之意甯小失時於交際不欲大拂吾民之情使臣在外惟有奉承君命而已雖有粗知利害豈敢擅便乎中堂曰美

使雖欲勿吝不可得也貴國有洋語洋文者半若無則難以辦事允曰敝邦素無外交安有解洋文洋語者乎通情之際須藉華人庶不致齟齬之弊不知美使何日發船李應浚急宜先送以達美使之奇中堂曰此次中國亦不必派員由他自去允曰李應浚來時奉到宸札是在專函奏達之前早晚若奉專函回信又未知如何派員之不必來亦出臆料縱或不來美船自應依期東出東出後無幫辦之人敝邦初接素昧之遠人當如何應接願加三思矜其不能而無至僨誤允不敏之罪恭俟譴何中堂曰李應浚似

宜候至廿五日乃發何如允曰美使若不待敝邦回音而出公則李應浚急宜先還不可稽留若待敝邦回音而爲進退則李應浚乏少留幾日似爲無妨中堂曰自津乘輪船至營口回國廿日內外可抵王京否允曰假量廿二三日可達中堂屈指顧左右云云似問洋曆日子也乃曰美使三月望前來船七八日可抵仁川李應浚留至廿五如有不及之慮自此專給官大輪船一隻自能速達未知可否允曰專撥輪船極爲感悚然敝邦事眷念周至期欲速達在美使之前唯命是依不敢飾讓臨別以歲時賞給學徒

等銀子及近日加造東局朝鮮館宇謝致謝中堂又
口囑曰 貴國王手札須於今天封寄如有專函回
信立刻示知為可對謹如命

是月二十日海關署談草

周玉山名鏡現
任天津海關道

周曰尚無 貴國回信否余曰今天亦無回使道遠
便濶最苦待人周曰美艸出否 貴國身海口弁兵
得無驚動開砲之慮否余曰蒙中堂先期告知敵邦
非倉猝過之安有驚動之理乎周曰 貴國海港淺
濶無由知得如有 貴國人指導更既到近港須
有地方官應方不齟齬竊念國人指導一節勢似難

便然此非美船之獨吞中國大員奉勅同往則亦不
可以勢難指導為荅故但模糊以荅云受書以後自
可如禮接應斷無齟齬之弊周展朝鮮地圖一幅所見
問海路余曰前明崇禎時貢使由故邾平安道海
口達于登萊州伊後海道復閉不講淺深若由上海
歷日本海口而來則海程似必較遠周與馬羅兩人
諦觀地道指點海路自中國山東省不歷平安黃海
兩道海口由大洋直達仁川之路曰輪船之程不過
四五日馬眉叔游歷各國悉諳海程險易似於我國
港亦已有領畧者故知濟物浦之名又指仁川南陽

之間石礁曰此不必碍舟者去周又問潮長落淺濶
允曰敵邦雖居海中非素業海利者不知其詳但聞
京城近海潮候歌三危三龍水三蛇一馬嘶羊三猿
赤二月黑復如斯之語各處潮候正自不同周曰江
華亦可泊船否余曰江華前洋亦可泊船而江華之
口有孫石項甚狹潮滿則可過潮落則不可過周曰
潮落則水濶幾許余曰潮落後濶淺允未嘗測量不
敢臆對往時日本船來泊江華時亦乘潮過往周問
漢江口亦可泊船否余曰以天津紫竹林觀之濶不
過一二丈而大小輪船無難往來敵邦漢江之濶濶

非紫竹林之比而天津河流緩漫無拳石之礁漢江水急多礁有淺有深輪恐難駛行周曰貴國地圖一本可見惠否余曰苦無善本允携有一本絕大而粗如欲改閱當奉贈余曰馬羅兩公此次偕往敵邦否周曰此姑未定須中堂奏明派員然後乃可知耳

二十一日海關署談草

余日向日蒙中堂示諭使李應浚乘火輪官舡先歸奏達極知感悚然昨夜與從事尹君商議敵邦之尚無回信却不知何故李應浚若從水路而行與陸回信相違則更多難便愚意候至廿五日自此乘輪舡

至營口二日可到自營口至柵門三日可抵自柵至
義州爲一日程義州至王京有飛遞三四日可達
摠不過一旬之_工中路若遇回信還與俱來若不過則
直達京城預講接應之道亦不爲晚未知盛意如何
向日所云旱路廿二三可達以常時之程計耳倍道
晝夜趲行必不踰十日議約大事貴國王必願趲
早八聞必不願晚後得聞李應浚之行雖先美使十
日抵京講究停當尚云太迫况由旱路更費多少日
子得無誤了事機乎中堂特念貴國王懸企之情
專撥輪舡俾便歸奏今更達中堂之命倘誤事機竊

爲不野。余曰：美使當於何日發船？周曰：西曆五月初二日。卽中曆三月十四日。余曰：十四日發船，則何日可抵仁川？周曰：念內可抵。余曰：然則李應浚雖於今晦間由旱路發程，可先美使十日之前輪船一動，爲弊甚大。由陸似好耳。周曰：中堂方與美使爲貴國議約，稍有眉目。奏聞。皇上李應浚出外時，奉約條底稿，及中堂公文，乘舡前赴。此不可暫緩。余與從事尹友相視而議曰：似此則從旱從陸，更非吾輩可擅當。奈何？遂書曰：既有公文所重，中堂所送，允何敢干預。請勿復敢言。周曰：貴國有洋文、洋語者乎？議約緊要。

之務惟在傳譯余曰敵邦素無解洋語之人已於日前稟知中堂矣願得一通曉洋語及交際事務之人偕注幫辦深為萬幸周曰日間閣下進院時面請於中堂可也此次又必奏派大員乘兵舡前赴此非幫美國也專幫貴國也余曰通曉洋語之人久欲仰請而近日緣敵邦之無回信滿心惶蹙不敢更煩他事日間如得進院陪話當依戎仰請矣周曰中堂現方議和約底稿日本之所不允者皆欲允之又有貴國所未想到者亦為補入此實為貴國之為閣下也余曰允庸味蔑裂將命不善中堂不以使臣之不敏

移咎於國悉心代籌俾和約無虧敝邦 君臣暨一
 國之民同受其賜豈獨使臣乎但愧不能奉副其至
 意耳余又曰與美使議約時彼倘無不肯順從處否
 尚曰豈得無之多有缺裂處耳余曰何者為肯從何
 者為不肯從乎尚曰議約數日可定伊時必有邀議
 今未大定耳

是日軍械所與劉蕪林談草

蕪林名會芳天津軍械所提辦

劉曰貴國國史能購一部否余曰敝邦前朝史刊行
 已久板本均屬廢缺 本朝史現無刊行惟代有實
 錄藏之名山石室外間不得購買劉曰貴國自前

明立國之後爲實錄抑近代歟前史刊至何時乞示
余曰實錄自康獻王以後世有修述前史有三國
史高麗史二部劉曰三國史高麗史各始自何年終
於何年余曰新羅立國在漢初高句麗百濟亦先後
立國摠在古漢之時高句麗百濟之止在唐高宗時
新羅之止在五季後唐之時高麗始於後唐末後晉
天福時屋社在前明二十五年劉曰西漢以前上溯
箕聖有史書否余曰猶中華書契以前不可詳攷
箕聖東來之前檀君都平壤與堯並立在夏禹時
送其子扶婁往赴塗山之會伊後世派更不得詳攷

邦權近號陽村嘗入朝前明太祖高皇帝帝以檀君爲題命近作詩云傳世不知幾歷年曾過千太祖亟稱其老實箕聖東來設八條之教一變夷俗班史稱仁賢之化然亦無本國史乘其後世都平壤四十二代孫箕準爲燕人衛滿所逃避地南徙稱馬韓同時又有秦人避亂來者自成聚落稱辰韓又有弁韓之稱是爲三韓其後并爲三國所有自三國始有史然亦疎畧無可攷高麗并有三國其更始詳備劉曰中國史書貴國修藏之家多乎余曰歷代史鈔若少微通鑑曾銑之史畧等書均爲童蒙初讀雖下鄉

小孰亦有之餘外史書藏書多有之能藏全文者甚少劉曰王宮以內藏書多乎余曰此外間爲多劉曰此間周護王德均諸公欲往南省覓廿四全史呈

貴國王可乎余曰諸公向我寡君用意到底忠厚使臣何敢稱謝劉曰貴國王年富英明日本王不及也奮其有爲英斷果敢日人莫敢逞矣余曰

寡君明達局勢早已照破日人之心而彼自用倭變洋專事逞強寡君方欲以柔道御之若以強制強反恐有缺折之患劉曰自治之道在教養之政日修禦侮之資則在強柔相濟余曰高論均可佩服劉

曰日王之可鄙者是在變洋太過見事勇爲勤習教
民之政亦有可取捨短取長不改衣冠正朔亦可余
曰日本之人善變化其國與敵邦慶尚相隣其人^道文
之開由我嶠南儒林之風嗣後購買中華經籍彬彬
多文學之士及聞洋夷之風又突然盡變可謂下喬
木而入幽谷者也劉曰日本內地之民未變者尚多
將來日王之失亦在此也余曰非徒法制衣冠正朔
之改并掃文字日本亦東方文明之區其師老宿儒
潦倒田間者必多憤鬱之志雖云富強未可謂得民
和也劉曰日本之富國債盈千萬日本之強舍王京

之兵皆離心離德所謂富強者乃自誇亦自解也余
曰日人諂事西國西國亦從而函稱之以自壯於東
洋劉曰西國之有識者皆稱日人曰猴蓋猴之性見
人爲亦爲之而莫知其所以耳余曰日人之善學爲
誠如西人所云然若不變其衣冠正朔何至自取侮
辱乎日人之納侮亦東洋之恥也劉曰貴國御用
磁器錫器佳否余曰多用銀器或錫器而磁器則
自司甕院有造進者較中國磁器笨重劉曰國中官
民皆能用磁器否余曰官民所用均多土製之器品
劣色劣亦多用錫器劉曰錫器天熱甚不相宜余曰

果有銅腥雖勤漑濯尚不甚宜口劉曰貴國所產之
茶多乎余曰敝邦不尚啜茶故不知有茶近世丁若
鏞學士博識有奇才因事謫康津見所富之傍有茗
樹始採取教焙用之法自始知有茶今全羅道沿海
山野間處處有之然以素不尚茶之故土民不知
售利任自生自長惟王京朝士家時托土人採來
然亦不能如法焙製劉曰若將種採焙製之法今民
間習成亦可售諸外洋爲民興利亦一端也余曰若
民知售賣之利則雖不勸亦將興行種採焙製之法
不可不教也劉曰萬國治生之要皆不外乎種植造

作四字此後貴國宜留意焉余曰豈不好哉但敵邦
民俗愉情恐難盡興作之利是可問也劉曰舉善而
教不能則勸民之趨利如水走下是在上之鼓舞也
余曰化民成俗惟在尊率之如何謹當奏達於
寡君矣劉曰貴國濟州孤懸海外其地之廣有若干
里屯兵幾何居民幾何乞示余曰濟州地方周不過
五百里古之耽羅國元時以濟州在房星分野置牧
官養馬八敵邦置三縣居民不過一萬五千戶昇平
日久軍制有名無實固無常屯之兵環島多有險礁
小小商船亦不便往來劉曰一朝有事此處可危假

使敵人得之則反客為主驅之甚難余曰此猶中國之臺灣其勢誠如所喻

劉舍芳所言周王諸人將欲購買全史進呈其意誠爲可感劉又云欲購得我國史書一部其意亦難恕然我國前史惟全富軾所撰三國史鄭麟趾所撰高麗史二部爲東方可徵之文獻而高麗史卷帙頗多又無原板見行於世者不過三數件而壞汗已成廢紙不可與人俞棨所撰麗史提綱卷帙不多亦多見行於世三國史及麗史提綱二部似宜多印幾帙贈送諸人以酬厚意爲可高麗史我國之良史也

四庫全書目錄亦稱其體裁得宜而刊本無幾原板不存若過幾年將至闕然無徵實爲可惜種茶售利之說去年在保定筆談時李中堂屢屢爲言至勸自上布諭民間今劉舍芳所言亦以種茶售賣力勸余見中國經用不專藉正供之賦收稅之最大者鹽政也其次茶也洋人近亦種茶終不如中國土宜故爭買之我國土宜與中國南方相同種茶採焙如法必獲大利不在人募之下故其言如是

二十九日海關署談什

王山問貴國有回信否余曰有信魚允中侍讀李祖

淵主事以考選入來通事一人先來傳信周曰魚李
兩君何日到津否余曰聞於本月十七日到灣府二
十日可抵邊門廿五日由營口搭舡候舡遲速未可
量也仍傳兩度書函周曰李山響是李裕元之族否
余曰非也 寡君之叔父也周曰當代獻于中堂矣
又曰兩人是全權否余曰未聞奉有全權之 命爲
共商議定約也周曰若然則舡到貴國後當再派余
曰自應有迎接之儀周曰當派送何官迎接手余曰
與日本人議約時派一品大臣此次宜無異同李應
浚曰美舡果於何日起程否日前肅械尚未奉答甚

鬱○周曰此事須面稟中堂可也

日前有堂送書玉山以自此乘輪船至仁川港口則海路未經測過殊涉危疑願至

龍川三道浪由義州陸走為便

美使定以三月十四起程方以議約有幾條

相持彼以電信報其國如有回信行期乃定余曰自此至美國近四萬里電報往復假量幾時周曰一天可以往返又曰中堂為貴國議約比他國最為妥善為貴國可慶余曰不勝感謝周曰查貴國與日本議稅則既云米穀進口免稅又趙秉鎬與日人言又云米穀禁出口日人不應允準平時則勿禁如遇年荒禁止出口何如余曰此事最難安是敝邦絕無厚生之資惟土產米穀為民命之源若許出口或恐滲

泄價踊害歸于民故國論以此為大防自日人言之
敵外米穀以外亦無可藉而通商者故屢回爭執其
勢實難究竟待考選官來到後更當商議仰報矣

三十日東局談草

清梅園名駿德東局器械局摺詳

錐水廠有小手器械費銀子五十兩可以購造托潘
梅園飭本廠代造當照數賞費梅園諾而不踐又火
藥學徒金興龍等尚在燒炭所不移煮硝合藥等房
屢請移送而終不見聽今日見梅園復言之梅園云
此事俱屬不忙余日學之有漸滾造身得非不知教
習之良法但諸廠事均非一二三年可期故邦學徒

遠來不能久住幾年此次本國信來學徒中有遭故
者有親病者亦有身病者將來各人事故又不可知
愚意現在分廠工徒學習到一年內外購買小手器
械及緊要有實益而可行於敵邦者捲回本國設小
局於國中從便學習來此工徒等雖未能透得三分
猶賢於不曾目擊之人又須延請中國良工隨事教
習方爲妥當雖未奉有 本國旨意思量敵邦工徒
學造一款終不出於這般勾當未知盛意如何潘曰
甚好。此間設廠十餘年所費五千萬銀子初頭募
洋工十七人教習今則中國工匠稍稍傳習猶有洋

工數人時時質問其學習之難如此貴國設小國於國內延師教習誠爲良籌余曰主意如此則工徒之學造教以捷徑簡要之法未宜同此中工匠由漸盈科期以五年十年之久先造錐水手器以習手試之汰銅冒手器亦宜購買火藥廠工徒亦宜遍習諸房之事不必滯於燒炭一所而已機器廠亦望教以緊要先務俾有把握潘曰向不知貴意如此故欲令漫漫學習務須浹洽明白不責速効今既聞命當另圖捷法矣化學雖十年亦難盡通而就其切要近務若製錐水等法不可不先教銅冒既有手器則不難打

造惟語學非五年不可貴國既與外國通商若無解
洋文洋語之人何以通情中國初與各國通商時以
不解洋文之故見欺受害甚多貴國亦應如是惟此
一學務要精通不宜半途而廢以成無用之工假使
貴國工徒并使臣撤還惟此語學生幾人獨留無妨
期於成就還國爲好余曰大教明白切要現在語學
生不過兩人觀其來頭造詣必不令輕爲去就也潘
曰貴國有解照像法者否余曰沒有解者潘曰此甚
易學購買器械不過費一百五十兩銀子銷一月工
夫便可學得此亦從化學中出來第曾講化學無所

成就惟通照像一法自謂不讓於人如有傳習之意
倘器械送人學習可也余曰此亦敵邦所無學之甚
好而煩請指教心所慊仄潘曰不必然出示自己照
像一片余曰請依教圖之

三月初一日游藏園談州

是日游藏園早朝來訪余未及中櫛倒屣出迎握手
甚歡自言二月廿八日自固安離發昨到天津謁傅
相明日緣河道有事匆匆還發去余傳致卞吉雲書
仍書示曰明天返旆未得數奉大教甚悵敵邦回信
今才承聞魚李兩人方由營口入來未知何日當到

津昨拜傳相想有敵邦議約底稿等說話可得聞其
槩否游曰明日回書不過數日恐又有天津之役也
昨見傳相及周玉山并幕府皆言俟美國電報回時
魚李二君將到務必將此事勾當也傳相本欲於數
日內往永定河收驗工程因通商事在即故不往永
定河矣仍問李橘山尚在巨濟否余曰間已蒙恩
典賜環矣游喜動于色曰幸甚二仍於片紙書去歲
在保定傳相座中自己口占絕句三首其一曰連朝
對客籌東海過耳歸鴉噪晚天官燭兩行燒又盡相
公猶手草苜牋其二曰與圖歷歷指朝鮮俄北俄東

界并連看到橘山遷謫處不禁却正意悽然其三日
 使臣紗帽倚華筵淡曉時艱計萬全我亦觀棋當局
 定歛襟危坐聳危肩余曰大作久已諷誦而今蒙書
 示更讀一回當日帽簷燭影如在眼前游益祿李相事而書亦其詩也臨別
 余使通事為道惆悵之意游曰但貴體保重少別不
 須悵也余書示君其愛玉體俱享黃髮期游曰好好
 復書示曰努力崇明德皓首以為期遂揖別

初四日北洋大臣衙門談草

尹石汀及周玉山馬眉叔觀察建忠同在座

李中堂問魚李兩人尚無來信否余曰姑未來到李
 曰想至營口候船故此耽延余曰候船不過則必由

早路李曰李相之官職姓名別字年紀可書示以上口談余
書對現官領敦甯府事興寅君原任領議政李最應
號山響年六十六李曰興寅君是否封爵有信與卿
等否余曰興寅君係是宗親府封爵書函想付魚李
之行李曰現與美使已有成議美使已赴煙台取齎
剋期東駛而魚李等不知何日可到將若之何余曰
誠極悶鬱雖云早路從今似不過三四天可到亦未
可確知李曰魚李等到遲於此事却無甚關係愚意
可遣李應浚乘輪船先回我卽復山響一函將本大
臣與美使議定約稿賣去報知貴國王以免遲誤

何如余曰帶約稿急先報知極爲便好而未知魚李之行奉有旨意何如若所議約稿均屬安愜於敵邦之望雖先否亦似無妨於事惟在中堂裁處李曰約稿副本可先奉覽本大臣與周道馬道等會商美使辨論廿餘日始能辦到如此地步諒能愜貴國之望將來美使到後另派大員爲之議辦或可小有更易大致必無甚出入否則美使決不從命也余曰第一款第五款已於昨冬在保省承教亦已轉達於寡君其餘各款均洽素望惟禁米穀一事最礙通商而奈敵邦民情以滲穀爲大患與日人相持多年尚

未知開今若於平年開禁明載約條未知故邦朝議當如何耳。李曰朝鮮與日本初次約本第六則載明糧米雜穀得出入出者出口之謂也。殊欠分明。故日人力持不得嚴禁。此次亦與美使辨駁數日。該使謂永禁斷不能行。只可聲明因有事故暫禁出口。在我尚可酌辦之權。將來到貴國議約時不妨再與爭論。若爭之不可似未便因一事而敗和局也。余曰日人議約時米穀出入者即菜館居留日人之糧米也。違辭欠明以致日人之藉口。然此事本非可禁。但有礙國人之情通商稍久庶可身知。昨年趙李二人

在日本與何太史商論此事似應歸奏於 寡君方
苦企魚李之來正爲此事憧憧故耳李曰魚李來與
敝廷議此亦屬無益只有俟美使入境再與斟酌余
曰李應浚之亦謹當以此先奏 寡君此稿寔出代
籌密妄想敝朝廷不輕刪增也又曰美船方在烟台
將由彼使獨往否敝邦不諳交際事務又無解洋文
洋語之人若不身中國派員同去則竊恐事多窒礙
然允植不敢煩請李曰卿等如必欲余派員前往襄
助成人之美所不敢辭擬卽派馬道台坐中國兵船
同美使前去並有水師提督丁大人偕行使中國與

吳

貴國聲勢一振馬道名建忠號眉叔曾游學西洋各國精通英法語言文字熟暗萬國交際公法介紹其間必能通達兩國情好我將奏明大皇帝派往余曰爲敝邦事到底眷庇至勞馬公遠涉滄溟不勝感謝李曰李應浚擬於何日起程我前已告知鎮海船主預備但魚李二君未遲再由陸路回國恐趕不及美使入境議約之期此間別無輪船可送矣余曰美船當於何日起碇否李應浚之行恐不得緩伏望指日爲教李曰美使薛斐爾訂於三月廿日由烟台開駛一日夜可至仁川港李應浚似應三日內啓行至貴

國後籌備一切方妥。余曰：不謂若是迅速。李應浚之行，恐不宜過三日以外。擬於初六發程，望前抵京。可無後時之患矣。李曰：日本大臣向來用兵謀國，皆是謀定後動。今日特召兩君來商，即欲立地定議也。余曰：故邦於此事，惟仰成於中堂。若謀之臧，即故邦之福；中堂之惠也。李曰：約稿定本，未有鄙人鈐印。美使畫押為憑，擬封寄與仁君副本，即走兩君持去。將來第一疑，美國家若不肯添入貴國須照此疑大意於定約後，另備照會美國外部存案為要。余曰：謹當一遵。命此次議稿，事事妥協，以故邦之弱，小何以

得此一副安約於外國交耶 寡君聞之必深喜且
感李曰請問美使兵船一隻中國兵船二隻送入仁
川港抑泊釜山再轉仁川耶余曰若自烟台一日夜
可達仁川則必無迤從釜山之理敵邦學徒有故當
還者爲八九人而道遠難致此次付送船便未知可
否李曰鎮海船已議泊鴨綠江口李君就便登岸隨
行若干人開名單送周道知照

北洋大臣衙門筆談事情及海關談畧

本月初四日海關道周馥以李中堂之意相邀當日
申時量與首堂李應浚卽往海關署同周馥馬建忠

詣北洋大臣衙門筆談定李應浚行期中堂辭色平和不似曩時峻厲爲言與美使議定約稿之事蓋知我國雖有派員本未有全權之使美使行期漸迫不容遲延故先議約稿齎送李應浚還奏也仍出示約稿凡十五款詳細奉閱第一款特書中國屬邦末係中國年號似礙自主之權日本人見之必爲藉口而中堂之意自初確定以此一款爲我國之大關鍵嗣後各國若侵侮我國卽是侵侮中國同聲相應一氣相貫使各國不敢侮視卽中堂之主意也我國方服事中國若以有礙自主爲言則便疑我國有自尊各

立之心故不敢發口，議約時美使以第一款須稟問于彼國然後乃可安定電報已久尚無回信想美國亦以此條議論未定電報回後彼若不從中堂使我國另備照會于美國外部存案去可見以此一款預為聲明於天下他日我國或被各國侵凌中國理宜幫助各國不得以交涉他國例言之也第三款互派秉權大臣駐京北一款曾所不許於日人者今乃許之亦有異同之嫌然此是萬國通例也若日本則猶得以前日相交之例爭之其他各國無辭可拒誠為難處第九款米穀事通商之禁米穀本是拙法中堂

特爲我國物情屢與美使相持終不順從不得已以
如有事故暫禁米糧出口爲言使他日或開或禁其
權尚在我國若猶不合於國論則在港口議約時更
爲爭論無妨云：紅蔘亦爲我國物情以禁出口載
約而此間議論皆云紅蔘不必禁多種廣售厚收其
稅其利斯博近年潛蔘多於官蔘日人賣於廣東福
達上海等地北京蔘價爲之頓低以此觀之非徒中
國地方爲然必滲布於各國許多漏稅之弊實爲可
惜教堂一欸初不舉論於約條中他日彼若有言當
以約條之所不載爭之矣教堂彼國之所重中堂似

必難於措辭恐傷和局故置之耳。此外稅則之值百抽十章程之酌照通例諸般約條比中日向時立約受屈於西人者及爲大勝比中人所謂爲貴國可廢正指此等西時量辭出共至海關署主人設飯待之馬眉叔曰仁川有城市否余曰小去處無城市馬曰我到仁川後豫於岸上定一居住之所以便與美使相會商議余曰自當有接待之節不勞過慮馬曰我等食費自有銀子辦買給用不煩貴國用慮余曰敵邦爲主之道豈容踈慢馬與周屢三稱不必費心余問此次 寡君如或邀見兩位大人則美使亦難異

同日本使臣到敵邦以臣禮見 君美使亦應用日
日本例而同時行禮大人以客禮見美使以臣禮見
得無礙乎馬曰此次美使爲通好而來不應面 君
他日公使奉國書而來則時有延見之禮耳此次并
不宜入城余曰若大人見 寡君時其禮當何如固
曰雖兩位似不必入至京城如或 貴國王邀見不
必見於公堂見於 便殿只用一揖爲好雖失禮亦
無大妨此次雖奏明派員體例與詔使有異若過爲
隆崇與美使迥殊則美使必懷猜恨之心惟在貴國
深諒起之竊念李中堂之特派文武大員乘兵船二

隻提幾百水師同美使出去不惜許多浮費爲此張
大之舉者蓋欲爲我國大振形勢聲明於各國也丁
馬兩人係是一二品大官因中堂奏明派送事體不
爲不重在我國待之宜極優厚而閩馬二人之言不
必與美使過有厚薄亦深慮之言似宜外面一體優
待裏面則另致懇懇於二人以示尊親中國之意至
於當施於美使者亦詢於馬建忠務歸停妥至於派
全權議約之事各國之例皆用當朝頭等大臣中國
與日本議約時李中堂爲全權大臣不如是不能見
重於各國况有中國大員其迎接之道恐不可踈薄

十三日馬觀察談畧

名達忠號眉叔
在海國署共談

馬曰貴國港口海道從來經語○余曰啟邦人雖居海濱亦不慣海道若輪船一番行過自能測知勝於居民眼目馬曰初到之處若無海圖則緩輪測量而行便成熟路矣余曰為啟邦事辛苦良多極為不安馬曰本道曾游地球十數萬里此次為大局起見前往貴國何敢憚勞乎余曰有志四方不憚險易不勝欽服但仁川荒僻之地接待之節雖不期踈慢自多草率幸望隨事包容馬曰此次前往貴國諸凡供應之節一切捐棄已以此意上稟中堂矣余曰此是願恤

小邦爲省弊之意在小邦豈能安於心乎余又問曰
中堂以派員東出事陳奏間已蒙回諭否奏稿及諭
旨可得見否馬曰中堂以密奏陳請既得旨又以密
咨送 貴國王本道雖已領咨未知其詳余曰雖係
密奏其大約不可得聞乎馬曰奏稿甚長大約此次
貴國與美國連和事中堂既未能阻住更爲極力代
籌主持方便之道奏明派員幫辦安議以禦外侮也
馬又問曰貴國鄭麟趾所撰高麗志在仁川可得購
買否余曰仁川小邑本無書肆且高麗史刊行已久
今無幾本現存余又曰丁提督明將偕行否馬曰丁

提督已發船在烟台相候余曰大人明往烟台自烟台何日發船否馬曰自此至烟台一日程留烟台三四日起碇一日可達仁川余曰將與美使同發否馬曰同發亦可先發亦可似當觀勢或一日半日先發余曰美國電報間有回信否馬曰電報回信直往烟台此間無由得知余曰閣下行中幾人馬曰亦道及幕賓二人從者數人總不過五六人其他船上兵丁不必盡計余曰丁大人行中幾人馬曰丁大人坐兵船上兵船人衆頗多亦不必相干周玉山曰唐觀察現管招商局務昨年漁允中與中堂談及貴國開海

禁與中國之思想已歸達於 貴國王唐觀察此次

派五人

皆解商
務者

往貴國看察商務幸寄書於仁川所親

之人引接此公人周覽諸地

意謂若中原港口之処処有市
肆都會人物湊集之所而去

及詳示

物價高低以便後次往彼貿易也此人等將占住房
屋爲久住買賣之計須爲之先容爲好余曰審如是
則自此大小國情誼愈孚聲氣尤近誠爲敝邦之深
幸而敝邦港口庶事草創極目蕭條恐不足以來四
方之商也當以此意倘陳于書中矣

十五日游藏園來訪談草

余問李中堂丁憂向見 諭旨以時事多難慰留鄭

重想不能終身已志游答曰昨已具疏懇辭矣必定終制此事斷不能說通權達變以非辦軍務故也余曰傳相若在官想中國海防一切事宜或有所更易故邦羈旅之踪尤無所依仰游曰後任張振師必能曹守蕭規後事無容過慮游問曰聞閔內翰有致我中堂書其畧可得聞否余答曰想魚李二人帶來也游曰魚李兩人何尚未到耶余曰路中不知有何事故不來到甚爲憫之文丈何以知閔內翰之有書耶游曰向見吉雲書知之游曰前蒙贈詩久未奉復心實歉然未知近日又有佳章否余曰自來此以後熏

心事多不吟一字行中諸人或投贈之作亦絕不
酬和負債如山昨冬過永平時有次壁上六言詩韻
茲供覆瓿因出示五言四首游亦錄昨過丁字沽口
占一絕以示之詩曰煙繞橫塘水繞堤柳陰時聽好
禽啼阿誰丁字沽前路繞過紅橋東復西余書示曰
春日途上光景如畫游聞曰聞貴國學徒亦有聰穎
可望成就者有數人且聞學徒已先歸國者多何也
余曰有遭故者有親病者身病者無才者在此無益
者迭遣歸國因曰敝邦學徒不慣遠游久客今未幾
朔因事故而歸者已過十餘人愚意欲得其緊要梗

槩從速撤回設小局於蔽帑以爲製造之始向與潘
梅園議到此事梅園亦印可未知文丈意如何游曰
極好極好然須奏明 貴國王且稟我中堂乃可余
曰欲爛商於諸大人然後奏達於 寡君往返承
命又費幾月今雖如此留意歸期須在秋冬之間游
曰自應如此余曰須預以此意代稟過中堂是仰游
曰諾因辭起曰四月爲奉別傳相來伊時暢飲會話
於海光寺樓上余曰甚好

二十一日海關署談草

周曰魚李兩人尚未來到却是何故余曰誠是未曉

想二人中一人必臨行疾作不能登途路遠便濶事
故難知甚鬱甚鬱周曰向來齋書來之通事與魚李
二人同時啓程否余曰魚李行有定期而姑未起身
先遣通事報信余又曰傅相寢啖諸節不至大損否
周曰勉抑哀思料理各務余曰頃伏見兩度 諭旨
慰留懇惻且以時局見之傅相去就恐難任情周曰
現決意奔喪回籍國家有大事必就咨訪且凡傅相
經手之事必承傅相之命而行周曰昨英國公使威
安瑪請見傅相傅相辭以有喪不便接客威使力請
不得已見之威使曰聞美使前往朝鮮議約我國亦

派水師提督前往該國傳相函致此意傳相曰美使
 纔已出否不可并往威曰然則俟美使回即欲出否
 傳相曰美國與朝鮮議約現有成稿未知貴國將何
 如威曰我亦依美人所約一字不改
中堂與威妥
瑪爾酥止此 英舡之
 去既難阻住與美國所約一例妥成實為萬幸須密
 速奏報余曰以敵邦物情異船相繼來泊必大驚動
 傳相亦難阻住誠為悶慮然若不至滋事則猶可幸
 也明日業欲送官弁白君回國謹當以此事奏達
 而營口輪船苦難覓得適有掛帆商船前往營口者
 乘此而行水路遲速難必恐有差晚之慮問曰一月

之內可以抵 王京否余曰若遇順風抵營口不至
一月請給護照周曰貴國學徒半已出否何其多也
余曰各有事故而然頃與許潘諸公論及敵邦學習
事故邦之人不慣遠游離家半年已多生病回國若
過幾年必空羣乃已不如擇緊要之務從便學習速
圖撤回設小局於國中以為製造之始諸公俱已印
可未知高見如何周曰設局於貴國招雇中國工師
令子弟就近學習此為善法余曰鄙意雖如此須奉
我 寡君之命又轉稟于傳相乃可施行非使臣所
敢專斷余又曰此次威安瑪當出去否周曰威乃駐

京公使伊不自往派送在津之水師提督余曰水師提督姓名去何問曰伊長在船上弟亦不曾接面不記其名

二十二日唐景星來訪談草

景星名廷樞廣東人識商務現任招商局總辦

余曰今日風沙撲面枉駕不易唐曰久擬一拜適自海口還歷貴寓暫晤余曰向來商賈幾人往敝邦俱係何地人唐曰一人居烟台二人居上海一人居廣東共四人余曰四人俱是富商乎唐曰非也此人等均曉賣買事情物價高下往貴國者察商務幫勸他商往賣也四人素諳貴國參貨賣買唐曰本月初

矣

八日法國攻破安南東京。余曰頃見傳相奏本有安南垂危琉球未復之語指此事而言歟安南之被攻抑有事端否。唐曰法國自得安南八省之後久有意全吞越國。余曰曾聞泰西諸國惟俄外不貪人土地此說在安。唐曰大約各國無不貪土地如人無不貪銀錢。余曰安南雖小向稱頗能自強現今不如前日耶或有啓釁於法國者否。法人攻戰幾月至破其東京乎。東京乃安南王之所都乎。唐曰安南近年摠爲法國掣肘。去年自辦軍火一單爲法扣雷旋問越王辦軍火何意。王推諉於大將軍劉永福。法去伐劉爲

劉所敗今春添兵而來劉避入潑山法乘勢取東京
東京其舊都與廣西相近乃劉鎮守之處越王係佳
順化與東京相去五六百里余曰安南係是中國屬
藩法人何故管攝他事現今四海各國皆修武備互
相勸教何獨於安南禁辦軍火乎既係中國屬藩地
又相近恐煩厝堂之慮唐曰前八年法取安南八省
取之無理當時因中國有事之亂故未暇辯論安南自
失八省之後大有修武備報復之心法人知之故有
強留軍火一事余曰既破東京則兵勢當止於此乎
其意欲盡吞乃已乎安南所餘地地方兵力尚可以

支吾否。安南王何姓劉永福。是安南倚仗之人乎。唐
曰：法雖有意盡吞此時，亦不敢進兵矣。王姓李劉永
福，是王倚仗之人。除永福一枝兵外，餘皆不可恃。余
曰：然則法人何憚而不進兵乎？畏中國之威歟？畏天
下之公議乎？緬甸暹羅比安南頗能自強禦侮，否？唐
曰：曾侯曾國藩之子現在法國爭論，彼不敢進兵，是其一端
也。其二，越王無得罪於法，法之取東京以攻劉永福，
聖其前恨為名也。暹羅比安南畧強，惟緬甸不如也。
大約緬甸本將為英國所奪，余曰：西勢如此，猖獗蚕
食東洋為之一歎。唐曰：儘然。余曰：閣下兼管開平礦

務開平距此幾里是煤礦耶又有銅鑛耶唐曰距此旱路二百餘里水路亦不過二日程專爲採煤又有產銅鑛處不在一礦余曰採煤幾許唐曰今則一日所採可值銀千兩稍過幾月一日所值可值五千兩銀子余曰然則此局所用多賀日本之煤却是何故唐曰往時姑未多採故賀用於外國自今不必買用余曰以機器掘採否唐曰然余曰閣下何時當往看察否唐曰擬於四月一遭往看余曰若由船行則若欲附驥往看何如唐曰甚好

十二日海關署談草

周曰接馬眉叔初四日由仁川發來信貴國議約大臣申櫜金宏集其約稿內但添仁川一港不准米糧出口已與美使說定訂初六日換約申金二人何官曾辦交涉之事否余曰昨日轉聞鎮海兵船之還未得其詳且今聞傳相將於明日啓駕下懷悵缺專來拜探耳議約既依稿安定甚幸甚幸仁川一港之不准米糧出口自前朝議如此故邦之事勢然耳申櫜正一品輔國階曾任兵曹判書丙子與日本議約時大官也金宏集二品階嘉善曾任禮曹參判現官機務衙門經理使往年曾使日本余又問馬觀察何時

回津否周曰聞初六換約初八進 王京初九日回
仁川初十里西發但英使初十可到不知復留襄事
否余曰英使向去待美使回繼出矣今自何處遽發
乎然則德國亦有動意云矣姑無動靜否周曰英船
在烟台陸參將自仁川回初八日過烟台時見英船
英使已聞貴國議定之說想已出去矣英使名韋力
士也德使尚無起行之期其意似欲刪改原約李浣
西到烟台適泰安兵船赴關東海關道方有民觀察
屬其搭英商之船到營口矣余曰若路由營口則恐
不及於英使之議約矣德使亦有修好之言於傅相

否美與英俱遵一約德使何獨立異其所欲刪改者在何款耶周曰德使亦曾以修好事言于傅相矣不知所欲刪改者在何款也德使現往長江之漢口聞一月後始回天津現番譯言阿思德在此欲與張制軍商訂約稿耳余曰張制軍於前約之稿必不欲增刪大槩與德人議約豈有頓異前約之理乎周曰制軍意如此也周又曰馬眉叔不能常在貴國而貴國議約事將來不少非雇解洋語者不足勦助解洋語尤必先識漢文此人若由中國聘請而去恐非一月三百金不肯應聘凡一切交涉及教習學徒議訂稅

則闕章皆於此人是賴耳余曰大教誠然謹當以此
意詳達 本國矣

二十一日徐仲虎談

州 徐仲虎在建寅南局會辦游歷西國濃識時務善化學多所著述

余曰敝邦新通各國須得通曉交際事宜及西人言
語文字通商之務者延致襄辦想中國之士已多游
歷外洋願舉一人。徐曰中國人雖多游歷學習終不
如洋人且自幼入西學習者其心反附洋侮華心術
不正反不如公正洋人不可用也。余曰近閱申報學
生之自西還來者華官冷待洋人多為之稱冤豈非
此故耶徐曰是也幼無根基但學洋文所學者不過

一二淺技便生侮華之心且不識事體斷不可用故此等人最難保舉以弟所見惟羅豐祿一人而已余曰羅公現在中朝器使豈可屈處僻陋更思其次徐曰羅刺史誠難延往此外恐無其人不如聘得一公正洋人凡係交際通商倚以辦事必得其益遠勝於羅豐祿且月銀不過百兩亦可應募此人等每應聘者他國事其用心與己國毫無異同現今中國亦倚洋人辦事未嘗受欺各國人於港口事亦不能欺所以不致吃虧也余曰雖知如此敵邦通洋出於不得已非大同之民情也斷不可遽募洋人易致滋事惟

擇聘華人為宜徐曰雖聘洋人但在港口辦事不必入城且此人於職掌之外毫無干涉必無滋事之慮余曰我民初見洋人但見其外不知其中華人雖不及洋人我民之所稔熟故不如延致華人徐曰此最緊要之務甚難甚難

二十二日北洋衙門會周玉山談草

與首堂李應凌同入

張曰德法兩國姑未出去馬道不可久留宜先回來貴國須延致解洋語及交際之務者襄辦諸事此不容少緩宜速奏知貴國余曰向聞周大人之言非不知切緊急務而此須奏報本國候回信乃可議

定延往矣德洽雖姑未出其行止倏忽馬道既回洋
船入港則敵邦之人悵悵如無相之瞽必致悞事煩
乞留馬道代辦以完終始幸甚張回顧周道語去去
周道書示曰貴國事勢既如是則馬道只可雷辦德
法兩約嗣後何國繼來又不可留俟宜速延請繙譯
官一人或物色求之爲好余曰當以此意速便奏知
而辦事之人在中原求之亦難况敵邦何以物色并
望留神訪求焉周曰俟貴國有四信再當奉告矣余
曰急切無信便欲送從事官帶領病匠三人回國奏
知請給護照周曰護照當奉寄而病工出去者何多

也究竟閣下一人將獨留耶余曰水土為祟疾病漸
 生現病工三人或狂或痢或淋俱係非輕不可不出
 送從事官亦常不健暫回調理再來亦好周曰貴國
 有巨文島否余曰未詳之也何以問之周曰英人言
 貴國巨文島最合開港余曰當還寓細思而更告矣
巨文島興陽三島也巨文者
 日本人所在故國人不知 制軍曰李君何日進北京李曰數日
 後欲進京張曰先呈禮部咨文然後本衙門乃可轉
 奏須作速起行也李曰然則行期當進定於明日為
 可

三十日馬眉叔談草

余曰久屈僻陋勞苦備至想敵邦僉接之節必多踈慢槩蒙恕諒不勝感謝焉曰蒙優禮相待主客相安別無所苦余曰伏聞此次進見寡君通款曲之意尤切喜幸焉曰貴國王英明果斷力排羣議克成和事厚蒙延接心切銘感余曰美英兩約已臻妥協大人此行造敵邦生靈之福未知英約亦遵前稿無所增刪否馬曰奉有諭旨及傳相籌畫僕但効奔走之役而已何勞之有英約照美人約稿不改一字耳余曰似聞德國將近出而欲改約稿數款俄人則欲於陸路通商他約則均在港口宜用通例惟陸路之

約則雖有中俄約條地方形情不同不可全倣自故
 邦詳詢知北道風土之人講究便否惟在大人的度
 代籌馬曰德使見張制軍欲改約條四款制軍堅執
 不許並云不欲紹介彼亦唯聽命然洋人多狡在
 貴國議約時請先折其心無俾肆其所欲俄約僕當
 設法代辦與金道園商議安定余曰道園明白人周
 旋之際想必有心照矣馬曰道翁胸中雪亮議事自
 能易易余曰秋堂存有心人雖老志氣不衰余又曰
 從事徐秋堂自徐秋堂曰余自五個身入洋見過否馬曰這是好人惜鬢髮已白余
 曰向聞法人亦出去尚未有聞否馬曰只通好而已

余曰聞此致大人及丁軍門之行敵邦民心洽然無
不瞻仰觀欣可見中外一家氣像焉曰過荷貴國人
厚遇實不敢當余曰李應浚既奉咨文進京矣不知
大人何時啓旆焉曰僕擬於初二日乘船至大沽坐
輪船由煙台買辦食物計當於初七日十二點鐘可
抵仁川余曰滄溟一涉爲難一旬之內往而復來自
奉使以來未之有也焉曰人臣分內之事何敢辭勞
余曰仁川埠頭頭形便如何焉曰甚佳但不便登岸
余曰英人欲於江華注文島開港去果有此言否此時不知

巨文之爲三島華音注與巨相近
故疑爲江華之注文島而有此言

焉曰以仁川月尾島不便登岸有

移設於南陽之議英人所言巨丈島考貴國地圖乃

楸島即嶺子島在濟州之間僕已駁辦罷議馬曰請尹公初

一日先往大沽相待僕於初二往會共坐輪船東還

何如石汀曰已奉制軍諭方欲附驥猥同仙舟斯夕

暢聆至教實為平生之幸馬曰周玉山擬於明日邀

兩位一談僕亦往會未知有信否余曰有信明天再

會海關署晤談為佳余指西壁下書帙曰此是購買

否馬曰是 貴國王所賜

五月初一日海關署與馬眉叔談草

尹石汀將與眉叔東渡周玉山邀余二人

石汀曰昨奉張制軍所送咨文及信函謹當歸

本六

及眉叔會飲叙別

呈而書中辭意槩可得聞否馬曰只言俄事信函亦一樣馬又曰僕在仁川時令從氏奉貴國王命來見余曰舍從已知僕於大人托契有素宜無不滿意欣仰而奈言語不通祇是脈脈相看而已馬曰以筆代舌足以達意且交情貴在知心不在言語余曰王世子見過否馬曰見過小歧窳夙成動容中禮爲貴國可賀余曰敝邦素是僻陋室屋街衢在在湫隘况海曲荒村極目蕭條雖云開港通商不知何時粗成貌樣馬曰貴國土地肥沃民心訓良若開擴商務導率得宜不出十年必成富庶之國余曰敝邦在羅

麗之時疆場多事干戈日尋尚有富強之實今昇平
日久不知何故漸成貧弱莫可振作馬曰不患寡而
患不均不患貧而患不安均安之道在王者秉公無
私大臣體國精白爲民興一利除一害如救焚拯溺
則民生自然均安均安則富庶未有民富而國貧者
也方今地球各國惟以富民爲事國家自然享利余
曰招商局五人出去者何時還來想敵邦無可貿遷
之物馬曰招商局友已於去月十五日回津尚未看
察明白石訂曰僕今將先往大沽候台駕同登庶得
朝夕奉聆至教濶幸濶幸馬曰亦僕之幸也

初十日徐仲虎談草

余日向讀大著論外國事情甚暢晰竊欲瞻置一通
尚肯見許否徐曰謬蒙賞許甚願呈政容俟飭胥抄
錄送上也余曰敢問大兄所繙譯者爲幾種書書名
可得聞否徐曰歷年所譯已刻印者約有十二三種
尚有未刻印者大小約二十種已刻印各書 水師
操練 輪船布陳 運規約指 器象顯真汽機必
以 汽機新制 聲學 電學 藝器記珠 化學
分原 鎔鍊鋼鐵 德國議院章程 伏耳鏗合股
章程 未刻印各書 造船大全 造船要法 鐵

甲全論 汽機大全 水雷要畧 量彈速率器說
少本 量火葯漲力器說 少本 兵率支餉簿格式 少本 造營壘
法 西國大事記要其餘一時未能盡詳載格致彙
編中余曰緒書自是難事緒此許多種書聞人耳目
可見留心時務扶濟民國甚盛甚盛請問何時游歷
西國徐曰同治元年第^方年十七歲蒙曾文正公調往
安慶大營隨同家父試造中國第一輪船告竣與洋
人所製無異六年往上海初譯西書年二十二歲因
化學機器等事中國絕無其書一切名目字意皆非
素有盡心揣摩年餘始有頭緒而髮則脫去大半且

留者半變爲白至光緒元年奏派總辦山東機器局不用洋人自創一局亦爲中國從來未有之事五年經手事竣欽奉特旨着來京引見又奉寄諭飭令迅速前往德國於是未及進京卽出外洋於十月下旬到德七年八月奉旨候委送俄國新換和約回華十二月到京八年二月遵旨赴部引見奉特旨發往直隸委用三月初五日到津余曰大兄經歷真不負蓬萊之志勳猷炳蔚令人欽佩李公善蘭亦善化學未知造詣何如徐曰我中國地方之廣人才之衆不可數計如弟者車載斗量不足爲重也李公係父執算

學甚精惟化學非所習亦各專一門耳余曰承靜兩
何如徐曰承公化學頗精亦後起之英其學術由家
父及弟所譯之書中得之

同日向夕許澂丈來訪談筆

許曰申報所刊貴國與美國訂定和約甚爲合法余
曰此由上國字小之惠傳相代籌之才感謝不盡約
稿十五款美使以第一款相持竟至電報伊本國及
到港議約之時不用第一款以第二款爲第一款共
十四款第一款之意另爲照會彼國存案申報所刊
乃其底稿也許曰美國既有定章其他各國當未書

加於牲上耶。余曰：英國既遵前稿，無異東書加牲。俄國亦云當遵，但俄人或有陸路通商之說，事面自應不同。惟德使不欲用前稿者，爲四款張制軍堅執不許。德亦勉從，未知議約時又復何如耳。法國求好而已，姑未議約。許曰：法國商務素稀，德國向無東顧之意，准販洋藥一節固不可解。然折以大義，當以無辭。惟各國稅則約內所定頗爲得法，似應查照，急爲實訂。余曰：善始者貴，善終以敵邦之弱，少得此善約，實出分外。惟善後之策甚難，嗣後亦惟事事取法，件件請益。至十年二十年之久，或當有頭緒。否？許曰：貴國

風氣如魯一變可以至道非若西方急功近利猶齊
變始至魯也。余曰敝邦雖葦爾小國亦四千年衣冠
古邦也其邦也若人之羸老猝難振作若如外國土
藩向未開荒之域風氣纔開自當蒸蒸日上矣蓋自
強至弱易自弱至強難但聞齊一變至於魯未聞魯
一變至於齊也。許曰強弱不在兵戎魯國不易變齊
亦有不必要變齊之理現在各國與貴邦訂約所以能
如此者惟其文弱故不爲其所忌也。余曰盛教亦渡
中彼機但向後事不可以此常恃恃強猶不可况恃
弱乎恃陋恃僻鮮能保國惟有自強而已。許曰鄙人

嘗有論古勿求自強但求自治余曰自治便是自強更復何求如人之一身臟腑調和則四肢自然康強外邪不能侵如人不能節食遠色臟腑受傷精血日耗乃欲救之於手足之末日試鍼灸蚤夜按摩曰我自強誰其信之許曰自強之弊其中易虛自治係從根脚做起紀綱法度皆有精神氣脈以運之譬如人之一身以元氣為主其本原必由清心寡欲所謂人貴自立也余批貫清心寡欲四字曰清心寡欲所以濟大欲此有國有家有身之至寶也近日日本緣務自強其中則虛然上下節省惟以富民為主其進尚

未艾也。泰西各國議起於下，在上者無成心，故鮮有敗事。惟我東洋不可純用此法。許曰：泰西無成心者，美而已。英尚能持其故步法，則篡弒相仍，俄德屢仇，其上皆不可爲訓。竊謂其國必有更易之勢。日本美加多未嘗非英武之畧，第求治太速，未聞大道。似亦論治者所未煉。余曰：歷評諸國均功其病。余又曰：似聞西國無兄弟，第一倫信否。許曰：近日稍知倫紀，殆亦漸染華風。每見西人以父母照像懸諸廳事，朝夕瞻仰，亦可取也。余曰：大抵西人聞墨子之風者，尚鬼兼愛尚技巧許曰：然。余曰：故邦電機學徒趙漢根與宋景和願往。

大沽看習水雷之法向托劉薊林觀察書屬大沽羅鎮軍隨事指導已於昨日坐小輪船前往回局遲早姑未可知鑿水學徒金台善黃貴成兩人學習數月若無可試之器頃蒙造給手器俾便歸試竊深感幸火藥廠二人其一人有病回國現有一人今欲將兩人移隸火藥廠使之一同學習未知可否非謂兩人盡得鑿水之妙緣彼廠事閒優游日多虛拋光陰爲可惜故耳許日均已聞命當歸與梅園說知矣

十四日海關署口談節錄

余曰敝邦昨送通事來又有另送 咨文由陸路遞

來蓋不知馬丁兩公之復東出而恐德法船之來無人辦事復請派兩公來辦也且英約一遵美約十四款外另為照會更添三條茲并呈覽周看畢曰我已聞之矣英使韋力士本不慣於交涉之務今此三條雖不另添身宜照行何必多事照會也此皆通商之國自然之例無甚關係如有難從之請我為貴國豈不先事周防乎○余曰我亦意以為無甚關係然既有約外三條不可不使大人知之○周曰好好昨天魚一齋來話聞之否○余曰從一齋畧聞之通商事既有函商李傅相之旨自應妥成駐使事似未蒙允准○周曰

現雖時局大變貴國與泰西諸國有異且各國之設公使專爲保護商民通兩國之情貴國與中國誼同一室不必照他邦之例既設公使則公法體例與總理大臣抗禮現今總理大臣 皇上之伯也與 貴國王同等貴使未便相抗若不用平等禮則於各國有碍摠之數百年舊規有難一朝遽變北道開市革罷事此係兩地之民以有無互易亦古例也現今不曾通商處亦許通商况係自古互市之地乎俄人欲於陸路通商亦安能禁阻乎不通好則已既通好則無論水陸原無禁通商之公法鄰國之患不在通商

開擴南路以信守之其益滋多貴國宜專設一官管
理商務招徠流民以固邊圉雖百俄奈貴國何若不
然而但禁通商則非徒無此公法反為啓釁之端余
曰魚一齋往年見過中堂時以此數件事稟商及今
春奉命而來適值傅相回籍未免踪跡覩覩事面
唐突蓋駐使事本非敢瀆請之事若傅相在位必有
從容善處之道北市革罷事實為杜俄人之陸路通
商起見亦拙計也非敢苦中國之互市也周曰咨
文中倘以貢使仍留在京以省往來之弊為辭則或
可無礙於事體否直去駐京公使則恐不可北道互

市時供億之弊尚可裁革凡事宜爛商徐徐而圖之不可急功余曰一齋既奉 咨文而來呈文禮部退俟天津而已未嘗急功求成惟在中外諸大人之議奏遲早豈可惟意乎周曰一齋比來奉有全權之旨乎與中國通商約條一事可以獨辦否閣下亦當共議否余曰一齋雖奉 咨而來共濟 國事豈敢曰不知乎但敵邦本無全權之使况陸路通商係是勘有豈可不稟本國在此專斷乎尹石汀之田已托歸報本國條陳便否早晚當有回信也周曰一齋云會寧義州舊係互市之地不必論稅此言不可既云

通商則當用通商之例豈可與各國商民異例乎陸路通商亦與水路大同小異統則亦不其相遠但應多加幾款耳余曰既用新法則恐難異同不知俄使何時東出否周曰俄使向欲與貴國議約制軍答以俟貴國回信更議以此姑遲之若有貴國回信俄即出去矣余曰德使已出去否周曰德使先馬道出去想已換約矣余曰德約已成俄法該未出否馬道不應久住似應回船伊後俄法東出敵邦欲報上國復請馬道來辦則陸遞三千餘里緩不及事此次奉有宸札以此深以爲憂如何是好周曰馬道雖暫回

來俄法出去時自應知之馬道復去裏辦無妨惟俄
法則然若以後諸國或有續來者馬道不能長留以
待宜雇往繙譯官一人爲好但五箇國以外諸國更
不打緊當一律照辦余曰馬道之屢涉滄溟雖切感
幸實深不安繙譯官事石汀回時亦已詳達本國矣
周曰早晚貴國有回信須同魚君來面商制軍爲可
余曰當共來聽教

二十九日南局王筱雲談草

余曰此次馬觀察之來自敵邦有信六月晦內專送
一人帶銀子一萬五六千兩要賈零碎器械爲國中

設廠製器之始竊念此事極不易辦專來拜叩惟閣下之商籌指導是仰筱曰甚好余曰諸器緩急莫先於槍砲而槍砲皆須火藥惟火藥精製之具非瀛輪大機器無以合法火藥諸廠機器極多恐難購買如何是好筱曰容悉心細籌分別緩急定購現有銀萬數千兩莫妙於先買後門槍五百桿前門槍五百桿約須六七千兩製火藥不必如東局大機器仍用人力舂法僅買壓水櫃一具亦用人力造成之尚可與外洋所製不太懸殊再擇應用各種小機器的買數千兩亦可敷衍目前以後逐年添辦事無不成余曰

諸般摠乞從長酌辦第則原無成見惟指教之是從
矣大砲幾坐及砲架亦宜購買砲子則敵邦工匠或
可仿造歟尚須買幾箇而去此外銅片鋼鐵鉛片等
及應用手咒并諸藥物亦須商買并望深諒代籌極
煩費心不安不安彼日暫無多款大砲恐難猝辦砲
之大小上下懸殊有數百斤者有數萬斤者暨十數
萬斤者大砲有伍至銀
子萬餘兩者中國現購極大之砲只有數萬斤者
小破尚可自造大砲則不能也若砲子頗可自造俟
酌買機器後所有應用物料自當酌購若干以爲始
基余日數萬斤之砲非可遽議雖數百斤之砲尚須

幾箇先買威敵之器莫先於砲但未知小砲亦有後
門亦有開花砲子否○筱曰我想貴國山多道險雖大
砲不便輸運過山砲不過用一馬馱之亦用小車載
之亦有後門亦有開花子能及千步之遠此最合用
余曰此砲最宜於日下先試之用若大而無當反不
中也○筱曰請托潘梅園代貴國造做小銅冒手器數
具作價亦可聞現代神機營所造手器甚好既有現
成木樣多造甚易○余曰此誠甚好然若云局內之物
不論價則未便開口尚可代造作價否○筱曰代吉林
造手器亦作價也○余曰銅冒手器當懇梅園代造而

此外器機翻沙等諸廠手器亦須畧畧購買方好歸
試筱曰第等自當妥慎代籌轉訪周玉山于海關署
王筱雲先已在座蓋會商爲我國購器事也玉山曰
聞貴國欲購買小手器械深喜且幸余曰此寡君
之意爲敝邦製造之始銀子現雖未到宜先事商酌
故仰佈耳玉山曰銅冒機器小手器及壓藥之具是
緊務係是草創不可一時張大余曰所持者狹安望
所求之奢乎玉山笑曰好好此係買諸外國半年可
到須趁早酌定余曰酌量可否代籌妥當惟在諸大
人盛筭但目下姑無現銀未敢遽請遠購王筱雲曰

暫無現銀不妨先笑余曰事貴豫立先笑甚幸玉山
曰王筱雲濼於器械遠勝於東局諸公既許代籌願
信之勿疑余曰王丈之濼於器械已所稔悉業經說
托豈敢有疑玉山曰招商局銀子間已如約所用否
余曰已經多少入用若來月海關款邦有信均可清
帳不必踐冬初之約矣玉山曰甚慰喜動于色蓋非
爲銀子而喜也常慮我國不能踐言貽笑於人今聞
先期清帳之言爲我國甚喜也語次馬眉叔亦來道
兩次不遇之悵眉叔稱謝余曰俄人之陸路通商拒
之甚善但未聽從否馬曰事理所在彼亦無以詰駁

余曰俄使今在何處何時當東出乎馬曰方在北京向日制軍以貴國咨文之意函致總署尚未有回信待回信來到俄使去就亦可知耳

六月初七日許涑文談畧

許曰貴國宰相一人丁憂果然否余思必指若楣台之謂也荅曰內閣學士閔詠翔新遭其本生內艱似是此人而閣下何由聞之許曰向於申報見之其人官居幾品余曰二品此人年雖少公忠體國寡君濬器重之許曰貴國有如此賢臣社稷之福許又曰聞貴國請日本教師學習練兵有之否余曰日本

人掘本禮助隨其公使來番故派兵丁往習步法耳
許曰聞其人造詣不甚精妙恐不如中國之人余曰
因其來註而權請教習非請來也余曰向與潘梅園
議敵邦購器之事問已入聞否許曰已聞之矣此事
甚好日前畧探制軍之意前後門槍各五百桿似不
必論價惟槍子則須買去耳余曰何敢然極爲不安
許曰此是傳相之意毋庸不安又曰此姑未然之事
吾以意度之耳許曰貴國工匠宋景和手法精良新
造銅冒手器數件無一參差可喜余曰宋景和
勤實做去始終無間以其用心故能如此耳許曰惟

勤實則百事可做。又曰：開貴國山多，必多礦處。向無開礦之議否？余曰：雖有礦處，開採不能如法，則徒勞無益。苟欲如法開採，費財浩多，是以難之。許曰：貴國不憚礦務，實難自辦。中國人衆極多，生利不敷。如有以此等事雇往，必多樂赴之人。貴國生財之源，不外於此。何不函圖之？余曰：姑未知敵邦物議如何。而此事亦須待傳相回津稟商安定耳。許曰：待傳相安議甚好。許又曰：購器事亦係重大，必以奉貴國王命之意書送公文一張存案。我等轉稟制軍得其批評，然後資以代辦於事，而爲好。余竊念銀子八來之前。

先行公文事涉輕遽然既以購器事議及於兩局則事難中止不係乎公文有無故荅以當依教書呈矣轉訪潘駿德梅園亦稱朱景和之能讚譽不已曰此是狠好的手爲貴國頭等工匠宜另加賞銀以示激觀之意余曰宋景和之用心精學誠爲可尚但同來數千里外一視撫綏亦甚不易今若偏賞宋景和他工匠必多解體有腹誹唇反之慮矣不如歸奏國王以俟處分潘點頭曰良是此中局內工匠則隨其勤慢能否而定給銀子多寡不等故欲貴國亦用此法今聞公言亦爲有理余曰若設局於敵邦則亦不

得不用此法耳潘曰趙漢根亦用心人也有聰明余
曰此人亦切願學之心潘曰購器銀子來到否余曰
似於今晦間來到遠外事亦難指定潘曰向見王篋
雲論及貴國所買前後門槍千桿外槍子宜多買去
銅冒則以手器製用此外須買一件小流焗爐以運
車床刨床鑽床若無此三者則凡百器械無以修改
余曰弟亦存此心久矣但焗爐無大小其安爐設筒
運用之法非人人所能故不敢生意耳潘曰此是小
小樣子價不過幾百兩其體而微厓足以運三床之
力雖然在貴國爲初見欲令國人開廣開見之意也

余曰甚好甚好此等漁機爲幾匹馬力耶潘曰八匹馬力自上來買來余曰槍子買去則手器置之爲可邪無乃有闕耶潘曰槍子手器亦不下數千兩銀子且以手器製造槍子費力甚多而得不補失不如買用之爲便也余曰舉重器亦不可無一具價銀幾何潘曰稍大者價千兩小亦不下五百兩

十三日羅刺史談草畫棟

余曰聞馬眉叔將有安徽之行專來拜餞不遇甚悵羅曰馬眉翁爲貴國事欲往安徽稟商於傅相知之否余曰未知也可得畧聞否羅曰爲貴國通商以後

今

富強自立之道也。余曰：眉翁再涉東溟，倘經勞苦，又此爲我代籌，冒炎遠駕，不勝銘感。但現今敕邦富強之道，當以何者爲先？羅曰：急則治其標，緩則治其本。興學敦化，是其本也；理財治兵，是其標也。余曰：理財治兵，誠爲當今之急務，而治兵亦有財，然後事也。敕邦絕生財之方，雖欲治標，豈可易言乎？羅曰：貴國財源甚多，但不講究之耳。余曰：敕邦財源，惟在山川自然之產，然開採不以其法，則亦徒勞無益。苟欲如法開採，則費用必鉅，是以難辦也。羅曰：若爲礦山籌款，自是易易，不與他款相同。余曰：聞他國或有借款之

事而救邦惟自守舊規之國姑未敢生意羅曰開礦一事只可由貴國自籌款須不必借貸甚借貸開礦必須確有把握萬不至虧折方可辦理斷不可孟浪從事也余曰大教誠然此有國之興替關頭不可不慎羅曰第在英國倫敦一年讀過西人理財書其言淺有根據有國者不可不知非王安石劉晏之比也余曰西人理財必以富民爲先民富則國隨而爲富乃至他國亦使富饒而後可以利吾民之通商不爲一人一己之私起身故其利甚博今欲遽效其法頗似迂緩然掌財之人不可不務存此心羅曰百姓足

君孰與不足故古之人藏富於民不與民爭利其利愈久愈大此理甚明不止厯存此心余曰眉公未得面別甚悵乞代致鄙忱羅曰明晨眉翁來過當代悉一是

十八日海關署談草

日本駐京公使初次電報畧言本國軍變事即訪玉山共談

周曰逐送日本公使是貴國王之意耶此事如何究竟願聞高論余曰逐使挑釁萬萬非寡君之意想不逞喜亂之徒妄生禍釁日本人亦必知非出於敵朝廷之意也若自敵邦查捕亂首明正典刑以謝日人庶幾釋其愠意而遠外事未可臆料也周曰高

論近是未知亂者爲誰日本或有藉端要挾之慮此時中國亦難設法余曰藉端要挾不無是慮然日本初通各國之時亦屢經此變未聞西人藉端要挾也亂者之爲誰在此無緣知得姑未知敵邦事情如何日人動靜如何中國亦難懸度設法恨隔海無一條電線不得續聞音信憂鬱憧憧

十九日海關署談草

余曰昨還敝寓終夜思量又與魚侍讀相議逐使之舉出於亂黨昨年安驥泳之黨亦有伐倭之謀由此言之亂黨之心不止逐使而已若內憂滋蔓不能即

定日本人乘便下岸各曰替我定亂嗣後要挾將無
所不至矣與其備手於日本不如自中國主持扶護
調停事面正大宜急派人往接敝邦事機若亂黨卽
散次第就捕則幸矣若不然乞卽派兵船幾隻載陸
軍千名星夜東駛毋在日人之後機會甚急恐不可
緩周曰水陸并進事大不可輕議丁軍門方有東巡
之行俟廿一總署回信卽當起碇現方在大沽矣請
派一人附搭而往到鴨綠江邊探知回來何如余曰
派人附搭丁軍門之船謹當如教而陸軍載於水艦
不必分行水陸今宜一面送撥一面戒嚴待探事回

來即便起碇若少遲則恐機矣一着之誤貽悔無窮
望加濠恩周曰總在探知回來更議方便耳

二十日海關署談草

與魚一齊同姓

周曰今日馬眉叔到滬寄電報云花房藉端鬧事四
國如無賴人之所爲耳貴國靜以鎮之可無他事此
言誠然否余曰想像敵邦事內憂深於外患若只有
日本船來加噴言則我既有失矣死傷者之助恤往
來之糜費什物之傷失自應照例賠給此外更有他
要挾之端斷不可從但不嫻此等外務接應甚難周
曰捕亂賠給二者外更無可要挾之事亂黨須嚴懲

然後可無後患亂黨凡有幾人余曰未可詳知周曰
此黨若逐使以後轉圖不軌之事滋蔓難制中國當
一舉滅之祈放心余曰慮無所不到亦不能逆覩日
夜憂焦不遑寢食今聞此教不勝感泣之至周曰魚
一齋將附輪船往探耶余曰然雖今日欲先往大沽
以待矣矣周曰總署回信明日當有待此信回起身
無妨余曰船到鴨綠江邊去義州不遠然義州距漢
城稍遠恐探事未真若得直往仁川則甚好而巡海
公事不敢相妨欲專雇一船往探於仁川如何周曰
誰將輪船專雇往仁川耶明日有總署信當奉告矣

二十二日海關署談草

昨得日本再次電報知亂克犯關玉山間亂起之由

余日頃詢敵邦亂起之由雖難臆料以去年事見之
 可以推知去年安驥泳等之謀不軌也亂黨私立三
 號一天字號犯 闕行廢立事也其二地字號芟除
 國王信臣干涉外務等事者也其三蜂字號即伐
 倭逐使也彼時事泄不遂今聞亂黨已犯 宮闕驅
 逐隣使與去年賊僞一一符合此係其餘黨所為明
 白無疑不知嗣後事更何如天涯孤臣忽聞此報不
 能奮飛此何人斯我 寡君踐祚以來憂國勤民失
 德未有暢聞惟以國勢微弱天下之時局大變若孤

立寡助 宗社難保故稟 中朝之命與各國議約
實爲保存 宗社生靈之計而彼不逞之徒以外交
召寇爲 寡君之罪鼓扇謗言驚惑民心釀成今日
之變姑未知犯 宮以後事機如何若亂黨得志或
遂廢立之法則必卽遣使奏請廢立之由搆捏成文
歸我 君於不仁不孝之科念到于此尤切痛心伏
望大人預陳此意於憲台轉致於摠署以明 寡君
之無罪受奸黨之誦也。玉山曰派兵須用幾人余曰
彼雖得志人心姑應未附中國仗順討逆誰敢撻鋒
愚意不過步兵千人足以辦事。玉山曰彼黨或與日

人陰和而陽絕外若逐使其實召兵來劫若如此則中國欲勦滅賊黨得無有碍乎。余曰無是理也。逆黨素無遠志惟知眼前事而已。寡君深惟大計用心外交於日本人亦善待之。逆黨方藉此爲罪膽敢舉事何暇與日人陰謀乎。雖然彼亦有些少權術。既藉名舉事乃更媚結隣好以固其勢。亦未可知也。玉山曰今日黎星使電報言見日本井上馨爲言朝鮮亂黨事現雖派兵自有權利非欲打仗辭氣平正云然彼既派陸軍其計固未測也。余曰日本人亦必無怨寡君之心。然既有此覺豈肯袖手而觀乎。玉山曰

日本兵船想已到貴國其間果勦除亂黨否或無干預廢置等事否余曰竊料亂黨得志初頭必無乞和之理一再交仗日人必當上岸便不可復制矣亂黨既已鼠竄日人之干預國事又未可知此所以欲中國速兵派先出毋在日人之後也若中國兵出不至打仗自有善處之道他國則不能也玉山曰俟師船探信回當密陳於制軍照此意妥行也余曰雖以賠給言之故邦人不慣外務必多吃虧嗣後兵船出去時邀一箇解識此等事之人辦理調停爲好此則雖洋人亦無妨玉山曰此次馬眉叔又出余曰馬公往

安徽何以能東出。玉山曰制軍電報飭令眉叔會丁軍門同出眉叔方在上海將赴烟台候丁同去也。因出示公文余看畢起立稱謝無數。玉山曰已派兵船十號其三號此次丁雨亭帶去其餘分在烟台等處準備以待。余曰如此則更無調發之遲不勝幸甚。玉山曰請回國局安心無庸兒女之悲。

二十七日海關署談畧

玉山有書來言請今日九點鐘到署與筱軒軍門一談筱軒軍門將奉旨帶陸兵四千即赴

仁川筱軒軍門在萊竹林上泰安兵輪船筱軒軍門家子身歷戰場廿年現官廣東實缺提督駐兵山東登州滿腹經濟析迷一見相約隨往也催飯即往與主人筆談良久吳軍門來會年可六十內外各長慶號小軒家在安徽合肥現統六營兵駐山東登州府韶顏笑容有儒粉之風絕無科之氣觀筆談紙平後舉筆者論數也

余問吳軍門今晚當發否兵船合為幾隻兵丁共幾

人主人曰大兵船三隻丁軍門先已帶出現有烟台
旅順口等處及南洋調來之船十隻合十三隻陸兵
四千悉歸吳小軒統轄明日十點鐘發船見今魚允
中先出若執事又去則此中無可與議貴國之事愚
意俟師船回信去就亦不爲晚不必明日同發余曰
如第者去留俱無益惟看事機爲之耳

三十日北洋衙門張制軍談草

與周玉山同

張制軍曰久未相見誰知貴國時事一變至此浩歎
浩歎已從海關道多聞足下之論而現承大皇帝
命已派水陸大兵未知足下高見如何余曰敝邦國

事不幸至此上貽 皇上之軫念重勤大人之憂勞
師遠撫不勝感泣之至凡一介書生受寡君之恩雖
赴湯蹈火亦耶甘心至於戎事素所不閑昨蒙差委
鄉導之任亦恨不堪實無以仰塞明問張曰雖有嘉
賓若無賢主人亦難爲力貴國朝廷有素負重望可
以整頓頽綱者否余曰有申尚書應朝博學有清介
之操爲世所推然年踰七旬退老郊庄洪公^相淳穆亦
清儉有雅望此兩公足以鎮物其子英植與閔泳翊
金宏集力贊外交之議久爲亂黨所惡此次想俱不
免張曰云云公殄瘁之難自古同然當此屯艱之時佳

濟之責不在足下與魚允中乎。余曰魚允中爲人慷慨能直前擔事倍勝於允植允植則何敢擬議且素乏重望不足鎮物。張曰當仁不讓不必過謙。日本黎公使電報適言^到日本人以中國不合派兵請再思云云。制軍示余曰日人以敵邦自主之國中國不合代爲辦理外面似然而今敵邦已背盟絕約何可以公法論乎。張曰日本欲藉端而干預貴國事若中國兵出恐有不便故耳其間日人動靜如何若已登岸反與亂黨陰合則更爲利害。余曰亂黨自無遠見藐視他國若一經砲火驚倒散走嗣後日人誘以禍福亦

不無陰合之慮所以欲中國派兵速出恐失其機也
語日人則曰彈壓亂黨語亂黨則曰調停日人各正
言順俱合於理彼心雖不樂非中國之損體也張曰
此兩句彈壓調停兩句甚合機宜大軍若直入都城或無驚動
生變之慮否余曰此事甚屬可慮不如以婉辭先請
接談彼不肯來宜連用好言撫之諭以勿驚節節進
兵逼住城外更防四門走路彼方見困於日人不得
不來附中國庶得保全 寡君也張曰高論極是談
畢辭起與玉山共至海關署用飯玉山又書問多少
事情纖悉無遺臨別書示曰軍事不可懸度願君與

一齊同設擊楫之誓毋徒下新亭之淚也余曰微軀何足惜而至於下淚乎一則保存吾君一則欲無礙於吾君面上此事甚難尙余憂俱在心不遑顧他反覆思之惟以宗社爲重耳方欲別之際有人寄書於玉山玉山者畢傳示於余乃此處人論中國出兵援護朝鮮事宜詳陳數十百言料我國事如指掌可見中州養才之地多出奇士問諸玉山玉山曰此人名福成年四十餘有謀畧不願仕信奇士也第以貴國事問之其答如是蓋玉山於我國事終始苦心至於此次出兵籌餉制勝善後之宜盡在精思稟

於制軍而行之或慮已謀之不遠又廣詢智謀之士其用心之苦謀忠之勤誠可感也誠不可及也

七月初二日素慰廷談草

時余隨軍東出過慰廷於日新船中各世凱年二十四河南毫縣人官中書舍人現

帶吳營軍行司馬其父叔皆顯官為人樂易英俊有壯志自言少不善讀書留心兵事僕從數十人皆武藝精熟謹受節制論我國事亦通達無碍令人驚歎

素書示曰吾欲提勁旅數百直入京城何如余曰未為不可到仁川後觀機酌行行恐好見其頭髮半白問其故荅第少孤有志四方游歷天下偶得失血之證以致早白余曰正當節畫麟閣之年已有潘毛彪斑之歎髮短心長壯氣不磨正復早白何傷猶願隨時保奮為國自愛素稱謝

自是與同起居四圍以後四五年之間無日不晤口談筆說不可勝收而并曠日記故談草無一見存者

另錄初見時數語以存其槩

十月初八日再至天津北洋衙門談畧

時李少荃起復視事余與從事

官金明均同入周玉山馬眉叔王筱雲潘梅園在座

中堂書問我國事無實心實政不能振

作故余對以國王憂勤求治緣輔佐乏人不能振

作中堂慨歎不已言言太息言雷兵事用洋元事俱

如所議撤還學徒事購買器械設局事亦如議柵門

銀稅事使之倘文請詳以便咨查國王接見中國

諸將儀節答以欽差宜用平等禮其餘哨官等亦非

所屬應以客禮待之但不必數見亦無用回謝日人

議定稅則事答以德人穆麟德今冬出往貴國宜使

日人來會商定國旗事可依所定而北洋與禮部合
有咨明

十四日北洋衙門談草

周玉山同在座

中堂曰幾日發行余曰十六日乘民船出大沽十七
日附搭泰安船回去李曰機器事與潘王兩道商議
否余曰昨見潘道以爲此事須經一手乃穩不可兩
局分辦李曰良是須一人的辦適王筱雲來中堂使
筱雲管其事李曰東局一年所用銀子多少君知之
否余曰該用六十萬兩去李曰貴國能設局如東局
否余曰非所可議堂呵呵大笑李曰南局所用幾許

君知之否余曰未詳其數大約東局之半李曰不及
半一年所用不過十餘萬兩通貴國之力可以及此
否余曰此亦不可跂及李曰初頭不必張大只設小
局假量一年該用萬餘兩稍稍增設爲可明春揀善
手工匠數人出送貴國教習何如余曰如此甚好李
曰薪水亦不多余問王筱雲教習人來故邦一月薪
水當給幾何王曰隨其才藝高下大約十兩以上方
可李曰貴國制器練兵是不可已之事中國向被洋
患天津失守北京亦危伊時無器械可敵故洋人無
難闖入吾是以始設機器局於天津上海福建廣東

等迄今則洋人不敢窺窬去年與俄羅斯失和俄國
兵船來天津見機器防守之盛不敢近港而歸若如
貴國之無備俄人何憚而不入乎余曰中堂擬設製
造局之事讀向時疏本而知之故非今日擬設小局
不知何時做得一分樣子李曰穆麟德見過否余曰
日前相面於海關道署李曰此人公平正直諳交涉
等事通各國言語文字吾特薦之余曰見其面已知
其人之淳實協安故邦交涉事務誠爲萬幸李曰到
貴邦卽奏賜一官銜無論二三四品皆可但做貴國
之官辦貴國事無碍各國人不得以局外干涉爲言

向來李裕元金宏集與日人議約時若有如穆麟德者代辦日人不敢要挾過當余曰勻教甚當穆麟德出來後國王當卽引見否李曰甚好余曰接見儀節當如何李曰外國人本無跪拜之禮雖進見皇上亦只脫帽而已姑任其俗可也余曰一次引見之後或有大公事可以引見否每月一兩次時常接見乎李曰非有大公事不必數接如有面議事可令政府相議李又曰貴國尚疑畏外國人乎余曰民間耳目尚未習熟故皆有疑懼之心李曰於日本人何如余曰日本人亦未相熟疾之如讎李曰日本修好已

久亦如此况外國手萬一穆麟德出去後或有被害
見辱之事將奈何余曰不無是慮當歸奏國王派
員保護不至有他李曰此人吾所力勸而出送專爲
貴國地也若遭意外之患於吾面上大不好須十分
防護是望余曰當極爲保護李曰購器銀子何時來
到手余曰俄見公文今年柵稅之得免甚幸但往返
之間自費數月大約歲內可以到津李曰到津後將
如何余曰屬從事官即報海關道及東南局商議購
買之事李謂王筱雲曰銀子來到之前可以先事講
究筱曰雇入製器先須須給價若干三分一工價敵

局當先給使之趕緊製造。李曰從事官金明均當住
何處。余曰學徒撤還後不必仍住東局。現備銀千兩
托東局鑄水工頭唐明義買一區屋子安頓。周玉山
曰千兩買屋不成。公館貌樣津城紫竹林之間。有僧
舍可給千兩修理。館宇較爲寬廠。此間公館多於僧
舍。爲之尊意如何。余曰甚好甚好。李曰此計好矣。周
曰然則送價銀於敝處。吾當派員往看。一功代辦。余
曰甚感。且幸。李曰卿見任江華。曾守不曾到官否。余
曰公事忙未得到官。江華距京城百餘里。民事通判
主之。軍事中軍主之。有大事來決於雷守。李曰常在

機務處議事否。余曰：雖亦在機務，愧乏涓埃之報。李曰：經變以後，國王認真圖治否？余曰：勵精圖治，講究日新之教。李曰：有實效之可言否？余曰：干謁苞苴之風，比前寢息。廣開言路，破格用人，方行保舉取士之法，減省冗官冗費，汰老弱之兵，團丁練習庶事，草摺姑無成效之可言，而民有拭目之望矣。李曰：儘好好，吾所望者，惟在貴國。君臣協心，同德政治，日有起色。余曰：自教甚感，謹當歸奏。國王李曰：聞自貴國來者，皆云貴國兵丁非徒不習於洋槍，并本國所用之鳥鎗，不會慣用，是何故也？余曰：昇平無事，京

營兵驕惰游逸與兵器相踈或有峽村獵戶能命中
乏人然不曾束於隊伍之制亦不可用也李曰穆麟
德在其國官高不宜慢待待之不可與日本人同也
日本人最畏德德國又忌穆麟德吾最憎日本人之
侮貴國故出送穆麟德而制之日人必不敢如前恣
橫也余曰如此牽制浚爲萬幸余曰允歸國後本國
事宜屬從事官稟商奉有 國王諭旨或有公文呈
請之事無可據之印信所有領選使印姑屬從事官
何如李曰可也嗣後有事與周道商議余請告辭李
曰善輔 國王今日貴國聲聞通於萬國與向日貴

國大不同善則有百世令名不善則貽羞四海不亦
 可慎乎余起立稱謝李曰卿今年貴庚幾何余曰四
 十八歲李曰早白矣周玉山曰今年盡白矣李曰嗣
 後如有大事閣下當來津不然則只好在國辦事余
 曰謹當唯命李曰此去代請一國王安好余拱

手稱諾

同日穆麟德口談畧

穆麟德德國人我國欲在襄辦交涉之人李
 中堂薦穆麟德此次將與之東出故先見叙談

余曰穆公枉居敝邦居處食飲甚是不便好經辛楚
 穆曰不要緊吾往貴國為辦公事不在於居處食飲
 聞貴國木石不貴庇身之所可以建造其他隨身之

具可以搬出屋宇又不必高大只容膝而已且不佳
一處貴國開港三處皆爲七八日程去來往看驗何
暇安居耶仍論礦山事穆曰白頭山以北爲滿洲地
多出煤礦以南爲貴國界以此觀之咸鏡道必多產
煤之山余曰非徒咸鏡道故邦多山南邊沿海之地
亦多產煤穆指定我國地道嶺南海邊處曰此等處
若產煤則中國人不買煤於日本而經買於貴國矣
余曰煤礦近海則可以開採若在高山深峽無輸運
之路採之無益故邦山川險阻雖多產煤不可盡採
穆曰不然近海之煤可以運買而渡山煤礦之處又

必有金銀銅鐵之礦金銀銅鐵非煤炭則無以開辦
故漢山煤礦亦不可棄也中國開平煤礦亦產銅鐵
而皇上以損陵脈禁開我西國初無是見中國
風之說惑人甚多○余曰敵邦亦多風水之說穆曰小
民雖有此說惟國王不信然後乃可以成年前中
國設電線時小民譁然以爲損地精獨李中島堂確
然以爲無是理也民不敢言今果何如耶此等虛言
掃除方可○余曰問此次帶中國學徒東出果然否穆
曰出洋學徒六人吾將帶出先教貴國學生等習西
語西文分送開港三處一處各二人交涉商務等事

必大有益就中梁敦彥見在電報學堂此中人甚惜

不欲捨吾期學之傳出仍出示學徒六人姓名

頭批出洋學生蔡基

紹在水師營務處

頭批出洋學生梁敦彥在電報學堂

二批出洋學生吳仲賢在機噐

東局

二批出洋學生林沛泉在津海新聞

三批出洋學生周長齡在津海新聞三批出洋學

生梁如浩

三人此次同往其餘明春來會余曰甚好好

在南局

編者略歷

● 林基中

東國大學校 文科大学 國文科 教授

韓國文學研究所 所長

『朝鮮朝의 歌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古典詩歌의 實證的 研究』, 『우리의 옛노래』,

『우리 歲時風俗의 노래』, 『高麗歌謠의 文學社會學』,

『佛敎歌辭1-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景幾体歌 研究』, 『韓國歌辭文學 研究史』,

『歷代歌辭文學全集1-50』, 『새로 읽는 鄉歌文學』,

『韓國文學의 이삭』, 『천재적인 바보』,

『佛敎歌辭原典研究』, 『佛敎歌辭研究』,

『燕行歌辭研究(近刊)』, 『燕行錄研究(近刊)』 등의 책을 펴냄.

燕行錄全集 93

2001年 10月 20日 初版 印刷

2001年 10月 25日 初版 發行

編 者 : 林 基 中

發行人 : 宋 錫 球

發行處 : 東國大學校 出版部



100-715 서울特別市 中区 筆洞 3街 26

Http ://home.dgu.ac.kr/~book/index.html

E-mail:book@dongguk.edu

Tel : 2260-3483~4

FAX : 2268-7851

出版登錄 第2-163号 (1973. 6. 28)

組版·印刷/龍知印刷(株) 718-3111~19

價格: 1 帙 (100卷) 4,000,000원

ISBN 89-7801-203-5 93810

ISBN 89-7801-110-1 93810(세트)

